



7

1982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2. 7호

(루게 417)



◆◆◆◆◆◆◆◆◆◆

## 차 례

◆◆◆◆◆◆◆◆◆◆

빛나라, 주체사상탑이여 .....	4
오, 개선문 .....	5
향도의 별 <b>김정일</b> 동지 .....	6
라침관 .....	7
조선의 영원한 봄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빛나는 서사시적화폭 .....	8
향산천 물노래 .....	13
소사하의 어머니 .....	14
해빛안고 별빛안고 빛나는 묘향산 .....	15
락원의 묘향산 .....	15
금강의 새모습 .....	16
가장 빛나는 삶 .....	17
해방된 평양에서(2) .....	21
농장의 밤은 좋아라 .....	24
지평이 .....	25
모닥불 .....	33
통일의 이름으로 빛나는 땅에서 .....	44
보호자 .....	45
한줌의 비료에도 .....	48
앞서간 자욱 (외1편) .....	49

그 어디에 있느냐 소조원 그대여! .....	49
타오르는 불길앞에 .....	50
민요첩을 펼치며 .....	51
나의 선생님 .....	54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62
좋은날 .....	64
해동이 .....	65
병사의 영광 (외1편).....	69
나의 중대 충성의 대오여! .....	70
길가의 샘터에서 .....	71
작품의 감화력과 감정조직 .....	72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의 자연묘사의 특성 .....	74
영원한 봄.....	77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	79

# 빛나라, 주체사상탑이여

차영도

세기의 빛을  
애타게 갈망하던  
수억만 눈빛들이  
우러르는 촛불이다

삶의 운명을  
애타게 찾던  
수억만 심장들이  
받드는 탑이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힘을 깨우쳐  
세기의 하늘가에 높이 솟은  
인간중심의 탑이여

잃으면 운명의 노예  
가지면 새세계의 주인  
력사의 그 진리도  
만민이 받들어 올린 신념의 탑  
오, 주체사상탑이여!

너는  
자주시대의  
무궁한 앞길을 밝히는  
혁명의 등대!

오, 인간의 머리위에  
광명의 압은 솟았나니  
얼마나 광휘로운 빛발이  
누리를 미치는것이나

이 빛발 한번 비쳐가면  
천년을 얼어붙은 동토대우에도  
삶의 활력은 넘쳐나고  
이 빛발 가닿는곳에  
만리 사막도 꽃을 피워안노라

은혜의 빛발  
진리의 불빛  
우리 수령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그 장구한 길에서 밝히신

혁명의 천리-주체사상!

이 탑을 받들어  
인간은  
주인의 이름으로 력사와 마주섰고  
이 탑을 받들어  
인간은  
광명의 새세계로 나아가나니

거룩하도다  
수천년 력사우에 빛발치는  
주체사상탑!  
인간 정신이 다달은  
그 위대한 높이여

행복이여라  
우주에 단 하나인 저 위대한 불빛  
인류가  
가지고있는것은

영광이여라  
먼먼 세기에 가도  
이 세상에 영원불멸할 사상  
인류 천만대가 노래할수 있는것은

오,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더불어  
빛나는 탑!  
만민의 태양 그 이름과 더불어  
영원한 탑!

여기서 시작된 하늘밑에서  
인류가 살고  
여기서 시작된 봄푸른 대지우에서  
세계가 숨쉬도다

오 주체사상탑!  
천년을 솟아 만년을 빛발치라  
인류가 받아안은 가장 큰 재부  
여기 평양의 창공높이 솟은  
인간 해방의 탑이여!  
인간 만세의 탑이여!

# 오, 개선문

신진순

개선문

오, 개선문

솟아올랐구나 드높이

터져오르는 환호

넘쳐나는 꽃물결에 받들려

개선문

아름다운 네 모습

진주로 빛어냈나

옥으로 다듬었나

고결한 자태

위대하신 장군님의

그 뜻 그 기상 담고 거연히 솟아

민족의 환호소리 내 귀에 쟁쟁코나

만세!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천지를 진감하던

환호의 소용돌이

감격의 폭풍이어

내 심장깊이

오늘도 파도치는 행복의 메아리여!

웃고계신 장군님

인산인해 뿜어번지는 개선광장

높은 연단에 해빛처럼 웃고계시던

아, 우리 장군님!

꿈이런가 두눈 부비여도

꿈이 아니었다

**김일성** 장군님

칠칠암야 기나긴 세월

암흑속에 솟아오른 백두산 장수별

마음의 하늘에 태양으로 솟아

사슬에 휘감긴 3천리 강토가

몸부림치며 바라고 기다리던

오 **김일성** 장군님!

조선의 희망

조선의 구성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존망의 기로에서

민족 반만년의 삶을 안아올리신

**김일성** 장군

피바다를 건너 불산을 넘어

백전백승 무적의 대오 거느리시고 오신

**김일성**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 높은 연단에

혜성처럼 웃고계시고

가슴에 안은 꽃다발우에

방울방울 흘린 눈물

기쁨의 눈물이런가

행복의 눈물이런가

오늘도 내 가슴 적시여

꽃다발 안고 나 여기 섰노라

만경대교향집 사립문 나서시여

자욱자욱 툭아가신 피어린자욱  
인류력사 아직 모르는  
거룩하신 발자취 삼가 더듬어  
나 오늘 여기 섰노라

개선문  
오, 개선문  
장군님 영상 오늘도 여기 웃고계시여  
하늘은 이처럼 드높은것이라!  
강물은 이처럼 푸르른것이라!  
세기의 암흑 영원히 걷어버리고  
3천리에 태양을 맞던 그날  
조선은 광휘 펼치며  
사랑의 그 품에 새로 태어났더라

그날은 오늘로 잇닿아  
래일로 계속되는 영원한 날  
조선의 심장들은 수령님 두리에  
하나의 맥박, 하나의 숨결로

영원히 뭉치었나니

민족의 거창한 진군  
이 땅우에 기적을 창조하며  
주체조선  
천리마의 우렁찬 발구름소리  
지축을 흔들며  
달려가노라!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세계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개선문  
오, 위대한 력사의 증견자여!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에  
그 모든 깊은 뜻 소중히 안고  
그날의 환희 그날의 열정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치라!  
내 가슴속에,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빛날치라!

## 향도의 별 김정일동지

씨이디 마썸디

망망한 태양의 파도는  
사납게 일고  
온갖 빛을 삼켜버렸다  
배들은 갈길을 잃었다  
  
먹물을 뿌린듯 암흑이 찾아들었으니  
아 여기서 세상이 끝나고마는가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 갈길을 잃고  
우리는 정처없이 헤매고있었다  
번민과 절망에 찬 소리 높아갔다

이때 그 누가 웨치는 소리  
-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오  
동녘을 쳐다보시오  
별이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있소!-  
아, 그 별은 한 배의 돛대우에 높이 솟아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향도의 별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며  
  
그 별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방향도 잃지 않는 배

모든 배들을 이끌고나가는 배  
그 배는 바로 《조선》  
그 배를 따라 다른 배를 뒤따라섰다

그 향도의 별은 **김정일** 동지  
항일혁명의 폭풍속에 탄생하신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완벽하게  
체현하신분  
그이는 **김일성** 동지의 유일한 후계자  
그이는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는분

《조선》은 앞장서 나아가고있다  
**김정일** 동지께서 향로를 가리켜주신다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시고  
끝없는 변혁을 안아오시는 투사

《조선》을 따르는 우리들  
마음도 든든해지고 방향도 뚜렷하거니  
끝없는 힘모의 정을 안고  
향도의 별을 우러르는 우리들  
감격에 목메여 부르고 또 부른다  
《**김정일** 동지 만세!》  
《**김정일** 동지 만세!》  
(필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종합대학 학생)

## 라침판

### 이본느 라자나마지

오, 공산주의의 향도성이시며 태양이시며  
조선로동당의 뇌수이시며  
자애롭고 친근하신 지도자이시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완벽한 체현자이신  
**김정일** 선생님!

당의 통일단결의 중심이시며  
탁월한 사상가이시며 최고지도자이시며  
위대한 형제이시며 벗이신 당신께  
우리의 다함없는 축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립니다

빛나는 예지와 슬기로  
문학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꽃피우시고  
20세기 문예부흥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신 당신은  
퇴폐와 색정, 허위와 기만에서  
인류의 참다운 문화를 고수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와 념원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범한 수완으로 구현해나가십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시며  
군사위원회 위원이신 당신께  
세계인민들은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나니

위대한 **김일성** 주의자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지도자이시며  
동지이시며 벗이신 **김정일** 선생님께  
우리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필자는 말가슈 시인)

## 조선의 영원한 봄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빛나는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 대하여-

고철훈

얼마전에 4.15문학창작단에서 세상에 내놓은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장편소설이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하고 준엄한 시기였던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에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면서 우리 혁명주권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조국삼천리에 영원한 봄을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공모와 불멸의 업적을 사상예술적으로 빛나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1933년초부터 이듬해 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의 혁명정권수립과 여러가지 민주주의개혁의 실시, 반유격구창설과 반제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유격근거지방어전투의 거대한 승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은 그가 담고있는 의의있는 사회력사적 화폭과 심오한 사상주제적내용, 작품전반에 차고넘치는 풍만한 생활정서로 하여 혁명소설의 위력을 또다시 빛내인 자랑스런 성과작이며 걸출한 대작이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의 일단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한 걸출한 대작으로 완성될수 있는것은 수령 형상작품창작을 문학예술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기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현명한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근거지의 봄!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바뀌어 여름이 되는것은 자연의 리치건만 1933년의 봄은 얼마나 곱절많은 사연을 안고 소왕청근거지로 찾아들었던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지만 좌경쏘베트바람이 모질게 불어 움트려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시들어버린것이 마흔의 봄이었다. 바로 이처럼 음산한 봄날에 장군님께서는 근거지에 찾아오시여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을 뒤집어엎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을 내놓으시여 인민들을 참된 혁명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였으며 인간의 참된 존엄을 지닐수 있게 하여 주시였다. 또한 근거지방위를 위한 인민전쟁을 승리로 결속지으심으로써 이듬해의 경사로운 봄을 맞게 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철의 의지, 장군님의 탁월한 전법에 의해 마련된 이 봄은 단순한 자연의 봄이 아니였다.

하기에 작품에 등장하는 국제공산당파전원 류현민은 자기 느낌을 다음과 같이 썼다.

《청년장군!

청춘처럼, 봄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생동하고 강毅한 령도자!

그의 모습과 이 봄은 하나의 조화로 어울려져나로 하여금 심각한 시정에 자꾸 잠겨들게 한다. 나에게는 근거지의 이 봄이 자연의 봄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새 기운을 활짝 꽃피운 혁명의 화창한 봄으로 느껴진다.》

이러한 느낌은 결코 류현민 한사람에게 한한것이 아니였다. 어제날 종파의 구렁텅이에서 헤메다가 참된 삶의 길, 투쟁의 길을 되찾은 정문혁은 승리한 봄날에 자기의 격동된 감정을 즉흥시에 담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

수양버들가지들 흐느적이는 밑에서

봄에 취한 가냘픈 시인

온 심혼을 담아 웨치고싶노라

우리에게

태양이 있어 이 봄이 왔다고

이 봄에 태양이 더 고맙다고

진리의 태양

사랑의 태양

위대한 리성의 태양이여!

아,

이 봄을 안고 조국으로 가자



이 봄을 조국삼천리에 활짝 꽃피우자...

그렇다. 근거지의 봄이야말로 조선혁명과 세계 혁명에 새기운을 활짝 꽃피운 혁명의 화창한 봄이었으며 조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그이의 두리에 뭉친 강철같은 통일단결, 피로써 쟁취한 새 세상, 새 제도를 끝까지 지키려는 철석같은 신념.

이 불패의 위력이 마련된 근거지의 봄이 있어 우리 조국의 영원한 봄, 인류의 화창한 봄이 꽃피어 날수 있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려는 바로 여기에 작품의 사실적알맹이가 있다.

장편소설은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그 시기 력사적사실에서 골라잡은 이 사상적알맹이를 똑바로 틀어쥐고 형상을 한폭으로 깊이 파고들어갔기에 혁명소설의 력사문헌적인 의의와 예술적가치를 확고히 담보하고 작품의 철학적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장편소설의 중심에는 주체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탁월한 군사전법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정치적수령이시며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을 위한 헌신적복무와 희생을 최대의 행복으로 받아들이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품모가 빛나게 형상되고있다.

소설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철학적신념을 확고히 지니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카륜회의와 명월구회의에서 내놓으신 주체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에서 유격구에 어떤 정권을 세울것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과 사회경제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세워야 할 정권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반일력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로 되어야한다는 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이야말로 근거지에서서의 정권문제와 토지문제, 농민문제 등을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길을 밝힌 가

장 정당한 로선이였다.

그러나 좌경기회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을 고집하면서 근거지인 민들속에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였다.

소설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현당에 틀고 앉은 권일균이나 송해일과 같은 좌경분자들은 《공동소유》,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떠벌이면서 빼기밭까지 내놓으라고 강요하였으며 열혈청년인 김창억의 입대청원을 조흔을 했다는 한 가지 구실로 부결놓는다. 하여 마을의 공기는 전에없이 뒤숭숭해졌다.

마종삼로인은 피땀들여 일군 200평의 빼기밭을 공동경작에 내놓기가 싫어 근거지에서 달아나는가 하면 그의 아들 마동호가 억울한 루명을 쓰고 혁명감옥에 갇히우고 창억의 처 윤보금은 자기와 결혼한것때문에 유격대에 입대 못하는 남편을 생각하여 남몰래 탈가한다.

쏘베트시책을 바로잡는가 못잡는가 하는것은 근거지를 혁명의 책원지로 꾸리는가 못꾸리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촌에 오시였다.

소설은 근거지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시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주면서 좌경종파분자들과의 로선투쟁의 근본바탕에는 혁명과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문제가 첨예하게 놓여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인간이며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는것도 인간이기때문에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투쟁을 전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보신다. 바로 이것이 장군님의 인격에 체현된 확고부동한 철학적신념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존중하시기에 마촌에 당도하시자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새끼를 함께 꼬시며 마을의 좌상인 김진세로인을 만나시는가하면 쌍암촌의 지유복농민파도 만나시여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신다.

그러나 종파분자들은 흑심한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몇몇 사람의 의견만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이 여기고 인민들의 리익, 인민들의 념원, 인민들의 감정과 생활풍습까지도 무시하면서 좌경적인 쏘베트로선을 휘둘렀다.

바로 여기에 종파분자들의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것이다.

(인민들의 요구가 혁명의 구호로 웨쳐지며 혁

명이 참되게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게 한다면서 혁명은 몇몇 사람의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자신의 일로 될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가?)

고요속에 묻힌 밤, 마을길을 홀로 걸으시는 장군님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종파분자들이 범한 좌경적오류를 인민대중자신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쏘베트관계자들의 모임을 열어 광범한 군중들과 함께 론전을 벌리도록 하시며 인민들에게 그 이로부터가 생소한 쏘베트를 전체 인민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로 개편하신다. 그리고 인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개혁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주주의개혁들을 실시하도록 하신다.

혁명이 승리할수 있는 비결은 그 어떤 허황한 쏘베트로선같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을 제혈육이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분투하는데 있다는 장군님의 말씀.

소설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로선투쟁장면을 통하여 혁명과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에 확고히 서시여 인민혁명정부로 선을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탁월한 풍모를 빛나게 형상하였다.

주체의 철학적신념을 확고히 지니시고 혁명을 즐기치게 밀고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는 반유격구형성을 위한 국내에로의 진출과 근거지 방위를 위한 전인민적전쟁을 통하여서도 잘 보여주고있다.

1933년 3월 장군님께서 령솔하신 유격대의 온성지구예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경원군 류다섬에서의 정치활동 등은 모두가 조선혁명을 조선사람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한 주체적립장에서 벌리신 사업이지 결코 종파분자들이 시비하는것처럼 1국1당제원칙을 위반하는 민족주의적경향이 아니였다. 장군님께서 온성지구예로 진출하시여 광범한 지역에 반유격구를 형성하시였기에 유격근거지는 일체의 그 어떤 군사적공세와 경제적봉쇄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전투기지, 후방기지로 꾸릴수 있었다.

유격근거지방위를 위한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도 장군님께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시여 근거지에 전인민적방위체계를 수립하시였기때문이며 장군님의 령활한 주체적전법이 있었기때문이다.

근거지방위를 위한 가렬한 전쟁을 앞둔 어느날 군량을 모아 장군님을 찾아온 쌍암촌의 지유복회

장과 농민들, 석전으로 유격대를 돕겠다고 그 묘술까지 내놓는 김진세, 마종삼 농민들.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근거지의 방위력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신다.

(...왜놈들은 우리보다 총과 대포를 더 많이 가지고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더 많이 가지고있다. 우리는 인민대중을 가지고있다!)

소설은 인민대중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하여 세우신 집중과 분산, 매복과 습격, 적배후교란작전 등 장군님의 령활한 주체적전법이 있었기에 근거지방위를 위한 인민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을수 있었다는것을 가렬치절한 근거지방어전투에 대한 폭넓은 묘사와 함께 깊이 있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은 혁명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자신의 사업이고 인민대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라는 주체적인 관점에 확고히 서시여 유격근거지를 혁명의 책원지로, 튼튼한 보루로 꾸려나가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은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다음으로 세계혁명의 전략적과업을 명철하게 제시하시고 실천적모범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주로 이것을 국제공산당과전원 류현민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오의성부대와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 장면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류현민이 모스크바에서 하바롭스크까지, 하바롭스크에서 할빈, 할빈에서 소왕청유격근거지까지 불원천리하고 장군님을 찾아뵈은 중요목적의 하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뚫고나갈 방책을 가르침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제정세로 말하면 매우 긴장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앞에는 파시즘의 대두를 막고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세울 절박한 과제가 나서고있었다.

이 과제를 빛나게 해결하실분은 위대한 장군님밖에 없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파시즘의 발광적인 발악에 대처하여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이 각계각층 각파의 정치력량들과 인민대중을 파시즘을 반대하는 하나의 반파쇼전선에 묶어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신다. 이 방침이야말로 국제파시즘을 타파하기 위한 세계혁명의 전략을 제시한 탁월한 방침이다.

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통찰력으로 국제정치 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평가하시고 세계혁명의 전략을 밝히시었을뿐만아니라 조선혁명의 실천적모범으로 세계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끄시었다.

《...우리는 조선혁명을 세계혁명의 한 고리로 보고있으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곧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협할수 없는 우리의 신념입니다.》

장군님의 이 말씀에는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는것으로써 세계혁명에 이바지하는 주체적립장이 확고히 반영되어있다.

실제로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인민혁명정부로선은 전세계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혁명운동에 새 정권 수립의 길을 환히 밝혀주었으며 유격근거지에서의 반일통일전선로선의 실현은 국제파시즘을 반대하는 전략과 전술 문제의 생동한 모범으로 되었다.

특히 오의성부대와외의 련합전선의 실현은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반제공동전선의 선구자적모범을 보여준것으로써 그 의의가 대단히 큰것이였다.

반일공동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오의성과의 담판과 동녕현성전투에 대한 심오하고도 폭넓은 예술적화폭들은 혁명앞에 닥친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시기 위하여서는 일신의 위험도 서슴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없이 고결한 혁명가적품모와 크나큰 도량과 포용력을 감동깊은 형상으로 부각하고있으며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품모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간애와 숭고한 혁명적의리도 감동적으로 그리였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은 장군님께서 지니신 가장 고결한 인민적성품이다. 장군님께서 것처럼 짧은 기간에 수백만 민중을 쟁취할수 있는 비결의 하나는 바로 인민대중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에 있다.

김진세로인의 일가만 하여도 파탄될 지경에 이른 가정이 장군님의 은덕으로 다시 화목을 이룩하게 되었고 김진세로인은 물론 아들 창억이와 며느리인 보금이 모두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과 믿음 속에서 새 인간으로 소생되어 혁명가로서라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장군님의 사랑은 쏘베트로선에 불만을 품고 근거지에서 달아났던 마중삼농민과

일본놈의 통치밑에서 면장을 하면서도 민족적량심을 버리지 않은 박수원면장에게도, 종파의 구령렁이에 빠져 갈길 몰라 헤매이던 정문혁과 이국의 찬바람속에서 조국을 그리며 공산주의운동을 지향해온 국제당파견원 류현민에게도 돌려지며 구국군부대에 공작조로 파견된 리학산의 처박차녀에게도 지어는 구국군두령인 오의성과 사려장 초려장들에게도 돌려지는것이다.

소설은 장군님의 고결한 인간세계를 특히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륜리관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장군님께서 너성이나 애정 문제를 혁명과 갈라놓고 보는것자체를 반대하신다. 그이께서는 참된 인간성이 안받침된 사상과 의지만이 어떤 풍랑속에서도 변절과 동요를 모르고 만난을 이겨나갈수 있다고 보신다.

하기에 중대정치지도원 최진동이 부녀회장 림성실과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혁명만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를 멀리 대하려 하는것을 알아차리시고는 어느 일요일날에 그들더러 약혼사진을 찍어오라고 심리평에 보내시기도 하신다.

장군님께서 바로 이러한분이시였기에 최진동이 국내공작에 나갔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을 때에는 배낭속깊이 간수했던 그 사진을 꺼내놓고 비분을 금치못하시는것이였다.

희생된 전사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결코 최진동에게만 한한것이 아니였다. 혁명의 간고한 길에서 자기의 한목숨을 기꺼이 바친 서정민, 리학산, 장대설, 류현민이들에게 돌려지는 영원한 사랑을 통하여 소설은 장군님께서 지니신 혁명적의리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장군님의 소탈하신 인간적인 품모와 그이께서 지니신 혁명적륜리관은 국제공산당파견원 류현민과의 관계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그려지고있다.

어느날 장군님께서 너성의 미덕중에서 어떤것이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류현민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신다.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 모습때문인지... 나한테는 헌신성... 헌신성이 너성의 미덕중에서 가장 귀중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아가시며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뒤받침하여 주신 어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너성들의 수고와 미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장군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뜻이 깊은것인가.

장군님께서 너성에 대한 견해뿐만아니라 새로운 료리에 기초한 사랑에 대해서도 스스로없이

이야기해 주신다.

류현민은 장군님의 사상을 과학하고 그에 공명하면서 동시에 이처럼 스스로없고 소탈하신 그이의 인격에 감화되어 장군님을 우러러 따랐것이다.

리별의 그날에는 친히 자신께서 말을 타시고 바래워주시는것만으로도 모자라 근거지를 떠나기 아쉬워하는 류현민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이틀동안이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지내신 다음에야 떠나보내시는 장군님.

그리고 류현민이 종파놈에게 사살되었다는 뜻밖의 비보를 들으시고는 못내 애석해하시며 비상용 양초 한곽을 꺼내시고 장래를 뵈수록 조선식으로 우리 풍습대로 할데 대하여 당부하시는 어버이장군님.

류현민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야말로 하늘땅에 비길수 없는 은정깊은것이였다.

류현민은 근거지생활을 통하여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결한 인간적품모를 실제 눈으로 보고 심장으로 체험하였기에 국제공산당원동국에 가서 할 보고문 초안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탁월한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이며 천재적인 예술가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중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령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그는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결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

류현민의 이 절절한 토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의 찬가였으며 그이의 탁월한 품모를 레찬한 심장의 뱀침이였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주체의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며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품모를 감명깊이 그려내였다. 바로 여기에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이 거둔 가장 큰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과 함께 일편단심 수령님만을 믿고따르며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나가는 유

격대원들과 인민들의 티없이 깨끗한 충성심을 감동깊이 그려내였다.

소설에는 지난날 종파분자들의 좌경적책동으로 하여 유격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있다가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서 유격대원으로 그이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나는 김창억의 형상과 함께 장군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을 가슴깊이 간직한 유격대지휘관들인 최진동, 리학산, 서정민 등의 형상이 빛나게 그려져있다.

작품은 김창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평범한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면 유격대지휘관들의 형상을 통하여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생동한 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근거지방위를 위한 어려운 전화의 나날 놈들에게 체포되면서까지도 장군님께 식량을 구해보내는 김진세로인이며 장군님의 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지유복, 한설봉 등 마을로인들과 부녀회장 림성실, 장군님의 품을 찾아 유격근거지에까지 들어 와서 아동단학교교원으로 일하는 현옥심, 지난날 배우지 못한탓으로 종파분자들에게 통락당하였다가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변된 근거지의 새 현실을 통하여 비로소 혁명의 참뜻을 깨닫고 인민혁명정부를 목숨바쳐 지켜내는 왕청유격대중대장 장대설 등의 형상이 각이한 개성으로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특히 종파사대주의자들과 휩쓸려다니다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혁명의 한길을 꺾고이겨어나가는 현당강사 정문혁이며 장군님의 넓으신 도량과 사랑에 의해 혁명의 품에 안기게 되는 면장 박수원의 형상은 매우 인상적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들과 마을인민들의 각이한 형상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인간들의 성격장성과정과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훌륭하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구성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묘사를 감동적으로 함으로써 소설의 형상수준을 최상의 경지에 끌어올리였다.

소설의 인간관계설정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주선으로 하고 여기에 김창억, 최진동, 리학산, 박수호 등 여러 인물선들을 맞물려 장군님의 위대성과 그이의 고결한 인품을 밝혀내는데 이바지하고있으며 특히 장군님과 연고관계가 있는 실재한 력사적인물들을 등장시켜 주선에 철저

히 복종시킴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생동한 생활화폭속에서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리학산, 류현민, 현옥심, 정문혁, 박수원, 류현민을 사살한 훈춘현 조직책 박두칠, 오의성과 그의 개인서기 진소명 그리고 서려장과 초려장 등은 모두가 실재한 력사적인물들에 기초하고있으며 소설은 이러한인물선들을 사령관동지의 형상선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소설의 생활화폭을 력사문헌적의의가 있게 진실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의 이야기줄거리조직에서 특징적인것은 소왕청유격근거지 생활을 위주로 그리면서 매개장들에서 그 당시에 벌어진 의의있는 사변들을 사건발전의 일관한 흐름을 타고 논리성있게 잘 보여 주고있는것이다.

소설의 사건은 작품의 소재적특성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비교적 고착된 장소에서 벌어지고있다. 소설에서는 좌경종파분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토선투쟁과 인민혁명정부의 수립, 력사적인 왕제산회의와 반유격구의 형성, 유격근거지에서의 제반민주주의개혁의 실시, 반제공동전선의 실현과 근거지방위를 위한 투쟁 등을 기둥으로 하여 매개장들을 구성하고있으며 매개장들이 사건발전의 일관한 흐름을 타고 흥미있게 전개되는것은 복잡한 생활의 흐름을 간결한 형상의 흐름으로 집약하고 통일시키고있기때문이다.

소설의 5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꽃펴나는 김창억과 윤보금, 최진동과 림성실, 현옥심과 정문혁사이에 벌어지는 량만적인 생활들을 집약적으로 묘사하면서 여기에 이어 장군님을 우러르는 국제당파전원 류현민의 격조

가사

높은 주정토로를 안받침함으로써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고결한 인간적품모를 감동깊게 보여준것은 구성조직을 형상의 흐름에 맞게 빈틈없이 짜고들었기때문이다.

장편소설의 높은 형상성은 소박하고 생동한 묘사와 생활세부의 진실한 탐구에 의해서도 보장되고있다.

헤어졌던 창억이와 보금이의 생활적인 상봉장면에 대한 세부묘사 지나간 력사적사실을 그대로 한쪽의 그림으로 펼쳐놓은듯한 오의성사령과의 담판장면에 대한 묘사와 동녕현성진공전투, 소왕청근거지방어전투에 대한 폭넓은 정경묘사, 국제당 파전원 류현민의 격조높은 토로, 특히 토지개혁을 실시한 근거지에서 발갈이를 하시고 농들의 《토벌공세》를 짓부신 승리의 봄날에는 손수 씨앗을 뿌려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에 대한 빛나는 묘사도 매우 의의가 큰것이다. 그것은 바로 전인미답의 혁명의 황무지를 독창적인 사상의 보습으로 갈아엎으시며 혁명의 씨앗들을 더 넓게 더 깊게 뿌려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한 모습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잘 펼쳐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작품이 거둔 특출한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주체문학의 찬란한 년대기우에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 하는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더욱 깊이 학습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질것이다.

## 향산천 물노래

홍기품

은물결이 넘실 향산천 맑은 물아

수정골을 흘러 구슬같이 맑은가

아 해빛넘쳐

언제나 정가론 너와 같이 이 마음 맑고싶어라

옥바위에 찰랑 물소리 즐거워라

손을 잠가보면 연초록 물드는가

아 별빛 안고

기쁨에 설레는 너와 같이 이 마음 살고싶어라

한굽이를 돌아 꽃향기 실어가고

또한굽이 돌아 노래 싣고 흐르네

아 향산천아

사랑의 물노래 담아실고 끝없이 흘러가거라

# 소사하의 어머니

정천례

4월의 봄  
력사의 봄  
어머님께서 칠월에 탄생하신 4월  
인류의 태양이 만경대에 솟아오른 4월  
4월은 얼마나 좋은 달인가

소사하에도 봄은 와  
이봄은  
참으로 좋은 봄  
암흑에 찬 강토의 하늘에  
항일유격대의 봄나팔소리  
랑랑히 울려 퍼진 4월이여

아, 소사하 키낮은 지붕밑에서  
그 나팔소리 들으시며  
어머님의 뺨에 줄지어 흐르던  
기쁨의 이슬이여

병환에 계셔도 아프심은 감추시고  
어떤 위로도 시중도  
조국성전을 위해  
다 사양하시던 어머니

집에 들려 잠시 마주앉으신 장군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간절한 부탁은 무엇이었던가  
-네가 일으킨 군사들을  
뒤산에 데려올수 없느냐?

보고싶으셨다  
력사가 기다려온 대오  
축복해주고싶으셨다  
조국에 광복을 안고갈 대오

가물거리는 등잔불밑에서  
한뼘두뼘 정성들여  
장군님의 군복을 누벼가실 때  
왔고나 기어이 기다리던 날이 왔고나

한없이 설레이던 어머니의 심정이여

먼저 가신 선생님생각  
얼마나 간절하셨으리  
별관에 자라난 수수발을 보시고  
조선의 군사가 저만큼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통탄하시던 선생님

지원의 뜻 못다 피우시고  
두자루 권총을 넘겨주시며  
조선의 운명을  
아드님께 맡기시던 선생님...

어머님의 절절한 마음 너무나 잘 알기에  
대오는 토기점골 등판에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고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께  
경모의 대렬경례를 올리였어라

봄은 기발 푸른숲에 펠렁이고  
친자식처럼 보살피 키웠은  
낮익은 대원들앞을  
흰옷 입으시고 걸으시는 어머니

모자의 봄은별 황홀히 바라보시는  
그 기쁨 하늘에 닿고  
헉떡근 쥐여보시는 부드러운 손길  
름름한 어깨도 이루만지시고...

은하수 기운 한밤중에도  
따뜻한 밥 정성껏 지어주시며  
먼길 온 젖은 신발, 젖은 버선  
빨아 말려주신 친어머니사랑이  
대오를 키웠는가

아드님을 도우는 전우들

다친 상처 구완도 해주시고  
약한 몸 추세워 보내주시던  
바다같은 사랑이 대오를 키웠는가

자주 하시는 이사, 남먼저 알고 달려와  
벽이랑 지붕을 손질해주던 미더운 청년들  
먼먼곳에서 약을 구해들고  
친자식처럼 어머니를 위해주던 청년들

아 한분의 친어머니와  
수천의 친아들  
서로 눈물 머금고 바라보는 시각  
엷히고엷힌 뜨거운 사랑이  
총천 안도의 숲에 차고넘쳤어라

아 우리 조국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태어나

첫 인민의 군대를  
뜨거운 가슴으로 키워주시고

축복해준이는  
이천만겨레를 대표한 우리 어머니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태양의 어머니

그 품이 계시여  
4월의 봄이 오고  
4월의 태양은  
소사하의 봄을 불러왔나니

잊을수 없는 소사하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니  
이 나라의 총천 대오앞에  
영원히 영원히 함께 서계시리

## 가사 2편

# 해빛안고 별빛안고 빛나는 묘향산

류민호

따사로운 해빛아래 일만봉이 높이 솟고  
은혜로운 별빛아래 봉이마다 꽃이 폈네  
아, 절승의 묘향산아  
이 강산의 자랑을 한품에 안고 네 여기 솟았구나  
  
그 옛날엔 네 이름도 빛을 잃고 묻혔더니  
자애로운 손길아래 명산으로 솟았구나

아, 절승의 묘향산아  
향로봉 비로봉 그 어딜 보나 그 사랑 넘쳐나네  
  
만폭동의 물소리도 그 은덕을 노래하고  
상원동의 솔바람도 그 은정을 속삭이네  
아, 절승의 묘향산아  
찬란한 해빛안고 별빛을 안고 천만년 빛나거라

# 락원의 묘향산

한상호

수정같이 맑은 물은 깊은 사연 속삭이는가  
정답게 우는 새소리는 우리 행복 노래하는가  
  
아, 묘향산 아름다운 묘향산  
당의 은정 넘치는 락원의 묘향산  
  
두봉화를 안아보면 그 사랑이 흘러들고  
선남폭포 바라보면 그 영상이 어리어오네

아, 묘향산 아름다운 묘향산  
당의 은정 넘치는 락원의 묘향산  
  
일만경치 펼쳐지여 네 모습이 빛나는가  
수령님 모신 영광 넘쳐 네 모습 더욱찬란하여라  
  
아, 묘향산 아름다운 묘향산  
당의 은정 넘치는 락원의 묘향산

# 금강의 새모습

김정곤

오시네

아 걸어오시네

김정숙어머니

금강산으로 걸어오시네

백두산 흰눈 내려앉던 어깨우에

그리워 타던 금강의 단풍잎 내려앉네

오시네

아 걸어오시네

물을 길러 오시는듯

작식대 쌀을 일러 오시는듯

팔소매 겹으시며

못이겨 두손 맑은 물에 잠그시니

물이 모여 어루만지며 가지 못하네

《기어이 오셨군요 어머니》

흘러내린 머리오리

젖은 손으로 쓸어올리시는

아 어머니 마음속에

뜨거웁게 젖어드는 간절한 생각

《이처럼 맑은물에 쌀을 일러

동지들의 밥을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아, 밀영의 우등불가에 비껴오던 금강산

못잊어 가슴에 타던 우등불이 일만곶에 불붙는듯

단풍숲은 일어서며 설레이며 불타데

추켜들면 그날의 기복처럼 온 하늘에 활활

타붓길

듯

조국산천 그리워 어머니 마음에 사무친 사랑

조약돌에도 어려 진주같이 빛을 뿜으니

우등불가에 《사향가》 부르던 못잊을 모습들

숲에, 물에, 봉이에, 어룡이며 마주오네

《백두산에서 같이 싸운 동무들이

모두 함께 여기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가...》

아아 물을 보시여도 혁명동지생각

단풍을 보셔도 백두산 우등불생각

천하절승 금강의 숲길 걸으시여도

백두산 흰눈 밝으시는 어머니 마음...

아아-

그 마음 안고 봉이들이 일어서서

그 마음 따라 골물이 내리네

그 마음 비껴 일만산악

백두를 향해 어깨 맞추네



## 가장 빛나는 삶

구희철

### 회령땅의 밤

행복한 집집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끝없이 깊어가는 밤

탓하지 마시라  
사람들이여 내 이렇게  
밝은 집집의 창문아래  
생각도 깊이 걷고걸는다고...

이 기쁨  
이 웃음  
이 모든 삶을 꽃피워놓으시고  
김정숙어머님 우리 곁에 없으시니

한결 더해지는 생각  
한결 더 뜨거워지는 마음  
밤이 새도록 걷는다고 풀린다면  
내 한생 밤을 잇고 걸으리니

백두의 그 밤

어머님 못잊어 그리시며  
동남의 하늘가를 바라보신  
그 꿈이 아름다운 오늘로 펼쳐진것 아니던가

어머님 부르신  
조용한 사향가의 노래속에  
그 밤 타오르던 우등불꽃  
그대로 회령땅에 옮겨져  
걸고 걸어도 밝은 불빛

내 이 밤  
불빛에 실린 행복  
노래에 어린 사랑  
어머님과 이야기 나누며  
어머님과 함께 걷는듯...

아, 어머님 한생을 바쳐 찾은 행복  
내 한순간에 다 누리며 사는  
그때문에 그때문에  
어머님 것처럼 그리시던 이 회령땅  
한자옥도 무심히 디딜수 없구나

### 진달래

봄이슬 방울방울  
꽃잎에 맺힌  
진달래 꽃송이 쓸어보시며  
어머님은 웃으시며 서계시네  
회령땅 한복판에

멀리서도 그 향기  
목메이게 풍기는  
진달래 꽃밭속에서  
어머님은 손저어주시네  
나를 불러...

달밝은 밀림의 그 밤  
수를 한뼘한뼘 놓아도  
진달래 꽃수,  
정다운 이야기 나누시여도  
만경대에 피는 진달래꽃 이야기

아, 조국진군의 길에  
피여서 어머님 반기던 꽃  
5호물동 폐목가에서  
어머님 그리워 그리안으시던 꽃

진달래 진달래  
너의 꽃 송이송이에  
너의 뿌리 깊이깊이에  
어머님의 그 마음은 피고  
어머님의 그 마음은 깊어

이처럼 내 꽃송이 바라보는 마음  
이처럼 내 꽃앞에 다가서는 마음  
향기에 앞서  
어머님에 대한 깊은 생각에 취하고

한송이를 보아도  
천만송이를 보아도  
어머님의 그 미소가 안겨져  
그저는 바라볼수 없는  
뜨거운 내 마음의 꽃이여!

어깨너머론  
푸른 이깔 분비나무숲  
서계신 둘레엔  
소담히 피어난 진달래꽃  
백두의 그 어느 밀영인듯  
조용히 웃고계시는 어머님!

아, 세월이 흘러도  
그 웃음 변함없이  
언제나 정답게 불러주시는  
김정숙어머님!

찾으면  
마주오시며  
진달래꽃 쓸어보시던  
그 다정한 손길로 안아주실듯

웃으시여라  
반가우시여  
기쁘시여  
어머님 환히 웃으시니  
그 웃음 해발처럼 가슴에 흘러라

봄을 먼저 알리며 피는  
어찌면 너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먼저 피던  
어머님의 그 마음 그 모습!

찬눈 찬비속에 오히려 뗏뗏한  
어찌면 너  
그 모진 시련 맞받아 싸우신  
어머님의 그 의지, 그 신념!

진달래 진달래꽃  
그래서 너는 봄한철 피어도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속엔  
사철 피여 만발하고  
사철 피여 향기 풍기는  
꽃이라도 조선의 꽃 되었구나

## 세월은 흘러도

장군님을 우러러뵈옵던  
그날의 감격이 어리어  
첫 군복 받아입으시던  
그 기쁨이 넘치여  
질줄 모르시던 그 웃음

하얀 뜰김 서려오르는  
밀영의 새벽  
청취, 무수해 산나물로  
장군님 찬을 마련하시고  
사령부 천막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웃음 지으시던 어머님!

조국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소  
감회깊이 하시던 장군님의 그 말씀  
삼지연 맑은 물결에 실려가던 그때  
꽃향기에 취하신 어머님  
꽃속에 웃으시던 그 모습

아, 시련도  
모진 시련 이겨내신 때  
기쁨도  
아름찬 기쁨을 안으신 때

그런 때 지으시던 어머니의 미소여

웃고계시여라

태양의 따사로운 해발이 되시여

삶의 기쁨을 한껏 안겨주시며

아이들 티없이 맑은 눈빛에

행복에 겨운 너인들의 얼굴에...

어제는 백두산 밀영에서

오늘을 그리시며 지으신 그 웃음

그 어느 모래불에

발목을 묻으며 걸어도

그 어느 여울목에서

물소리, 물소리를 들어도

생각은

마음은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 하나뿐...

하얀 자개돌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처럼

깨끗한 그 마음

이 강변 어디에서

샷팔래를 행구었을 어머니,

세월은 흘러

물결은 흘렀어도

그날의 어머니 어리신 모습

내 마음속에 되불려주어...

이렇게 강기슭에서

여울물소리처럼

목메여 불러보는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오늘은 해와 별 빛나는 강산에서

축복받은 인민의 래일을 그려

그리도 환하게 지으시는 그 웃음

아, 빛나는 어머니의 한생

아버이수령님 받들어

가야 할길, 서야 할 자리

지녀야 할 신념, 바쳐야 할 충성을

영원한 웃음으로 가르쳐주시여라

## 회령강기슭에서

떠나서 오랜 세월

다시 오셨다면야

오시여 고향집 문고리

다시 당겨보셨다면야

아, 이처럼 목이 메어

어머님을 그려 부르랴

이 강변에 흩어진 모래같이

이국의 거친 땅에 흩어진

동포들을 다 불러

고향땅을 밝게 하시고

어머님만 고향땅에 아니 오셨으니

더더욱

간절히 그리고

더더욱

절절히 부르는

어머님 어머님!

아, 회령이 어디바른가고

장군님께 물으시던

그날의 그 목소리 자꾸 울려와

강기슭에 나와도 강을 못떠나는

내 뜨거운 마음속 부름소리

회령강 여울물소리처럼 변함없으리

## 오실것만 같아

그리던 생각에 앞서

기다린 시간에 앞서

내 마음 달려오던

어머님의 고향땅

회령의 오산덕

새벽에 앞서

해 떠오르기에 앞서

경건해지는 마음안고

어머님 동상앞으로 다가서는데

오르는 층층계에

동상둘레에

새벽길 쓸려나온

회령땅 아이들...

어머님 두만강을 건너지던 때

아마도 저 어린 단발머리와 같으셨으리

어머님 이삭주이 하시던 그때

저 나이또래와 같으셨으리

저 어린 가슴에도

사랑만을 남겨주고 가신

어머님만은 못잊어서

저렇게 새벽잠도 잊고 달려와

쓸고 또 쓰는 새벽 비질소리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찢리고

그 소리에

새벽 하늘도 서둘러 밝아오는가

오실수 없는

다시 오실수 없는 어머님인줄

변연히 알면서도

오실것만 같아

저렇게 눈비내리는 날도 번지지 않고

쓸고 또 쓸어놓는 길,

아, 어머님은 걸으시여라

동상의 높은곳에서 내리시여

쓸고 또 쓴 그 길을 걸어

회령땅 오산덕 이 언덕에서부터

새벽마다 온 조국땅을 돌아보시여라

## 백살구, 백살구

기차로 달려도

산기슭엔 백살구나무

길을 걸어도

길녘에 늘어진 백살구나무

백살구 백살구

회령의 백살구

어머님을 못잊어 심는것

회령의 백살구나무라면

아, 차라리 내

어머님의 고향땅

그 어느 자리남은곳에

한그루 백살구나무로 뿌리내리리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 그리운 마음들에

언제나 옮겨져 설레이고싶어...

향기를 풍기며

무성히 있을 피우며

꽃으로 피어나리

열매로 영글리

## 해방된 평양에서(2)

최봉무

### 탁월한 리치

거리거리마다에 꽃물결이 흘러간다. 갖가지 색깔의 옷단장을 한 사람들의 흐름이 끝이 없다.

반기며 웃는 얼굴마다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난다.

걸음걸음 어찌면 저리도 씩씩한것인가. 어른들도, 아이들도, 로인들도 어떤 무적의 힘을 품었기에.

나의 가슴도 끝없이 부풀어오른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거대한 힘을 느낀다.

《또 미제침략자들이 분계선에서 도발을 걸었더군.》

《그간놈들 아무리 지랄을 쳐보지. 우리 인민의 힘앞에 견뎌내나!...》

내앞에서 뻘스를 기다리며 주고받는 청년들의 배심 든든한 말이다. 그 말을 듣는 나의 머리에는 방금전 사적관 해설원처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삼삼히 떠오른다.

그 이야기는 청년들의 말과 더불어 더더욱 강력히 심장속에 파문을 일으킨다.

나의 사색은 내가 느끼는 힘, 조국이 안은 거대한 힘의 샘줄기를 찾아 세월을 거슬러오른다.

유치원 그 시절 산수시간이었다.

교양원은 파자와 책상, 의자들을 실례로 들어가며 썸세기를 배워주다가 아이들에게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둘이 된다고 가르쳐주었다.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둘!》

아이들은 교양원이 알려주는대로 썸세기를 따라 외웠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는만 교양원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것이였다.

썸세기공부가 끝나갈무렵이였다.

자리에서 불쑥 일어나신 아드님께서는 교양원에게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하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진흙덩어리와 동생의 진흙덩어리를 합치니까 한덩어리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무들의 진흙덩어리를 합치고 또 합치면 큰 덩어리가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다.

그리고는 계속하시여 꽃밭에 물을 줄 때 꽃잎에 떨어진 물방울에 또 한방울이 합쳐져도 한방울이 되며 여러 방울이 합하면 큰 방울이 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이 말씀을 들은 교양원은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한동안 망설이였다.

《오늘은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둘이 된다는것을 배웠으니 그렇게 알아요.》

교양원은 이렇다할 대답을 주지 못하였다.

그날 집에 돌아오신 아드님께서는 어머님께 그것을 다시 물으시었다.

《하나에 하나를 합하면 둘이 된다고 배워준 선생님의 말도 맞고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하나로 된다는 너의 말도 맞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여럿이 뭉쳐 하나로 되는 경우를 사람들의 마음과 결부시켜 설명하여주시었다.

어머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장군님을 우러러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힘이 하나의 큰 힘으로 된것도 그런 리치라고 하시면서 그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 그 어디도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리고는 아드님이 너무 대견하여 품에 꼭 껴안으시었다.

실로 아드님께서는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면 둘이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절대적수치로만 보지 않으셨다. 거기에서 통일단결에 관한 커다란 정치적문제를 포착하시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탁월한 리치였다.

그때 창조적사색과 비범한 예지, 뛰어난 성품을 지니신 아드님을 보시는 김정숙어머님의 기쁨은 어떠하셨으랴.

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의 리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바로 오늘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그렇게 위대한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하나로 철통같이 뭉친것이 아닌가.

그 힘은 산악을 허물어 언제를 쌓고 바다를 밀어 땅을 넓힌다. 미제의 마지막 숨통을 조인다.

남산재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인민대학습당, 령

롱한 오색분수를 하늘높이 뿜어올리는 만수대에  
술극장, 네굽을 안고 창공을 날으는 천리마동상  
...정녕 그것이구나. 하나로 굳게 뭉친 조선의 위  
용, 조선의 숨결, 조선의 아름다움, 조선의 기상!

나의 가슴은 마냥 설레인다. 나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당의 전사, 태양의 위성!-

아, 이 영광, 이 긍지 무엇으로 다 말할수 있  
라.

나는 차창으로 당의 해빛아래 이 땅위에 태어  
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한껏 아름다와진 사람  
들의 흐름을 본다. 허물수 없는 우리 인민의 불  
패의 통일단결을 본다.

하나에 하나를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되듯이...

## 군사놀이

청명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렸다. 신비로운 자  
연의 조화로도 그려낼수 없는 구름 한점 없는 이  
하늘에 ...

장대채 저 언덕너머 만수대에술극장 분수가에  
서 피여올린 칠색무지개가 아닌가! 자애로운 어  
머니 당의 손길이 어린 사랑의 무지개이다. 언제  
나 어디서나 우리의 귀여운 아이들의 머리위에  
비끼는 행복의 무지개이다.

유치원이 마주보이던 이 들판에서 무지개를 바  
라보는 나의 감격 내 태어나던 그 시절에로 나래  
쳐간다.

바로 그 봄날에 금잔디 깔린 이 들판우에서 첫  
《전투대오》가 무어지고 잊지 못할 군사놀이가  
벌어지고있었다.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나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을 데리고 들판  
에 나간 교양원은 즐거운 군사놀이를 시키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교양원은 놀음을 어떻게 조직했으면 좋  
을지 몰라 망설이였다.

그럴 때 아드님께서 교양원이 안타까와하는 마  
음을 재빨리 헤아리시고 성큼 앞으로 나서시며  
《선생님, 제가 군사놀이를 지휘하겠습니다.》라  
고 말씀하시였다.

교양원은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해하다가 그렇

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박수를 쳐주었다. 아이들  
도 모두 교사리같은 두손들을 머리위로 쳐들고  
콩당콩당 뛰어오르며 박수를 쳤다.

이어 교양원앞에서 대렬앞으로 돌아서신 아드  
님께서서는 힘차게 구령을 내리시고 먼저 한 아이  
를 《총참모장》으로 임명하시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대대장》, 《중대장》, 《소  
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과 간호원들까지 빠짐  
없이 임명하시였다.

이렇게 《전투대오》를 편성하신 아드님께서  
대원들에게 공격목표를 정해주시고 《우로》,  
《좌로》, 《빨리!》라는 구령을 내리시며 전투지  
휘를 능숙하게 하시였다.

아드님의 구령에 따라 아이들이 와- 함성을 지  
르며 《총》을 겨눠들고 《적》진을 향하여 기세  
높이 돌격해올라갈 때 교양원은 뜨거운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항일의 그날 백전백승의 주체전법과 명활한 지  
략으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도 이끌어주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왔던것  
이다.

어리신 아드님의 행동에서 벌써 군중을 묶어세  
우시고 통솔하시는 뛰어난 풍모를 보는 교양원의  
기쁨은 비길데 없었다...

나는 들판을 거쳐 유보도기슭으로 눈길을 돌린  
다. 오늘도 유치원교양원들이 완구총을 메고 붉  
은 십자표식이 달린 가방을 멘 아이들을 데리고  
씩씩하게 줄지어 노래 부르며 걸어간다.

동무들 어린 군인 노래부르자  
로동주권 굳게 잡은 자유의 터에  
영원한 자유평등 모두 찾으려  
온 세상 어린이여 다들 오너라

추억속에 높이 솟은 유치원 꽃대문에도 무지개  
가 비친다. 일곱색흐름우에 실린 《우리는 행복  
해요》의 글발이 눈물속에 안겨오고 그날의 아드  
님의 구령소리 힘차게 울린다.

《우로》, 《좌로》, 《빨리!》

온 나라 유치원정문으로 달려나오는 아이들이  
끝없이 끝없이 따라서는 저 《전투대오》의 한끝  
은 어디냐!...

나는 그 봄날에 태어난 사람!

4월 25일생!

나도 아드님이 지휘하시는 그 대오에 들어선다.  
철의 그 대오속에...

## 《장군복》

어느날이었다.

옆집에 사는 한 여성일군을 찾아오신 아드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일군앞에 연주통을 내놓으시였다.

《제가 그만 연주를 조금 쓰려고 했는데 다 썼어요.》

아드님께서는 몹시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였다. 아드님께서는 잠전에 그 여성일군에게서 연주통을 빌려가셨던것이였다.

여성일군은 연주를 어디에 다 쓰셨을가 하는 의문이 들어 아드님께 눈길을 돌리였다. 눈길이 아드님의 모자에 그려진 붉은 별, 바지에 그어진 붉은 줄에 가뻐졌다.

《아이구, 네가 <장군복>을 입었구나!》

아드님의 모습, 위엄있는 장군의 모습을 놀라운 눈길로 바라본 여성일군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대견하여 이렇게 웨치며 아드님을 와락 껴안았다.

아드님께서는 연주를 가지고 모자에 장군별을 그리시고 바지에다 붉은 줄을 그으셨던것이였다.

몹시 흥분한 여성일군은 아드님을 안고 그길로 김정숙어머님을 찾아갔다.

장군이 되시려는 아드님의 마음을 헤아리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성일군에게 웃으시며

《...그저 어린애라고만 생각한 내가 잘못이었어요. 저 애의 심정을 미처 몰랐으니말이에요.》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이튿날이었다.

어머님께서 절절한 소원을 담아 손수 아드님의 《장군복》을 지으시였다.

어머님께서 지으신 《장군복》을 입으신 아드님께서는 너무 기쁘시여 큰 거울앞에 마주서서 허리에 두손은 짚어도 보시고 경례도 붙여보시였다.

《어머니, 나 아버지처럼 정말 대장같지요?》

아드님께서는 어머님을 보시고 자랑스럽게 물으시였다.

《그래요. 정말 대장같아요. 어서 커서 아버지처럼 조선의 장군이 되세요.》

어머님께서 아드님의 등을 가볍게 쓸어만지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리신 아드님의 뛰어나신 비범성을 느끼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기뻐다. 그 기쁨은 어머님께 가장 큰 행복이였다.

점심시간이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들어오시는것을 보신 아드님께서는 기다리신듯 복도로 달려나가시여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시였다.

아버님의 만면에 환한 웃음이 어리시였다.

《좋소, 쉬잇하시오.》

우렁우렁한 아버님의 음성이 방안에까지 울리였다.

오랜 세월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오신 어머님께서 항일의 그날 대오를 사열하시던 그 음성으로 아드님의 경례를 받으시는 장군님을 보시니 눈굽이 뜨거워울랐다. 아버님께서 못내 기뻐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김정숙어머님앞에는 미래의 장군이 서있었다.

## 아버님의 기쁨

(아버님의 기쁨은 인민의 기쁨, 아버님의 기쁨은 조국의 기쁨!)

유서깊은 제사공장정문을 나섰건만 나의 생각은 오직 이 하나...

아, 세월은 많이도 흘렀구나. 진정 우리 당중앙에서 그 기쁨을 마련하여 아버지수령님께 올린 오늘은 얼마나 감회도 깊은가.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위대한 발자욱소리는 여가서만이 들려오는것이 아니여라.

그무렵. 새 조국 건설의 긴장한 낮과 밤을 보내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따라 걸으신 아드님의 발자욱은 대동군의 어느 한 농촌마을 두령길에도 찍히시였다.

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으로 대대로 내려오던 머슴살이 멍에를 벗어던지고 난생처음 제나라 제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행복은 끝이 없었다.

한곳에 이르시자 농민들이 내려찍는 피약별에서 가락장단을 맞춰가면서 용드레로 부지런히 물을 퍼올리고있었다. 땅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된 그 보람이 너무 커서 그들은 이 힘겨운 노동마저 그리도 달게 여기는듯싶었다.

심려어린 눈길로 그들의 모습을 한참이나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곁에 서계시는 아드님에게 나라에서 땅을 받은 농민들은 저처럼 기뻐서 일하지만 용드레질로 저 넓은 벌을 다 적시자니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씀하시였다.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긴 새끼 두줄을 마주잡고 용드레질을 하는 농민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는 아드님께서는 저렇게 물을 퍼서 땅을 적시는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것을 가슴깊이 느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제 큰 저수지를 만들고 기계로 물을 퍼올려 농민들의 일을 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네가 커서 할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아드님께서는 끝없는 사랑과 심려가 어린 이 말씀을 심중히 들으시며 빨리 커서 아버님을 힘껏 도와드리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하시였다.

아드님의 이 대답을 들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환희의 미소를 지으시며

《옳다, 그래야 한다. 네가 커서 아버님을 도와드리면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어머님의 말씀은 한마디한마디 그대로 아드님의 가슴속에 보석처럼 새겨졌다. 먼먼 미래를 위하여...

나는 걸음을 멈춘다. 방금 나선 제사공장의 정문길을 돌아본다.

대동군의 두령길은 구내길로 바꾸어지고 해설원처녀의 고운 음성은 다시금 울려온다. 어느날 아드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였다. 조사직장에 들리시여 조사공들의 일모습을 한동안 여겨보시던 아드님께서는 어머님께  
가사

누나들의 손이 왜 저렇게 뒤틀리고 물으시였다. 어머님께서서는 더운 물을 가지고 일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버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것을 보시면 제일 가슴아파하신다. 그러니 빨리 커서 공부를 많이 하여 누나들의 힘든 일을 없애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버님께서서는 무척 기뻐하실거다.》

아, 아버님의 기쁨!

그것은 어머님의 소원!

어머님의 소원은 어리신 아드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한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몸바쳐 오시는 아버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기쁨을 올릴 하나의 큰 혁명으로 나라를 퍼덕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기술혁명!-

우리당의 손길아래 이 땅위에 태어난 그 모든 것- 자동화의 노래소리 우렁찬 황철의 산업텔레비죤화면과 은률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의 흐름, 청산벌의 모내는기계의 은은한 동음...

기계화, 자동화의 동음의 정다운 저 공장과 농장벌, 조국의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 나라는 창조의 노래, 행복의 웃음으로 꽃피누나.

정녕 그것은 아드님께서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기쁨, 인민의 기쁨이어라. 조국의 기쁨이어라!

(다음호에 계속)

## 농장의 밤은 좋아라

김응하

함박눈 송이송이 창밖에 내리고

불밝은 선전실에 웃음꽃 피어나네

우리네 작업반 모두 모여서

과학농사 배우는 농장의 밤은 좋아라

앞집의 처녀는 프락포르 배우고

뒤집의 총각은 기사공부 한다네

기쁨속에 웃음속에 서로 도우며

과학농사 배우는 농장의 밤은 좋아라

배우고 배워주며 이 한밤 깊어가고

희망 넘친 가슴에는 금나락 안겨오네

수령님의 주체농법 꽃피워가며

과학농사 배우는 농장의 밤은 좋아라



## 지팽이

리신현

장지삼은 한달열흘간의 룡양생활을 마치고 돌아 온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기분이 대단히 좋았다. 한뼘 벽돌공으로 잔뼈가 굵어왔고 나이 특순이 지나서도 새끼병아리를 둔 엄지마냥 좀체로 공장을 뜨지 못하던 로인이었다. 그한테 이번의 룡양생활은 참말로 늘그막에 일생의 향락을 맘껏 누린 흐뭇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고 할까. 칠팔월 삼복철에 떠났으나 무더위가 다 뛴었다. 한평생 소성로앞에서 땀흘리는 멧에 살다가 싱그러운 술바람에 머리가 핑 돌도록 취해보고 정각의 혼들이 의자에 몸을 싣고 팔도강산의 절승경개를 굽어볼 때의 기분은 얼마나 좋았던가! 하루해가 저물면 룡양지에 찾아드는 달밤은 또한 마음속에 그것대로의 달콤한 흥취를 한껏 둔구어주었다. 온갖 새들의 우짖음소리, 물소리, 나무잎 살랑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풍만한 산골정서를 자아낸 그 밤이면 홀연 제나이를 잊어버리고 젊은이들의 춤판에 끼여들어 어깨를 들썽거리본들 어떠했으랴. 하기가 처음엔 그 좋은 룡양지에 가서 《내레 벽돌공 아무개웨다.》하고 뽕뽕이 말한마디 했단고?

하루아침 사람좋은 룡양소 소장이 호실방문을 다니는바람에 우연히 만나 통성을 하다가 《벽돌공이라구요? 이거 정말 반갑수다. 그러고보니 로인장은 우리 룡양소가 특대해야 할 귀빈중의 귀빈이올시다. 글썄 몇해사이 이 산골짜기안에 현대식 룡양소가 들어앉아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로인장의 땀방울이 깃들어있지 않다고 뉘 말하리오.》라는 말을 듣고서야 무릎을 탁 치며 속으로 이렇게 개탄했었다.

공장에선 《호랑령감》으로 소문난 장지삼이 수령님 은덕으로 룡양소에 와서 신선놀음에 그만뒀을 잃고 난생처음 못난이구실을 한가부다라고...

하루밤은 한껏 마음이 들뜬 그가 나무술사이로 트락산보를 하다가 실수하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 질번한걸 보고 웬 청년이 고로쇠나무지팽이까지 만들어주었다.

료양생활의 나날에 남달리 《벽돌공아바이》로 존대받은 그 일이 하도 고마와서였다.

류달리 인상깊었던 룡양지를 떠난 그날-

늘 봐야 호주머니속에 그를 담배고랭이로 만들어 버린 고불통박에 간수하고 다니지 않던 장지삼은 자기의 애용물중에서 하나 더 늘어난 고로쇠나무지팽이를 품채 좋게 휘두르며 입이 벅글썸

해서 돌아왔다.

술하에 알쭉히 아들만 여섯을 뒀다가 과학원이며 중앙설계연구소에 줄지어 보내고 지금은 막내까지 벽돌공장 작업반장으로 어엿하게 일하겠다, 그쯤하면 부모로서 할일은 다 해놓은 말년에 지팽이를 짚은들 무슨 흠이 되랴 했던것이다.

이젠 허리도 구불 때라 그는 집으로 휘적휘적 지팽이를 앞세우고 오면서 혼자 즐거운 생각에 잠기었다.

(내레 이번에 돌아가면 막내아들 혼사까지 치르고 그리로 옮겨앉고말아야지.)

하고보면 아들들을 모두 대학공부시켜 멀리 대치에 내보내면서 막내를 벽돌공장에 눌러앉힌것은 과시 장지삼이답게 처신한 일같았다.

아직 맏아들이 중앙설계연구소 실장사업을 맡아 한지 십년가까이 되도록 시내로 이사가지 못하고 벽돌공장주변의 외진 사택마을에서 불편하게 통근 하고있긴 하였다. 그녀석이야 장남으로서 어디까지나 자기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늙은 부모를 끼고있자는 심산이고 또 아버지가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공장을 뜨지 못해하는 심정때문에 집을 옮겨가지 못할것이다. 한들 지금 세월에 맏아들이면 어떻게 막내면 어떻단말인가? 마음이 동한김에 막내아들을 제격 장가들이고 그리로 옮겨앉고말면 맏아들도 시내의 중심에 현대식 주택을 받고 깨알 쏘아지게 살림을 펴게 될터인즉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될것이 아닌가.

저녁같은 때 맏아들과 마주앉으면 혹 부자간에 말이 궁한적이 있었지만 승철이하고는 늘 주고받느니 의사가 소통하는 벽돌공장이야기일것이므로 한결 살아가는 재미도 있을것이였다.

그런데 방금전 여느때없이 일찌기 퇴근해온 맏아들한테서 장지삼은 승철이에 대한 실로 뜻밖의 소식을 얻어듣고 펄쩍 놀래였다.

《그 녀석 일이 말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리냐?》

《글썄 며칠전에 승철이가 작업반장자리에서 해임되였다는군요.》

《뭐라구?》

장지삼은 맏아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알수 없어 술진 눈섭밑에서 두드러진 눈망울을 엄하게 굴리였다

그가 룡양소로 떠나기전만 해도 공장안에는 막내아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었다. 소결직장 작업반장인 승철이가 작업반원들과 합심하여 《벽

돌인출기》라는것을 만든다고 벽작 떠들어댔는데 듣자 하니 괜찮은 창안이었던것이다. 장지삼은 벽돌공장에서 삼십년가까이 일해봐서 잘 알지만 소성한 로에서 벽돌을 끄집어내는 일이란 여간 고되지 않다. 승철이네가 이미 기계화한지 오랜 바로 그 벽돌인출작업을 새롭게 개조하려고 달라 붙었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몹시 기특하게 여겼던 장지삼은 혹시 거기서 무슨 곡절이 생기게 아닌가 싶어 얼른 되짚어 물어보았다.

《내가 있을 때 벽돌인출긴지 뭔지 만든답시고 펄펄 뛰던 녀석이 왜 갑자기 작업반장자리에서 목이 날아나?》

《딱힌 몰라도 창안하던 일은 거둬치우고 직장장과는 대판으로 말다툼까지 벌렸나나요? 그바람에 승철이의 일은 앞뒤로 뒤죽박죽이 되고마는가 봅니다.》

《음-》

장지삼은 심중해졌다.

막내아들한테서 기대했던 창안은 둘째치고 녀석이 다른 사람도 아닌 소결직장장과 맞붙어 반개질을 했다니 일은 썩 잘된것 같지 않았다.

장지삼은 소결직장장 김준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는 언제 봐도 일욕심이 너무 많아서 탈인 일꾼이었다. 소결직장이라는데가 벽돌공장에서 기본생산공정을 틀어쥐고있다보니 직장장의 체모도 어느 정도 거기에 엇비슷이 따라가기마련인 모양이었다.

간혹 공장참모회의같은데 참가해보면 각 직장에서 여러명의 사람들이 모여오지만 공장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토론은 주로 지배인과 소결직장장간에 벌어지곤했다.

김준도는 바로 그런 공지와 자부심이 뼈속까지 들이벤 사람인터어서 누구도 감히 그와 범접할 엄두를 못냈다.

장지삼은 지난 기간 소결직장장이 자기와의 사이에서만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골치를 앓곤했던것을 잊지 않고있다. 직급으로 보면 장지삼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할 작업반장이었으나 웬간히 배짱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소결직장장도 《호랑령감》앞에서만은 각별히 조심하며 살아가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었다.

그 일이 늘 살아가는데 거치장스러워 김준도는 워낙 장지삼을 달갑게 여겨오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한번은 아래사람들을 찍하면 큰소리로 대하군한 건방진 사업작풍때문에 《호랑령감》한테서 개별적으로 되게 비판을 받고 부아가 나서 《도대체 이젠 누가 상급이기에 만날 훈시질이요?》라고 로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린적까지 있었다.

그날도 장지삼은 김준도의 파격한 언사말에 깔린 자기로 인한 《고심》을 모르지 않았지만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주먹을 내흔들며 좌상답게 단

단히 엄포를 놓았다.

《누가 자네 보구 내 꼭대기에서 일하지 말라나? 해두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일하란말이여. 그렇지 않다간 내가 자네밑에서 평생 작업반장일을 해먹어도 이 주먹맛을 톡톡히 보게 될줄 알라구!》

그후로 김준도는 《호랑령감》이라면 아예 질색하였지만 그 역시 로동계급다운데가 있는 일꾼이다. 그따위 감정으로 해서 막내아들을 눈꼴사납게 볼 위인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장지삼이가 년로보장을 받고 소결로에서 물러나자 누구보다 먼저 나서 승철이한테 아버지가 하던 작업반장일을 맡겨줄것을 제기하고선 몹시 기뻐했었다.

그날밤 장지삼은 소결직장장의 고마운 마음에 감동한 나머지 퇴근길에 일부러 공장밖의 실개천둑가로 나가 오래간만에 달맞이구경을 하며 담배까지 즐겨 붙여물었다. 밤새들이 깃들여 조용히 우짚어대는 얼마쯤 떨어진곳의 키낮은 수양버들 밑에는 한쌍의 청춘남녀가 앉아서 간지럼을 타듯 키득거리며 저들대로의 행복한 순간을 한창 즐기고있었다.

찰나 바로 그들이 자기 막내아들과 소결직장장의 딸 금란임을 발견한 장지삼은 너무나 희한한 생각에 그만 대통의 불이 꺼져버리는줄도 몰랐다.

그리고는 어느새 소결직장장과 사돈간이 다된 듯한 흥겨운 기분에 도취되어 얼른 그 자리를 뜨며 혼자속으로 중얼거리었다.

(직장장 그 사람이 공장에 나와선 뒤마려운 사람처럼 부리나케 돌아쳐도 안속을 차리는데는 구랭이란말이야. 내사 저녀석이 그 《량반》의 딸을 끼고다니며 속덕거리는줄 알았노?)

벌써 몇해째 소결직장장네와 아래웃층에서 살며 명절날 여러번 초청을 받아 술상에도 마주앉은 장지삼은 그 집 딸 금란이가 인물 곱고 마음씨 참하다는것쯤은 이미전부터 알고있었다. 집에 가보면 어디에 숨어박히는지 좀체로 얼굴을 볼수 없고 공장실형실에 다닌다고는 하는데 다른 처녀들처럼 해줄거리는 멋이란 조금도 없는 소결직장장의 딸은 사실 그가 욕심을 낼만도 했다. 그후로 장지삼은 공장로동자들로부터 장가갈 나이에 덜렁 합숙으로 뛰어나간 막내아들 성례를 치르자는 성화를 받으면 소결직장장의 귀에 들어가라는 듯이 《날보구 못살게 굴것 없이 당장 가서 소결직장장 종아리를 치라구.》하고 룡삼아 말하였다. 그때면 소결직장장한테서는 금방 눈이 맞아돌아가는 젊은이들을 서둘러 코빼멜 생각 말고 한두해 실컷 재미를 보게 풀어두자는 선선한 응답이 어김없이 메아리마냥 들려오곤했었다.

딸을 끔찍이 귀엽게 여긴 소결직장장의 마음은 젊은이들의 불같은 열정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던 나날, 새 《벽돌인출기》의 창안과정에

한쌍의 젊은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밤이면 너무도 큰 가슴속 세찬 고동으로 하여 심장의 압박감을 느끼며 빈번히 잠들지 못하였다. 그들의 사랑은 부모들의 원심을 앞질러 로동속에서 그만큼 빠르게 성숙되었으며 그리하여 드디어 제가꿈의 생활과 비밀을 따로 가지고있는것이 오히려 밤잠을 빼앗아가게 된 시절이 갑자기 다가온것이였다...

장지삼은 억이 막혀 덤덤히 담배만 태웠다.

남의 속이 끓는줄은 모르고 바깥현관에서 수다스런 동네아낙네들이 창우리가 떨어져나가게와 짝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아프게 들려왔다. 원체 웃음이 해픈 아낙네들이라 탓할건 못되나 오늘따라 아빠트에는 난데없이 암탕까지 나타나서 《꼬덕-꼬덕-》 목청을 뽑아대며 소동을 피웠다.

《제길할, 이놈의 집안콰이 오늘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이웃 직장장네 집에 신랑쟁이가 나타나 오늘 딸 선뵈는군요.》

맏아들이 게면쩍게 한마디 여쭙었다.

《.....》

장지삼은 가뜩이나 막내아들일로 기분이 언짢던 참에 그 말까지 듣고선 피로운 마음에 잠겨눈을 지그시 내려갔다.

그는 한참후에야 소결직장장의 처사가 가슴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그냥 앉아계십시오. 승철이하고 정식으로 약혼한 사이도 아닌걸 가만 내버려두지요 뭐. 그 집 딸 아니면 장가 못보내겠습니까.》

《이녀석,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승철이가 작업반장자리에서 떨어진지 며칠도 안되어 딸을 다른데 주는법이 어디 있어? 사람이 그래선 못쓴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사태가 그쯤 심각하게 번지자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머느리까지 팔소매를 잡으며 한사코 말렸다.

《걱정들 말어라. 제자식이 잘난건 없으나 내 그 <량반>이 천하에 없는 사위를 맞아들인다 해두 그 집에 못갈 사람은 아니야.》

장지삼은 엄하게 머느리의 손을 밀어버리고는 직장장집을 찾아올라갔다.

《임자 있나?》

김준도는 장지삼의 그 태연한 출현이 뜻밖이었던지 문을 열고 나오자 아래옷집에서 늘 만나던 사람같지 않게 어름어름 말하였다.

《아니, 장아바이가 어떻게?...》

《장아바이가 어떻게라니? 오늘 임자 딸 혼주를 쓴다면서?》

장지삼은 인사삼아 위엄있게 한마디 하고는 주인이 뭐라고 하건말건 비위를 쓰며 안으로 들어섰다.

여느때없이 알른알른 윤기가 돌게 닦아놓은 방 안에는 신랑측에서 왔다고 짐작되는 손님들이 몇 명 술상앞에 빙 둘러앉아있었다.

그들은 장지삼이가 나타나자 《사돈집》의 발은 친척벌 되는 로인인줄로 알았는지 제가꿈 친절히 자리를 권하며 죄여앉았다. 그바람에 되게 바빠맞은 소결직장장이 그를 손님들한테 소개하려는 눈치였으나 장지삼은 그쪽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손만 약간 들었다놓았다.

《됐네 됐어. 통성은 내가 하지. 난 저 직장장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인젠 늙어서 공장에서 나왔다우. 그래두 집은 바루 아래층이여서 심심치 않게 자주 놀러 다니지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자, 로인님. 한잔 드십시오. 우린 벌써 한순배 돌았습니다.》

장지삼은 술잔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술판이라면 밑천을 털며 흥이 나서 다니던 그였지만 그것은 일생에 처음으로 마셔보는 가장 쓰거운 술이였다.

《참 로인님, 술 드시는걸 보니 아직 늙지 않으셨습니다.》

장지삼은 손님들이 연거퍼 권하는 술을 이번에도 안주가 없이 또 한잔 비웠다. 그의 태도가 하도 점잖고 위풍당당하다보니 오히려 옆에 앉은 김준도가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모양으로 안절부절을 못하였다.

그때였다. 부엌일을 하던 주인마누라가 미달이문을 바시시 열고 벌개진 얼굴을 근심스럽게 더밀며 《여보, 금란이가 이찌된 일이우? 공장에 사람을 띄웠는데 거기두 없다니 별일이 아닌가유?》하고 소곤소곤 귀뿔하다가 장지삼이 와있는걸 보고는 금시에 자라목이 되어 얼른 문을 닫아버리었다.

장지삼은 그 말을 듣고서야 금란이가 제 아버지하곤 본심이 달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것 같은 미심한 생각이 들며 속에 들어간 술이 말짱히 깨는것을 느꼈다. 손에 들었던 빈 술잔은 그 순간 쓰겁둥이 상우에 얹어놓고말았다. 이어 움쭉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예전의 《호랑령감》답게 오금을 박아 말하였다.

《임자, 똑똑한 딸을 뒀으면 부모구실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내 혹 그 애가 오늘밤 집에 들어오지 못할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네만 괜히 죄없는 딸한테 이마살을 찌프리지 말라구. 그래선 이 집 기둥뿌리가 오래 못가-》

제가 낳은 자식이면 가슴속에서 그보다 더 뜨거운 말이 끓어올랐겠는가!

장지삼은 소결직장장집 문밖을 나서자 언젠가 달 밝은 밤, 막내아들이 금란이와 공장밖의 실개천 쪽가에 나란히 앉아 소곤거리던 사랑스러운 모습이 떠오르며 그만 눈물까지 글썽해졌다. 아

직 초저녁인데도 창밖에는 칠혹같은 어둠이 짙게 내려드리워 촌보를 가려볼수 없었다. 마치도 짧은 이들의 행복에 겨웠던 그 밤은 그의 눈앞에서 아주 사라져버리고만것처럼... 잠시후 바로 그렇게 생각되는 어둠을 지팡이로 더듬으며 다시금 막내아들의 합숙으로 찾아떠난 장지삼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길 없이 복잡하였다.

소결직장장집에서 큰소리를 치고 나온 걸음이 긴 했지만 막상 막내아들한테로 발길을 옮기고보니 오늘밤의 불길한 모든 일이 제마음처럼 잘못으로부터 출발된것처럼 여겨지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갔다. 이전에 《호랑령감》이었으면 뭇한단 말인가? 아들 여섯을 한결같이 제마음처럼 자라왔다가 늘그막에 막내녀석때문에 허리 부러진 장수처럼 되고만 그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가 이를 데없이 서글펐다.

(범이 새끼를 치다가 마감배엔 시라소니를 낳는 다길래 무슨 소리가 했더니...)

그는 어느덧 막내아들의 호실앞에 이르자 크게 기침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밀며 들어섰다. 순간 장지삼은 뜻밖의 광경에 그만 눈이 덩그래졌다. 방안의 주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소결직장장집에서 안이 달아 찾아다니는 금란이만이 막내아들의 침대머리에 수심에 잠겨 앉았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손에 걸레를 전채 맥락없이 서있는 처녀의 그린듯한 긴 속눈썹에는 신기할 정도로 큼직한 눈물방울까지 맺혀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의 눈물은 잊어버린듯 당황히 방안을 살피던 금란은 손에 걸레를 전대로 막내아들의 침대맡에서 뼈죽이 모가지가 내민 맥주병을 얼른 감춰버리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방안에서 뛰어나갔다. 녀석이 작업반장자리에서 굴었다더니 후끈 단김에 병나발을 불고 아무렇게나 집어던진 모양이다.

(줄장부같은녀석!)

장지삼은 문열에 지팡이를 세워놓고 좁전에 금란이가 앉았던 아들의 침대옆으로 다가갔다. 그 밑의 세면대아에는 처녀의 알뜰한 솜씨가 알리는 금방 새하얗게 빨아놓은 와이샤쓰가 물에 담긴채로 있었다. 금란이한테서 새롭게 찾아본 그 가룩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에 장지삼의 눈시울은 금시에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딸을 호강시키려고 다른데서 훌륭한 사위감을 찾고있으나 금란은 비록 허물이 있어도 이미 일생을 약속한 애인이기에 변함없이 마음을 막내아들한테 두고 이 밤도 저렇게 혼자 와서 눈물 짓다가 가는것이 아닌가! 오직 자기의 맑고 깨끗한 사랑만을 열렬히 갈망할뿐 그 어떤 허영과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는 처녀, 안타까운것은 그가 이 캄캄한 밤중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가서 애꿎은 속을 태울것인지 아무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장지삼은 이 세상에 자기가 아껴줘야 할 또 하나의 진실한 인간이 가까이에 있다는것을 그로록 가슴뜨겁게 깨닫자 더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벌써 그한테는 금란이가 단순히며느리감으로 느껴지는것이 아니였으며 그 가룩한 처녀를 위해서라면 이 밤중에 몇백리를 걸어서라도 막내아들을 만나고야말 결심이었던것이다. 그는 어찌나 성급히 문을 열고 나왔던지 현관계단을 내려선때에야 방안에 지팡이를 두고온 생각이 떠올라서 《아뿔싸!》 하며 되돌아섰다.

그리고는 아직 손에 채 익숙되지 않은 지팡이를 황황히 찾아쥐고 밖으로 나서자 포장길이 들썩하게 두꺼두꺼 소리를 울리며 공장을 향하여 걸어갔다.

벽돌공장판매부 문짜이 한창 요란하게 여닫길때면 바깥에서 태풍이라도 일지 않았는가싶을 정도이다. 오래간만에 정든 공장구내에 들어선 장지삼은 밤 여덟시가 넘도록 판매부안으로 들락날락하는 건설장의 인수원들을 바라보며 벽돌수가 여간 긴장하지 않다는것을 대뜸 알아맞혔다. 이런 때면 공장에서 달마다 생산계획을 넘쳐해도 판매부란 무던한 산모 우는 아이 달래듯 늘 들볶이기마련인것이다. 지나가던 걸음에 공장안의 벽돌적재장에 들러봐도 사정은 매한가지였다. 거기선 두대의 기중기가 조명등을 달고 승벽내기로 네모진 벽돌꾸레미를 자동차적재함에 실어주는중인데 한켠에서 무슨 일때문인지 말다툼까지 벌리고있었다.

《글쎄 말은 바른대로 이게 어디 벽돌인가요? 설기떡이지요. 이 쇠바구니안의 벽돌들은 건설장에 가져다 헤쳐놓으면 <죽망>이란말입니다.》

《동무, 배부른 소릴 작작 하오. 손이야 발이야 해서 우선적으로 벽돌을 췌으면 댕지 설기떡은 무슨놈의 설기떡이요?》

《그래도 줄바엔 온전한 벽돌을 줘야지 직장장 동무까지 비원칙적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보, 돼먹지 않게 직장장은 왜 걸구들며 야단이요. 그런 식은소리나 듣자고 나살이나 먹구 아직도 직장장노릇 하는줄 아오?》

그때에야 알고보니 한손에 벽돌장을 쥐고 인수원과 마주서 호통치는 사람은 뜻밖에도 소결직장장이였다.

장지삼은 한동안 어안이병병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전에 그와 술상을 마주했던 장지삼은 거기서 나와 잠간 합숙에 들린 시간밖에 없었다. 어떻게 되어 직장장이 자기먼저 벽돌적재장에 나타나서 인수원과 아웅다웅하는것인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혹시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결이 나서 찾아나왔다가 인수원과 맞닥들어 시어미

역정에 개열구리 차는 격으로 성품이하는것이 아닌가? 제대로 강도를 보장 못한 벽돌을 실어보내며 제편에서 탕탕 큰소리치는 그의 말은 인수원 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딸한테 퍼붓는 욕설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그는 마침내 손에 쥐었던 벽돌장을 도로 쇠바구니안에 흘 집어던지며 《큰소리 칠서 안됐소. 나도 인젠 몇해 지나지 않아 일손을 놓게 될 사람인데 젊은이들과 주책없이 아웅다웅하기가 딱 싫소.》 하고 량해를 구했다. 그러나 그가 점잖게 말을 채 끝내기도전에 쇠바구니안으로 날아들어난 《설기떡》 벽돌은 어떤 폭발물질처럼 산산조각이 되어 튕겨났다. 순간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된 소결직장장의 망신스런 행동은 웃음이 아닌 동정과 측은한 생각을 자아냈다. 나이 오십줄을 넘어서도 노상 로에 붙어살다싶이하던 일군이 그때의 사업의욕과 열성은 간데없이 언제 저렇게 공장에서 물러날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렸는가? 여느때같으면 한마디 대바른 말을 하고 지나쳤을 장지삼은 막내아들때문에 피장파장으로 몇몇치 못한 자신을 깨닫고는 마치 못볼것을 보길라도 한것처럼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말았다. 어느덧 그가 결불에 속이 와작 달아올라 소결직장 어구에 이른 때였다.

장지삼은 얼마 멀지 않은곳의 3호소결로의 화실안에 외등을 환히 켜달아맨 모양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리로 가까이 가보았다. 그가 료양을 떠나기 한달전만 해도 이미 늙아버린지 오래되어 아침청소때마다 주위의 쓰레기들이나 쓸어모아 립시로 넣어두곤하던 로였다. 언제봐도 오물장냄새밖에 풍기지 않던 그안에서는 밤중에 평평 함마질소리와 웬 녀자의 속살거리는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승철동무, 여기 좀 앉아 쉬고 하자요. 저 방금 전에 글썽 동무 아버님이 합숙에 오시지 않았겠어요? 전 어떻게나 깜짝 놀랐던지 호호...》

《정말이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었어요?》

장지삼은 그만 자기에 대한 그 말을 듣그선 흠칫 뒤로 물러섰다. 서로 오가는 이야기를 들어봐선 막내아들이 금란이와 단둘이 일하고있는게 틀림없었다.

뒤이어 그들이 도란도란 주고받는 말은 가볍게 얼굴을 스치는 밤바람에 실려갔다가 다시금 또렷이 들려왔다. 금란의 음성은 한결 부드러워진듯 싶었다.

《그런데 동문 정말 한심해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맥주병을 침대밑에 아무렇게나 굴리면 어떡해요. 마침 제가 먼저 가서 치웠기망정이지 아버님의 눈에 띄었다라면 어쩔번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버님은 동무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실거예요...》

요...》

금란이의 애정이 함뿍 어린 말에 막내녀석은 할 소리가 없는지 희뻘뻘 물었다.

《한데 동문 오늘밤 집에 들어가보지 않아두 일 없소?》

《제가 거긴 뭇하러 가요?》

《그래두 동무 아버지가 봐둔 사위감은 대단한 인물이라던데...》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예요?》

《남편 잘 만나 팔자 고치구실지 않은게로군.》

《동문 정말?... 꼴보기 싫게 뭘예요!》

장지삼은 금란이가 금시 울음이라도 터뜨릴것 같은 생각이 든 순간에야 비로소 인기척을 내며 천천히 화실안으로 들어섰다. 그 바람에 와들 놀란 금란이 승철이한테서 툭 떨어져 저쪽 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일어섰다.

한편 막내아들 승철은 이미 금란이한테서 아버지가 료양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서인지 그의 손에 쥐인 고로쇠나무지팡이만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았다. 언제 세면을 해본녀석같지 않게 얼굴이 새까만데다가 작업모를 눈섭까지 꼭 내려쓴 아들은 꼬락서니가 영 말이 아니였다. 그의 앞에는 로벽을 반나마 허물어낸 마사진내화벽돌들이 한수레나 되게 무드기 쌓여있었다.

《너 여기 나와서 뭘하느냐?》

《보시다싶이 이 로를 살려볼수 없을가 해서 그러니다.》

《말은 잘한다. 그래 창안은 집어던지고 인제 와선 몇해동안 내버려뒀던 로를 살려내여? 일하는 본새가 그래노니 작업반장자리에두 며칠 붙어 못있지?...》

《참, 아버지두, 작업반장이 벼슬자린가요?》

《이녀석, 그래도 아직 속은 살아서 뭘라구?》

장지삼은 지팡이끝으로 땅바닥을 퐁 내리짚으며 소리질렀다.

승철은 아버지가 만나자 노염을 내는 일이 딱 한듯 뒤덜미만 쓸어만지였다.

《아버지, 그런게 아닙니다.》

《내가 네 형한테서 다 듣고왔는데두!》

《정 못믿으실려면 저리로 가서 우리 작업반원들이 만든 <벽돌인출기>를 한번 보기라도 하십시오.》

《이녀석 창안하다가 거뒀치운건 봐서 뭘해?》

《아버지, 여하튼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사실은 다 완성한 기계인데 하루도 못가서 들어내버렸으니 그런 소문이 돌게 된거랍니다.》

장지삼은 막내아들이 제 가슴속이라도 헤쳐보일것처럼 안타까와하는 그 말에는 다소 생각이 달라졌다. 더구나 《벽돌인출기》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어둡속으로 달려가는 금란의 모습을 보고는 얼핏

에감되는데가 있어 아들의 뒤를 스적스적 따라가 보았다.

승철이네 작업반원들이 밤잠을 잊어가며 창안한 새 《벽돌인출기》는 소결직장의 한쪽 구석, 바로 두달전에 그 기계를 만드느라고 새로 양철지붕을 해쳐우고 사면벽에 비바람이나 가릴 정도의 널판자를 둘러친 작업장안에 사장되어있었다. 자그만치 길이가 십여메터나 되고 누가 고안해낸 명칭인지 《청년호》라는 글자를 은빛도금판에 새겨붙인 새 기계는 파란 에나멜색갈까지 먹여 제법 체모가 그럴듯해보였다. 장지삼은 승철이의 설명이 없이도 새로 개조한 인출기가 이전과는 좀 특수하게 벽돌을 대차에 실은채로 소성해선 완성품만 선별하여보내게 만든 기계임을 알수 있었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완성된 새 기계우에는 아무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음을 말해주듯 두텁게 먼지가 올라있고 시운전때 사용한 벽돌들이 주위에 그대로 너저분히 남아있었다.

장지삼이 그리로 가까이 다가가자 승철은 작업모자를 벗어 기대우의 먼지를 이리저리 훑훑 날려보내고나서 별로 차비새없이 개폐기함안의 스위치를 넣었다.

순간 새 기계의 고르로운 동음을 들은 장지삼은 눈을 크게 떴다

《으음?》

뒤이어 그는 새 인출기의 벨트우로 소성한 벽돌들이 기분 좋게 흘러가는 모양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연신 술진 눈섭을 쫓긋거리었다.

그때였다. 장지삼은 그만 눈앞에서 불이 번쩍이는 착각을 느꼈다.

갑자기 기대우에서 큼직한 쇠덩이가 똑 떨어져 내리며 벽돌을 연거퍼 두장이나 박산낸것이였다.

(이크! 이래서 실패한게로군.)

장지삼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당황히 팔을 내저었다.

《스위치를 꺼라. 이너석, 벽돌장을 이렇게 쿵가루로 만들어버리는놈의 기계가 어디 있어?》

《아닙니다. 아버지, 잘못 보셨습시다. 우린 이 《벽돌인출기》에 오작벽돌을 무자비하게 깨뜨려버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장지삼은 그제야 정신이 버쩍 드는것을 느끼며 《흠-》하고 허리를 쭉 폈다.

《물론 저도 오작벽돌이나마 두드려마스는것을 보기가 가슴아프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로 당에 충실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강도가 낮은 벽돌을 팡팡 구워내보내는 사람들에 이 기계가 마지막 선교로 되리라 생각하니 기뻐합니다.》

막내아들의 힘있는 말을 실증하듯 벽돌장은 또 한번 그의 눈앞에서 형체도 없이 부서져나갔다.

동시에 장지삼의 얼떨떨해진 머리속에는 방금 전 벽돌적재장에서 《설기떡》 벽돌이 말밥에 울

라 소결직장장이 인수원한테 큰소리치던 광경이 얼핏 떠올랐다. 그렇다면 소결직장과 막내아들간의 말다툼이라는것도 이 사정없는 불합격품선별장치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버지, 우리가 애써 만든 <벽돌인출기>가 버림받게 된것은 바로 이 불합격품선별장치때문이였습니다. 새 기계를 생산에 도입한 날 우리 소결직장장동무는 마사져버린 불합격품무지를 아쉽게 바라보며 저한테 사정하듯 말하더군요. 품질이 낮다고 해서-직장장동무는 불합격품이라는 말은 매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모조리 두드려마사버려서야 나라에 리득이 될게 된다고말입니다. 직장장동무는 옳은 말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불합격품으로 생산계획을 꺾으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의 태도에 격분한 나머지 불합격품선별장치가 없으면 <벽돌인출기>가 아니라고 완강히 고집해나섰습니다. 아버지도 아시다싶이 우리 공장은 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제정된 표준조작법만 똑바로 지켜도 완전합격품을 생산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래 파연 생산이요 뭐요 하면서 벌써 삼년가까이 로를 혹사하는가 하면 기술규정을 위반하여 불합격품비율만 푼수 없이 뛰어오르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가 공장을 이렇게 망태기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직장장동무와 같이 자기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날그날 현상유지나 하면서 살아가는 일군들과 그걸 알면서도 굵적거리며 일해온 우리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직장장동무는 저의 기탄없는 말을 자기에 대한 모욕과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불합격품선별장치를 고집하는것은 저혼자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우쭐렁대는 무서운 공명심이라거나, 공장생산은 안중에도 없는 <부서라주의>라거나 하더니만 나중엔 하루동안 불합격품을 깨뜨려버린 법적추궁까지 들썩위놓더군요.》

장지삼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비로소 막내아들이 창안한 《벽돌인출기》가 단순한 기계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속에 집요하게 틀고앉은 낡은 사상관점을 깨뜨려버리는 무쇠주먹과도 같은것이였음을 알게 된것이였다.

《<벽돌인출기>가 사장되고 제가 작업반장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간추려 말하면 대략 이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결과는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장동무의 말처럼 <부서라>식의 한가지 외교집만 가지고 만사를 해결하려고 무모하게 날뛴 제가 어리석었지요. 저는 저의 생활에서 나타난 그 가슴아픈 빈구석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벽돌장을 쇠덩이처럼 굳히고야말겠습니다. 그래 이틀전부터 이 3호로를 살펴보고요 달라붙게 된 겁니다. 공장에는 지금 당장 로들을 보수하려고

해도 예비가 없는 형편이니깐요. 물론 힘에 부치지 않는건 아닙니다. 아마도 오작벽돌을 마사버리기보다는 굳힌다는것이 곱절로 어려운가보군요...》

장지삼은 그 말까지 듣고선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무거운 발길을 옮겨 공장지배인실로 향하였다. 도중에 그는 공장실험실앞의 소공원을 지나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잠깐 멈춰섰다.

이른아침이면 아침마다 실험실처녀들이 새하얀 위생복은 펼쳐입고 한무리 나와앉아 즐겁게 웃어대며 알뜰히 가꾸곤한 공원안의 울긋불긋한 수십 수백의 꽃송이들은 이 밤 어둠속에서도 생신한 모습 그대로 진한 향기를 풍기였다. 순간 그앞에 이르러 지팽이를 짚은채 눈물을 머금은 늙은이의 심정을 과연 그 누가 알수 있었을것인가?

소공원의 가냘픈 소담히 자란 찔레꽃넉쿨너머로는 금란이가 아버지앞에 아련히 고개를 숙인 날씬한 모습이 어둠에 가리어 어렴풋이 바라보였다. 좀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작업복차림인 금란의 손에는 밥보자기까지 들려있어 장지삼이로 하여금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다만 옆의 장의자를 비워둔채 마주선 아버지와 딸이 한동안 아무 말이 없는걸로 보아 이미 심각한 이야기가 오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때 뜻밖에도 김준도가 한숨을 푹 내시며 탄식조로 말하였다.

《네가 내 딸이 아니구나-》

《아이참 아버지두 별난 말을 다 해요. 제가 왜 아버지의 딸이 아니겠나요.》

마치 아버지의 울적한 마음을 풀어주려는듯이 금란은 응석이 섞인 맑고도 명랑한 목소리로 웃기까지 하였다.

영락없이 무뚝뚝히 딸을 질책할것 같던 김준도의 얼굴에도 그 순간에는 따뜻한 온기가 스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장지삼은 그후 아버지와 딸이 무슨 말을 더 주고받았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는 다시금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습벽이며 공장청사쪽으로 천천히 발길을 떼었다.

마침 공장지배인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아있었다. 그는 장지삼이와 함께 벽돌공장에서 다년간 일한 사이이고 평소에 《호랑령감》을 남달리 존경해온 사람이였다. 장지삼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는터여서 간혹 공장에 새로 부임되어오는 아래일군은 어렵게 대해서도 지배인과는 서로 허물이 없었다.

이날도 사람좋은 지배인은 장지삼을 반겨맞으며 손수 자리까지 권하였다.

《로인님, 료양생활의 재미가 어떻습니까?》

《임자네들이 돌봐준 덕분에 잘 놀고 있네.》

장지삼은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다녀본 사람같이 않게 시무룩이 대답하고나서 덧붙였다.

《그러나 인사말이나 하려구 찾아온건 아닐세.》

《무슨 말씀인지?...》

그러던 지배인이 그의 심중을 눈치챈듯이 허탈하게 웃었다.

《아, 알만합니다. 괜히 아들 승철이문제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으신게군요.》

지배인은 장지삼이가 승철이 일로 하여 찾아왔다면 마음이 놓인다는듯 얼굴에 너그러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요즘 승철이가 작업반장사업을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모양인데 설마 그렇게야 했을라구요. 전번에 승철이네 작업반원들이 창안한 <벽돌인출기>의 불합격품선별장치때문에 소결직장장과 승철이사이에 좀 언쟁이 있긴 했습니다. 그때 소결직장장동무가 날 찾아와서 승철이가 제 주장만 그냥 고집하며 작업반장일을 못하겠다고 나눴길래 풀머리아프다는 제기를 하더군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좀 언짢아서 성이 풀릴 때까지 제 하품은 대로 가만 내버려두라고 목소리가 커졌던 일인데 소문이 평장스런 난것 같습니다. 그리구 령감님이니 믿고 하는 말이지만 승철이 그녀석이 내밀성은 좋은데 너무 과격해서... 글썄 소결직장장이 인젠 나이가 얼마인가요? 어젠 령감님이 공장에서 물러났다면 다음은 그 량반 차례지요. 요즘은 막내딸까지 다 커서 그 딸마저 시집보내면 집에 들어가도 늙은 내외가 외토리로 남을 판이거던요. 사람이란 젊어서 물불을 모르다가도 그쫘한 나이가 되면 여생에 잔잔히 비껴드는 호젓한 마음과 함께 지나치게 자신에 조심하게 되는 없던 버릇이 생기게 마련이 아닙니까? 누구나 일생에 한번은 겪게 될 일인데 리해해줘야지요. 승철이 문제는 걱정 말고 내려가십시오. 이제 내가 곧 소결직장에 알아보도록 하지요.》

장지삼은 지배인이 당장 전화를 걸려고 책상우의 수화기를 당겨잡는 모양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그우에 자기의 술뚜껑같은 큼직한 손을 덧놓았다.

《그만두라구, 임잔 사람을 어떻게 보구 이러는가? 내가 막내녀석문제라면 여기로 찾아왔을텐가? 좀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만 여기 와서 임자 말까지 듣고보니 이건 공장문제, 바로 임자나 나, 소결직장장 모두한테 걸린 문제란말일세.》

그는 예전의 《호랑령감》답게 지배인의 굳어진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멀찌감치 옮겨놓았다.

《불합격품을 생산하여 공장망신을 시키구 나라엔 막대한 손해를 주면서 무슨 당치 않은 인생타령인가? 하긴 나도 늘그막에 로망이 들어 공장형편이 이런줄은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지팽이를 짚

고 나오긴 했지. 머지않아 일손을 놓게 될 때가 왔다고 해서 머리에 쉬가 쓸어서야 그게 로동계급인가? 로동계급의 마음이란 공장에서 물러났어도 또 땅속에 묻혀도 변하지 않는거네. 말이났으니 말이지 내 막내녀석의 문제로 말하면, 아마 난 그녀석이 소결직장장에 대한 임자의 녹거리 동정에 고분고분 응하며 작업반장자리에서 동글동글 살아갈 궁리를 했다면 이 주먹으로 귀뺨을 불이나게 후려갈겼을걸세. 그러나 구태여 임자가 수고스럽게 전화를 걸 필요가 있겠나?》

지배인은 예전의 그 《호랑령감》다운 장지삼의 말을 듣고 한참 책상우에 팔굽을 짚은채 수국이 앉아있었다. 이어 그 역시 공장의 책임일군다운 아량과 너그러움을 보이며 별거우려해졌던 얼굴이 풀리더니 장지삼을 감동이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로인님,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로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때마침 갑자기 지배인실문이 벌럭 열리며 공장 판매부지도원이 숨이 턱밑에 닿아 뛰어들어왔다.

마주앉았던 지배인과 장지삼은 누구도 손기척 소리를 듣지 못한지라 눈이 둥그래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지배인동지, 차 이건 죽여주누만요. 벽돌은 더 나올데가 없는데 판매지령을 또 네차판이나 떨어구면 어떡합니까? 판매부가 벽돌을 낱아서 주랍니까요?》

방금 장지삼이와 마주 앉아 심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뒤끝이라 지배인은 아직도 그 기분에 도취되어 앉았다가 보다싶이 공장실정이 이렇다는듯 빙그레 미소를 띠우며 말하였다.

《알겠소. 돌아가보요.》

《예? 아니 그냥 가면...》

판매지도원은 어리둥절히 서있기만 하였다.

그때 옆에서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던 장지삼이 앉은자리에서 엉덩이만 약간 들고 판매지도원의 귀에 가까이 입을 가져다대며 이렇게 불어넣었다.

《여보게 젊은이, 저 고급술 뒤통만 나한테 들고 오라구.》

《술이요? 이 아바이가?...》

《가져오라든 가져와! 벽돌은 내가 풀어주지.》

《정말인가요?》

구미가 바짝 당긴 판매지도원은 차츰 지배인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가며 《홍정》을 불이려고

다가섰다.

《줄장부같은니! 술 두병 내라는데 지배인의 얼굴은 왜 홀근홀근 울려다봐?》

《그럼 좋수다. 그런데 아바이, 도대체 술은 해서 어따 쓸라구요?》

《정 알굼은가? 내 막내아들녀석이 소결직장장한테 들고가서 한잔 부어주게 하자구 그래!》

장지삼은 그 말을 남기고 지배인실에서 나오자 료양지에서 돌아온 불과 몇시간동안 그가 골치거리로 여겼던 《막내아들문제》가 말끔히 풀린 개운한 마음에 잠겨 생각하였다.

세상엔 아마 제할일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일생을 마친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랜 로동속에서 단련된 로동계급이라면 인생의 말년까지 순간도 휘는 일 없이 대바르게 살아야 할게 아닌가! 다만 장지삼은 바로 그런 뜨거운 심장이 그냥 가슴속에 간직되어있기에 별찌한 평범한 로동자보다도 못하게 공장밖으로 밀려났지만 오늘 자기의 발언이 그 어느때보다 더 크게 울려퍼졌다는데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있었다.

어느덧 소결직장에 내려온 그는 새 《벽돌인출기》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평이를 세워두고 마치 막내아들을 끌어만지듯 그우의 먼지를 밀어버렸다.

그때 승철이가 뒤에 와서 물었다.

《아버지 여기서 뭘합니까?》

《뭘하긴, 녀석 보구두 몰라?》

승철은 그 말에 눈물이 글썽해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인젠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냐, 한데 이녀석, 그 누가 뭐라고 하건말건 네 마음처럼 벽돌장을 굳혀야 한다. 알겠느냐?》

장지삼은 드디어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아들의 곁을 떠났다. 그는 흥이 나서 공장정문을 향하여 걸어나가다 말고 《아버지!》하고 목메여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며 얼른 뒤돌아보았다. 저만치 떨어진 구내길우에 막내아들이 그가 아주 버리고 가는 지평이를 들고 서있었다.

장지삼은 의미심장히 고개를 끄덕여보이며 《알고있다. 그건 버려도 괜찮다.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나느니라...》 하고는 아들처럼 청춘된 심정이 되어 춤추듯 걸어갔다.

그가 그리도 가고싶었던곳, 아직은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은 막내아들이 살게 될 사랑스런 집을 꿈꾸며...



## 모닥불

로정법

북대천농장 관리부위원장 김운상동무는 첫눈에도 푸수한 농민이라는 인상을 주는 40대의 사람이였다.

《우리 농장에 작가선생이 오긴 이번이 처음이외다. 신문기자는 더러 왔다갔지만… 추운길에 고생이 많았겠수다.》

그는 마디진 손으로 나의 손목을 반갑게 잡아 흔들고나서 부득부득 식당으로 이끌었다. 식사는 이미 끝난뒤였다.

자그마한 리합숙이라 제대군인 세명과 지질탐사대일군 두명, 군에서 내려온 손님 두명, 그밖에 한두명의 여유를 두고 짓는 식사라 남아있을리 없었다.

식당아주머니와 수군수군하는 품이 공연히 나한사람때문에 수고를 끼치는것 같아 일어섰다.

《차간에서 먹고 왔습니다. 공연히 이러지 마십시오.》

《산골사람의 인사란 그렇지 않수다. 가만 앉아 계시우.》

그는 두말 못하게 나를 꼭 눌러앉히고나서 부엌으로 훌쩍 나갔다. 부엌에서 도란도란 오고가는 말소리로 보아 부위원장동무가 아마 아궁에다 불을 지펴주고있는 모양이였다.

《아주바인 아무때고 봐야 불일구는 재간이 있 다니까요.》

《이런 불도 못피우고서야 부위원장을 어떻게 해?》

《호호… 아주바이두 정말…》

《웃긴? 웃는 말 같애두 그제 중요한거야. 일군이라면 무엇보다두 불을 잘 지펴올릴줄 알아야 하거던. 에이 벌써 끓는것 같다.》

밥상은 인차 들어왔다.

《어서 나왔으시우. 급히 한 밥이라 제대로 된 것 같질 않수다.》

그는 자기 밥그릇에서 밥 한술을 푹 떠서 내 밥 우에 덧놓아주며 웃었다.

《차간에서 먹은 밥이야 어디 성에 찹디까. 나두 도에 강습을 가느라구 먹어보는데…》

그는 설설 끓는듯한 생선국에다 고추가루 한술갈을 푹 놓아가지고 훌훌 불며 먹기 시작하였다.

《고추를 퍽 좋아하십니까.》

《고추이상 없지요.》

땀을 빼며 입술을 훌훌 부는 그를 보노라니 마음이 절로 흐뭇해났다.

퍽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고추가 더욱 강조해주는것만 같았다. 나는 운상동무가 특별히 나를 위하여 알선했준 조용한 합숙의 한방에서 그와 마주앉았다.

## 1

《이신작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운상동무는 생각깊은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모내기철입니다. 온 나라가 바빠 뛰는 때이지요. 농장의 책임일군이 아침밥을 싸가지고 신새벽에 벌로 나갑니다. <자 빨리 나갑시다> 이런 말이 필요할가요? 벌써 첫닭이 울무렵에 외양간으로 나왔던 우리 동네 범령감이 벌로 나가는 그 일군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집안으로 뛰어듭니다.

<아직도 늦잠들이나. 비서어른이 벌써 논으로 나갔다. 애 단식아. 준식아, 이놈 홍식아.>

로인이 방마다 돌아가며 문을 벌컥벌컥 열어제칩니다. 여차하다간 이불까지 훌훌 벗겨치울 기상입니다.

밤기전부터 호령질이라고 투덜대며 범령감의 맏손주인 만식이라는 녀석이 불이 잔뜩 부어가지고 나오고 그뒤로 갓 시집온 만식이 처가 얼굴이 발기우리해가지고 바빠맞아서 뛰어나옵니다. 뒤를 따라 여덟식구가 늘어섰습니다. 그런데도령감은 집안에서 여전히 호령질입니다. 뛰라는거지요. 비서어른을 앞서 뛰라는겁니다. 글썽 비서어른을 어떻게 앞선단말입니까? 벌써 언제 나갔나구…》

운상동무는 방점을 찍듯 생각깊은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나서 범령감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웃는것이였다.

《정말 범령감이지요. 이름은 박덕쇠라구 무던하구 좋은 이름인데 성미는 정반대로 범이지요. 여름한철 남새밭의 참외막지기를 하는 령감인데 수박이나 참외가 익을 철이면 관리위원회 이 부위원장도 얼씬 못한답니다. 허허… 온 동네가 그 령감의 호령소리에 깨나는것 같습니다. 모두 투덕투덕 벌로 뛰어나갑니다. 5월이라지만 첫새벽의 논물은 발을 에일듯 차갑습니다. 현대 비서동무는 벌써 모를 내고있습니다. 모두 바빠맞아서 물이 차다고 느낄새도 없이 침버거리며 물에 들어섭니다.

<덤비지들 말구 천천히 들어서라구. 물이 몹시 차오.>

비서동무가 주의를 줍니다. 차지않아 발가락이  
뚝 잘려 피가 난다해도 아프다고 느낄 사이가 없  
습니다.

늦잠을 잤다는 자책이 더 아픈것이지요. 그런  
데 비서동문 벌써 위탈이 있는 순국동무가 물에  
들어서는걸 보고 마주나옵니다.

<순국동문 가서 모를 쓰시오.>

순국동무가 부득부득 물에 들어서자 비서동무  
는 조용히 타이릅니다.

<사흘 갈길 하루 가서 열흘 늙는단 말이 있  
소. 어서 나오오.>

순국동무는 끝내 나가고야말았습니다.

이윽하여 논판에 건드려진 노래가락이 울려납  
니다.

모를 내세 모를 내세

비서동무가 석식한 음성으로 선소리를 먹입니  
다.

모두 따라 부릅니다.

풍년모를 어서 내세

추워서 이를 딱딱 마주치면서도 받아부르고있  
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확확 달아오르는 판이지  
요. 불은 벌써 붙었습니다. 뭉치워니해도 심장이  
타야지요. 아무리 장화를 신구 동복을 끼입는다  
해보십시오. 되나? 안되지요.

불은 속으로부터 타올라야 합니다. 겉에서 시  
작된 불은 인차 죽기마련입니다.

논머리에 모닥불은 타고르고 국통을 펄렁거리  
며 <충성호>트락트르가 달려나옵니다. 모두 비서  
동무가 펼쳐놓은 밥보자기에 눈이 갑니다.

<정옥이 아버지, (정옥이란 축산반에서 염소판  
리 공을 하는 비서동무의 딸입니다)거, 정옥이 어  
머니가 해준 도라지채 맛을 좀 봅시다.>

만식이라는녀석이 비위살종게 저가락을 닮  
비서동무의 반찬그릇으로 가져가는데 헛참 그 저  
가락끝에는 보기에다 먹음직한 명란젓이 덩지덩  
지 매달려갑니다. 조용한 웃음이, 가슴 들먹해나  
는 뿌듯한 단란함이 논머리에 흐릅니다. 우리 비  
서동문 이런분이지요. 1211고지방위자의 한사람  
입니다. 훈장도 많구요. (하긴 그걸 달고 다니는  
걸 한번도 보진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증하는듯  
한 부상자리가 가슴복판에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지금도 가끔 고생을 합니다. 네아이의 아버지입  
니다. 하긴 자식들이 이제는 다 큰 사람들이지요.  
로친은 축사에서 소여물을 꿂입니다. 내가 비서  
동무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말했군요. 물론입니  
다. 결함도 있습니다. 허허, 작가선생한테야 진실

을 말해야지요.》

그 다음 윤상동무는 문쪽으로 눈을 주며 《강  
습간 비서동무가 귀가 가렵겠습니다.》 하며 웃  
었다.

《심중한 결함입니다. 도무지 제 건강을 돌보지  
않는분입니다. 아래사람들에게는 코구멍에서 코  
물 한방울 떨어져두 당장 병원으로 범몰듯하여  
보내면서도 제 한몸은 생각질 않지요. 뭉치워니  
해도 혁명을 하자면 건강해야 한다고 늘 말은 하  
면서도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가 입가렵지 않수다?>

어떤 때는 보다못해 툭 쏘아주곤하지요. 지독  
스레 담배를 즐기는분입니다. 저 어른이 이제 담  
배때문에 일을 친다 하구 걱정하던중인데 마침  
담배의 해독성을 선전하는 강연제강이 내려왔겠  
지요. 거기에는 별 무시무시한 소리가 다 적혀있  
더군요. 뭐 담배란 물건은 심장을 겨는 권총이라  
던가요. 물론이지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  
걸 보더니 비서동무가 그 강연제강을 슬그머니  
내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이 제강은 부위원장동무가 좀 해주오.>

<갑자기 급한 일이라두 생겼겠수다?>

나는 곱지 않게 말을 받았습니다.

<군당에서...>

비서동문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며 당장 일어서  
는 판입니다.

<어째 이러시우, 이제 금방까지두 이 물부리를  
빼앗아내지 못해 몸살이 났던분이... 싫음메.>

나는 강연제강을 그 앞으로 훌 밀어놓았습니다.  
이쯤 되자 비서동문 방법을 달리하여 사정하는식  
으로 나옵니다.

<이걸 들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앞에 나서겠소?  
좀 해주오.>

하긴 그 권총인지 뭔지 한놈이 아마 적게쳐도  
하루에 쉬나문번은 우리 비서동무를 겨누고있을  
것입니다.

<이러지 마시우, 나도 잎담배를 소여물썩듯하  
는 놈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한단말이요?>

<흥, 이젠 당비서의 말도 안듣는 판이군.>

위협하는 판입니다.

<말씀 마시우. 그건 당비서가 하는 말씀갈질  
않소다. 당비서 말이라면야 이 김윤상이가 왜 안  
듣겠소. 좀 떼뻗힌 분공을 달란말이외다.>

결국 리당비서가 지들지들 늘구다가 하는수없  
이 강연제강을 들고 연락으로 나가더군요. 허허,  
비서동무의 립장을 보아서라도 내가 할수도 있었  
지요. 눈은 아직 어둡지 않겠다 결정서도 아닌데  
그 까짓거 시칠 툭 따구서 재빨리 줄줄줄 읽어치  
우고 나오면 그만이었지요.

하지만 난 나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

람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비서동무에게 있어선 담배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어느때인가 비서동무의 병문안차로 갔다가 담당의사선생한테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비서동무에겐 담배의 해독성이 여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였지요. 결정적으로 떼야 했습니다. 때문에 아래일 군들이 속을 좀 썩였습니다. 무슨 방법을 안해보았겠습니까? 큰딸 정옥이를 시켜 재털이대신에 알사탕팩을 놓도록 하여도 보구 인단통을 통채로 갖다놓아두 보구...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던차인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긴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나자 비서동문 어지간히 바빴던 모양인지 손수건을 꺼내 땀을 씻더군요. 그 다음엔 허거프게 허허 하고 웃습니다. 그러자 모두 조용히 따라 웃겠지요. 무대예술에서는 출연자와 관객간의 이런 호흡을 뭐라고 했던가요?》

윤상동무는 웃으며 나를 보는것이였다.

《교감이라고 한답니다.》

《웁습니다. 교감이라 했습니다. 그런 판이지요. 그런데 비서동무가 제 결의도 한마디 다지지 않고 들어올 잡두리입니다. 그래 내가 일어서서 <비서동무의 결의나 한마디 들어봅세다> 하고 들이대자는 판인데 비서동무가 손시봉으로 나를 앉으라고 하고는 <이제부터 나두 담배를 덜 피우겠으니 모두 삼가하지요.> 하는것이였습니다. 어쩐지 그 말이 미타해서 또 일어나자는 판인데 비서동문 다시 <나도 이제부터는 담배를 끊겠소. 그러니 우리모두 담배를 끊던가 덜 피웁시다.>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차 저런 실없는 소릴 하신다구야.> 이번엔 오히려 내가 다 바빠지더군요. 말과 행동이 엄격하리만치 같은분이란건 알고있지만 어쩐지 이번에만은 믿어 지질 않았기때문입니다.

적게 피우겠다는 말씀은 비슷한데 끊겠다니 말이 됩니까? 1211고지에서 마지막 돌격을 앞두고 소대가 담배 서너대를 가지고 번갈아 빨았는데 그때 비로소 담배맛을 알았다던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서 모두 되니 안되니 의견이 많다가도 비서동무가 일단 <된다>하면 그것은 그대로 되는것으로 알고있는 나였지만 이번에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비서동문 벌써 담배를 어떻게 끊을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있습니다.

<관대원동무, 이제부터 우리 로친이 담배가지러 가면 하루에 꼭꼭 한갑씩으로만 계산해서 주도록 하시오. 한달후엔 그 절반으로 줄여도 중소. 줄인 몫은 저 부위원장장동무한테나 더 주지, 밤낮 담배담배 하는데...》

뜻밖에도 비서동무가 나를 걸고들었습니다.

나는 걸김에 일어섰습니다.

<필요없수다. 나두 담배를 뗄테니까...>

나두 모르게 속에 없는 큰소릴 쳤습니다.

<거 반가운 소리요. 행여나 부위원장장동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해서 해본 소린데...>

무어라고 번명이라도 해보려는데 벌써 비서동문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들어매고 있습니다.

<자 우리모두 부위원장장동무처럼 담배를 뗌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콩밭에 소를 매놓구두 핑계가 열가지라는데...

<이 윤상이가 낫도깨비처럼 죽었다 살았다 하는거야 농장이 다 알구있는데 떼려다가 못뗄수도 있지요...>

그 소리에 비서동무가 껄껄 웃습니다. 그런데 들썩거리며 웃던 비서동무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담배 한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빨사, 저런 변이 있는가.>

글쎄, 윤상이야 그런 사람이란걸 다 아는 사실이라 큰일날게 없지만두 비서동무야 어디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비서동문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비서동문 아쉬운듯 꺼내들었던 담배를 도로 넣는것이였습니다.

<어찌겠소. 비서동무, 이왕 꺼냈던바에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식으루 피우시라구요. 아직 석달이 남았는데...>

<그럼 그럴가.>

비서동무도 역시 내 말이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성냥을 득 켜가지고 입으로 가져가는데 하 어떻게나 맛있게 들이키던지 저렇게 맛난 물건을 떼고 비서동무가 앞으로 어떻게 살가 하는 서글픈 생각까지 다 들더군요.》

윤상동무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나서 윤상동무는 주머니에서 담배쌈지(그는 가치담배보다 독한 잎담배를 즐겼다.)를 꺼내들며 량해를 빌듯 중얼거렸다.

《난 아직 못뗄습니다.》

《어서 피우십시오.》

나는 미소하였다.

그는 놀랄만치 쥘쥘 숨씨로 잎담배를 말아물었다.

《성냥 좀 있습니까?》

윤상동무는 내게서 성냥을 받으며 혼자 히죽히 웃었다.

《제주머니에 불이 없으니까 담배 한대 피재도 여간 말썽지 않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 들고 매번 불 좀 주오, 불 좀 주오 하기도 미안한

노릇이고... 불편한대로 참고 하루를 보내고나면 그날엔 확실히 담배를 덜 피웠거든요. 이젠 우리 비서동무가 고안해낸 방법인데 해보니 소득이 괜찮습니다. 허허... 그래서 우정 성냥을 잊어버리고 출근하지요. 방법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때야 말귀를 알아차리고 나는 웃었다.

《아닙니다. 인단이나 알사탕으로 뎀다는 소리 보다는 어딘가 진실감이 있습니다.》

《웁습니다. 우리 비서동무도 결국 이런 방법으로 뎀었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의 비서동무의 마음이 헤아려져 어쩐지 가슴이 후터워났다.

《아주 뎀는가요?»

《혹을 때듯 툭 뎀지요. 하긴 손님이나 오면 한두대 피우는 정도이긴 합니다만...》

《그러니 이젠 부위원장동무 차례군요?»

《글쎄말입니다. 아닌게아니라 우리 농장에선 그런 방법이 널리 적용되고있답니다.》

《일반화되고있다는 말씀인데...》

《허, 뭘 그렇게까지야.》

이렇게 말하고나서 윤상동무는

《간혹가다 잘못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만식이라는 녀석말입니다. 그녀석이 글쎄 제 할아버지주머니에서 성냥을 몰래 꺼내 감춰다가 혼난 일도 있었습니다.》 하며 웃는 것이었다.

《하하...》

## 2

부위원장동무의 권고에 따라 농장을 한바퀴 돌아보고 오다나니 펍 늦게야 숙소로 돌아온 나는 내가 보았고 만날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적어놓기 위하여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아담한 마을이었다.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디에 가도 흔히 볼수 있는 과원을 배경으로 산밑에 오붓이 들어앉은 마을이었다. 마을앞으로는 백두산줄기와 함경산줄기, 부전령산줄기가 서로 접하는곳에 솟아있는 해발 2309M의 두류산에 발원을 둔 북대천이 흐르고있었다.

강의 흐름과 같이 철길이 흘렀다. 바로 그 철길이 《영웅광부소대》를 낳아 온 나라를 경탄시킨 광산으로 향한 철길이였다. 이전에는 석탄재를 날리며 중기차가 헐떡거리며 오르던 그길로 평양행급행열차가 지나고있었다. 경계도 좋고 교통도 좋고 사람들도 하나같이 좋은고장이였다. 둘러보면 논은 적고 충충다락밭이 눈뿌리 아찔하게 산허리를 감돌아간 마을이었다. 눈에 덮인 그 다락밭우로 퇴비를 가득 실은 트랙토르가 줄지어 오르고있었다. 마을에서 올려다보려니 마치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느껴졌다. 놀라운것은 그 다락밭의 거의 전부가 20만정보의 새땅찾기에

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지난 가을에 새로 일군것이라 한다. 나는 들에서 부위원장동무에게서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만석이며 범령감이며 하는 사람들을 만나볼수가 있었다. 내가 보건대 범령감이 부위원장을 알아보고 앉아서 담배나 한대 태우고 가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돌아올 때 내가 그 로인에 대한 인상을 말하면서 《어쩐지 듣던 바치군 다릅시다.》 하고 의문을 표시하니 윤상동무는 웃으며

《세상 썩썩한 로인이지요. 하지만 참외가 익는 철엔 사람이 핵 달라지거든요. 허허... 말하자면 겨울철엔 이름자 그대로 무던한 박덕쇠구 7~8월엔 범이란말이외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꾸러질 나의 작품에 이 모든것이 필요하겠는지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이 하루의 인상그대로를 수첩에 적어넣었다.

초급일군들의 회의가 있었다면서 윤상동무는 펍 늦어서야 나를 찾아왔다. 밤인사차로 들린 그를 붙들어앉히기는 미안했으나 이 밤안으로 그에게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 《<논두렁지도원>이란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윤상동무의 이야기시작은 언제나 이처럼 엉뚱하였다.

《말인즉 생활의 복판에 뛰어들지 못하고 가늠을 에도는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인데...》

윤상동무는 감회가 새로운듯 조용히 웃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 농장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내기철부터 한여름내내 내리워볼 사이 없이 걷어올리고 다니는 작업복바지, 어느때 바야 손에는 돌피줄이 아니면 길가에 홀리고간 비료덩치가 쥐여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리춤에다 맞얼어 끼운 로동화짝은 언제 신어보았는지 흠 한고치 묻지 않은채로입니다. 썩살이 배길대로 배긴 발바닥은 웬간하게 모가 난 돌을 밟고도 꿈틀도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그 사람 하루종일 뛰어다닙니다. 잔소리, 추궁, 그래도 성이 차지 않으면 논판으로 찼버덩거리고 들어가 등골에 땀이 쭉 나도록 버뿌리땀을 허버나갑니다.》

<흠을 매거라 흠을, 출썩출썩 물장구만 치지말고...>

모두 일하다 말고 놀란 눈으로 그 사람의 김매는 모양을 보고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일군의 일본새를 따를수가 있단말입니까. 땅과 함께 살아온 토배기농군의 일본새를말입니다. 켜켜서 보고있는 사이에 그 일군은 벌써 자리가 푹 나게 해제졌습니다. 하지만 한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수는 없습니다. 아쉬운듯 손을 댔 그 일군은 자기가 매여나온 뒤를 흐뭇하게 돌아다봅니다.

저 앞에서 비료달구지 하나가 굴러가고있습니다. 털썩거릴 때 마다 비료가루가 흩날립니다.

<저런놈 봤나?> 그 일군은 손을 씻을 사이도 없이 달려나옵니다. 그런식으로 그 일군은 첫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리가 아프게 뛰어다닙니다.

1반에서 2반으로, 남새반에서 뽕밭으로, 다시 관리위원회로 들어와 괜히 사무실에 붙어 머물거리며 돌아가는것 같은 통제원이요 회계원이요 도서실주임이요 하는 사람들을 김매기장에 쫓아냅니다. 리밭판에 들려서는 이동리밭을 하라고 올려메고 포전락아소에 들려서는 <포전락아소라구 이렇게 애들을 허투루 내굴리냐, 당장 침대를 내와라.> 하고 보육원처녀들을 닦아세웁니다. 다리가 아파 길옆에 주저앉아 무릎을 푹푹 두드리고 있는데 침봉이로 유명한 동의사령감이 옵니다. <관절이 도지는 모양이군. 얼른 다리를 내대오.>령감이 침대를 뽑아드립니다. 흠칫 놀라 벌떡 일어섭니다.

<여보 령감, 관절을 침으로 고친다는 소린 처음 듣소. 그러지 말고 령감님이 눈에 들어가 돌피 한줌 뽑는걸 내눈으로 보면 관절이 푹 떨어질것 같소.>

하고나서 내뺍니다. 하늘을 보니 해가 중천에 걸렸습니다. 1년중에 해가 제일 길다는 6월인데도 어찌면 시간이 이리도 빠릅니까. 일년내내 두고봐야 해는 언제나 이렇게 짧단말입니다. 밤은 지루하게도 길구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논판에서는 또 흔들흔들 세월보내는것 같아 뛰지요. 왜 그런지 자기가 없으면 일이 안되는것만 같은 생각만 들지요. 아닐세라 논머리에서는 왁작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나 없는 째에 논에서 나와앉아 만식이라는놈의 허튼소리에 배를 쥐고 야단들입니다.

<그만큼 쉬었으면 이젠 좀 내밀어보지...>

화가 나는걸 꼭 참으며 한마디 하였는데 누가 슬그머니 내 옷 귀퉁이를 잡아 눌러앉힙니다. 보니 리당비서동무지요.

<금방 휴식하는걸이요. 재담을 하고있소. 허허, 저너석이 재간동인 재간동이요. 그저 사람들을 순식간에 쥐었다놓았다 한다니까.>

그래 들어보노라니 정말 만식이라는 녀석이 씨알이 배긴 소리를 하고있더라말입니다. 왜 풀을 매지 않고 흙을 매야 하는가에 대하여 청산류수처럼 설명해내려가는데 그만 그 사람도 입이 헤벌어졌습니다.

<허 그놈이 재간동인 재간동이외다>

말하자면 <경제선동>의 한장면이었지요.

리당비서동무는 나와 같은 작업복인데도 산뜻하게 다려서 맵시있게 걸어올렸는데 헉띠고리에 팔목에서 벗어 걸은 손목시계가 착착거리며

돌아갑니다. 비서동무는 저 시계와 더불어 벌써 어제저녁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보내리라 계획했을겁니다. 그것은 30분일수도 있고 한것일수도 있고 온 하루일수도 있습니다. 타산된 시간, 타산된 장소, 타산된 사람들과의 사업을 벌리는것, 그것은 요진통을 노리다가 내지른 권투선수의 주먹처럼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5회전이 다 지나가도록 잡손질을 해서야 쓸데 있습니까? 그 <논두렁지도원>처럼말입니다. <논두렁지도원>이 무슨 말인지 이젠 이해가 갑니까? 허허, 이 윤상이가 <논두렁지도원>이었되다...》

윤상동무는 껄껄 웃고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후 어느날 비서동무는 나에게 자그마한 잡지 한권을 주며 보라는것이였습니다. 또 그러루한 영농기술잡지겠거니 했던 나는 눈이 떠꾼해졌습니다.

<조선문학>이었지요. 비서동무는 그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 한편을 짚어보입니다.

<부위원장이 소설책을 들고다니면 남들이 웃겠수다. 거 있으면 간첩쩍이 소설이나 하나 주요.>

비서동무는 웃었습니다.

<일군들이 소설 한편 보지 않고 소설얘기 하나 할줄 모르면 무슨 일군이겠소.> 그러면서 비서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인민군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군대동무들에게 보낼 위문편지를 써온걸 더러 보았는데 일군들이 편지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거던. 회계과장동무가 쓴 편지를 보니 서두도 그렇고 모두 그럴듯한데 문법상으로 따지면 개관이드란말이요. 사무용펜촉값으로부터 시작하여 몇천톤에 이르는 생산물에 이르기까지 계산이요 암산이요 하는데는 귀신같은 량반인데 우리 글의 문장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거던. 창피스러워 실례는 들지 않겠소.>

나도 한때는 소설이라면 밤잠을 잊고 달려들던 놈이라 비서동무가 권고한 소설을 보았습니다. 몇장 안되는 글인데도 느낀바가 컸습니다.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소설이였습니다. <일군들이여, 네가 선 위치는 정확한가, 네 위치로 가거라.>

한 건설장에서 스물다섯톤이나 되는 기중기를 옮겨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각을 떠서 날라가자니 시일이 바쁘고 하여 그 기중기를 자동차 추데라에다 통채로 세워실고 간다는 이야긴데 글썽 지배인이라는 량반이 아슬한 기중기운전실에 올라가 운전공처녀와 함께 기중기의 중심을 조절하며 간다던가요. 많은걸 생각했습니다.

비서동무가 공연히 이 책을 나에게 권고한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자정이었다. 나는 취수점을 접었다. 래일 또 일해야 할 사람을 너무 늦게까지 붙들어둘수는 없었다.

### 3

그 이튿날은 마침 농장에서 휴식하는 날이었다. 사색을 정리하며 아침산보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니 윤상동무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조반식사라도 한끼 같이 나누고싶어 왔노라고 기어이 잡아 끄는바람에 그의 집으로 갔다. 그리하여 이날 하루는 무던한 그 집 너주인에게서 각근한 손님 접대를 받으며 윤상동무와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사람들의 앞장에 선다는것은 혈치 않은 일입니다. 나는 당의 신임에 의하여 농장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꾼인데...》

윤상동무는 어쭙게 웃어보이고나서 《이거 오늘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것 같군.》하며 담배를 주섬주섬 맡기 시작하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는 장인령감의 턱수염 밑에서 굶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생겨먹은건지 아침부터 마가울비가 주룩주룩 소릴치며 내리더군요. 우리는 바로 어제 구호를 불렀습니다. 20만정보의 새땅찾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농장구락부가 떠나갈듯 구호가 터지고 너도나도 연단으로 뛰어올라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는 첫날에 비가 오고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올씨년스러운 비는 마치도 우리가 목표하고 다진 결의가 결코 수월하게 이룩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납득시키려드는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겠단말이지, 어렵없는걸... 이럴 때 지휘관이 서야 할 위치를 나는 압니다. 나는 여느날보다 더 일찍이 서둘렀습니다. 물론 전투의 첫날이었다는데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건대 비가 오기때문에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일꾼이라면 맑은 날이 아니라 이런 날일수록...> 하는 묘술이라고 할지... 눈치라고 할지...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나는 숨저고리우에다 비옷을 걸치고 반장화를 신었습니다. 꿈무니에다 낫을 차고 짝지까지 찾아 들고서 문밖을 나서려니 안해가 따라나오며 막내가 열이 있는것 같은데 진료소에 들렀다가 천천히 나갈테니 분조장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러지 않아?>

나는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첫 전투부터 이러쿵저러쿵... 당장 아이를 탁아소에 갖다 맡기구 일하러 나오우. 늦지 말구...>

나는 두말 못하게 욱박아놓고나서 집을 나섰습니다. 비도 비거니와 이 아침의 기분을 안해가 잡쳐놓은것만 같아 대단히 좋지 않더군요. 나는 새로 일구기로 지정된 안덕으로 올랐습니다. 이름 그대로 덕입니다. 마을이 자리잡은곳에서 산을 타고 얼마간 올라오면 그우에는 마치도 산봉우리를 칼로 깎아내친듯 평퍼짐한 덕이 펼쳐집니다.

버림받던 땅이었습니다. 고작해야 양무리의 방목지로 리용되던 이 넓은 땅이 오늘은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거진 축대, 잔술, 그믐을 두쳐보면 허구한 세월 나무잎과 풀뿌리가 썩어 거무스레 살진 땅이지요. 먼저 우거진 잡관목을 베어내고 트랙토르를 불러다 갈아엎을 예정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풀을 줌이 벌게 거머잡고 낮에 지그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낮이 들지 않았습니다. 낮을 간다는걸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갈아본 낮입니까. 농군이라면 어느때나 꼬리처럼 꿈무니에 달려 다니는 낮이지만 도대체 그 낮을 언제 써보았습니까? 썩어야 무딘줄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낮은 쓰자는것이 아니라 보라는것이었습니다. <자보아라, 부위원장은 항상 낮을 들고다닌다. 관점이 서지 않았느냐.> 하구말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던가, 흠냄새 배인 농군의 량심에 언제부터 이런 껌데기가 썩워졌던가... 작가선생, 뭐니뭐니해도 낮부터 갈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제 말이 옳습니까?》

그것은 물음이라기보다 너무나도 명백한것을 망각해버렸던것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안주머니에다 젖지 않도록 싸가지고 나온 <사업수첩>을 그만두고 그대신 숫돌이라도 하나 들고나 왔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도 나는 이렇다하게 일자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자신을 이렇게 위안합니다. <첫 전투에, 더구나 비까지 오는 이 새벽에 누구보다도 먼저 작업장에 나와 전투의 시작을 선포한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이 부위원장을 리해할것이고 감동할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일찍들 나왔구만.>

모두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지요. 위탈이 있는 순국동무도 나왔습니다.

<몸은 일없소?>

나는 그에게 친절히 묻습니다.

<일없습니다.>

<찬비를 맞아도 일없겠소? 괜한 객기를 부리지 말고 몸을 돌봐야 하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또다시 안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제길, 왜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까...

안해는 못듣는척 저쪽으로 돌아서있더군요.

<제가슴도 막 뚫습니다. 어떻게 가만 누워있겠습니까...>

순국동무의 말이였습니다. 첫 전투에 진입하는 날이라 흥분했더군요.

<웁소.>

나는 격해서 순국동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줍니다.

<만점ियो. 전투원들의 기세는 만점, 오늘 계획한 세정보는 벌써 먹어든거나 다름없소.>

그러자 모두 좋아서들 어쩔줄 모르더군요. 나는 일군다운 결단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오늘은 비도 오는데 더 하느라구두 하지 말구 계획대루 세정보만 합시다. 그것만 와닥닥 끝내구 일찍 들어가잔말ियो. 오전에 다하면 오전에 들어가두 좋구... 어쩡소?>

누구인가 너그럽게 나를 반박해나섰습니다.

<부위원장동지, 우린 네정보반을 목표하고있습니다.>

농장에 갓 배치되어온 제대군인동무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심장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 부위원장이 나왔기때문에 할수없이 따라나온 사람들이겠습니까. <부위원장동무가 비를 맞으며 나갔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가만 있겠느냐, 도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나왔겠습니까? 립장을 보아주구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슴속에다 용암을 품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당중앙은 새땅찾기에로 우리를 불렀다!> 이것이지요.

하지만 김윤상이를 비롯한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종종 매 사람들의 이 점을 무시하고 자기가 <지도>를 잘했기때문에 자기가 <이신작책>했기때문에 된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일군으로 말한즉 제 심장은 불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남의 심장에다 불을 지퍼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일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윤상동무는 숙제를 남기듯 이렇게 묻고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뒤질세라 닳을 들고 달라붙었습니다. 들지 않는 닳이지만 맨손보다야 낫겠지요. 잡아당기다 되지 않으면 도끼처럼 내려칩니다. 비웃이 거치장스러워 벗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곁에 걸친 솜옷이 젖고, 다음엔 옷옷이 젖고 껴입은 내의마저 젖어듭니다. 바야흐로 온몸을 까닥 움직이고싶지 않은 축축하고 질적한 느낌이 등허리로 흘러내립니다. 허리를 굽히면 일어서기 싫고, 일어서면 다시 굽히고싶지 않는...

그러노라니 몸이 우들우들 떨려나기 시작합니

다.

불, 불, 온기, 뜨끈한것을 마시고싶은 생각... 보들보들하고 차분한 내의에 대한 갈망, 뜨끈한 아래목에... 생각은 이 한뼘으로만 흐릅니다. 현실에 대한 망각의 순간이 얼핏얼핏 침노하고 생각은 지독스레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실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거기에는 지금 전화직일점 혼자 남은 알뜰한 회계원처녀가 내 방의 아궁에다 불을 지펴놓고 기다리고있을것입니다. 관절염이 있는 나를 넘려하여 날씨가 조금 흐려도 군불을 한아궁씩 넣어주곤 하는 착실한 동무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 다그칩시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 맥이 빠진 텅빈 소리였습니다. 께이지 못한 무대극의 한 대사처럼말입니다.

아차 내 정신 보지요. 중요한걸 잊고 나왔습니다.

군경영위원회에서 부족되는 프락포르부속을 오전중으로 신청하라하던것을 잊었습니다.

에이, 부족되는 프락포르부속이야 어련히 해결되지 않을라구... 농기계과 지도원동무가 어떤 동무라구... 미처 연락이 못되면 찾아라두 올걸...

나는 관리위원회로 들어가려던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낫자루에 힘을 줍니다.

무딘 닳이 미출하며 손가락을 찔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잔솔가지를 쥐었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비맞은 돌우에 걸써 의지했던 발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며 털썩 떨어집니다. 그 순간 나무 그루에 발이 걸리며 아 글썽 평양에 있는 조카녀석이 <삼촌 신으시오> 하고 사보낸 새형의 사출장화가 푹 하고 구멍이 났습니다.

벌써 까마득히 앞서나간 사람들속에서 <와야> 하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닳질을 번개같이 해대는 품으로 보아 누가 먼저 저쪽끝까지 나가는가 경쟁이 붙은 모양입니다.

<잘한다 잘해!>

나는 급히 큰 나무밑으로 갔습니다. 불을 피울 생각이였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벌써 두시간이 넘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좀 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을 활활 피워놓고 <동무들 좀 쉽시다>할 생각입니다.

비오는날 마른나무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대로 삭정이를 주어다놓고 바위밑에 불려간 가랑잎을 모아놓습니다. 휴지, 담배종이, 안주머니에 넣었던 사업수첩의 쓰지 않은 종이장까지 뜯어 내어 불을 달았습니다.

불은 필듯필듯하다가 스러져버렸습니다.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라면 사업수첩밖에 없지요. 나는 사업수첩을 뒤적뒤적하며 그리 중요치 않은

종이장을 골라내어 다시 불을 지킵니다. 또 죽었습니다. 어디 종이 없는가... 있습니다. 하하... 사슴을 그려붙인 성냥갑의 상표를 조심조심 뜯어 냅니다. 아차! 사슴이란놈이 그만 다리질을 하는 바람에 성냥까지 흠뻑에 떨어버렸습니다.

허허... 재수없기란...

<동무들! 좀 쉬었다 하지 않겠소? 한대 피우고 하지요.>

나는 휴식을 선포합니다.

<이대로 바짝 내뿜시다. 땀을 식히면 일할 생각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대군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중소, 그럼 그렇게 하오.>

그랬는데 어느사이에 그 동무들과 어울려 일을 하느라 신바람이 났던 안해가 뭐라고 소리칩니다.

<영철이 아버지, 이제 들어가시면요...>

<뭐라고!>

나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들어가시면요>라니...)

안해는 자기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갈것이라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긴 이제 들어간들 일있습니까. 이제는 이미 일에 불을 붙여놓았으니...

일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불을 지퍼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이 분조장처럼 한니 그들과 같이 일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안들리오. 모르겠소.>

나는 안해를 향해 손을 뻗 저어보입니다. 두번 다시 말을 걸지 말라는것이였지요.

제대군인동무가 안해의 말을 받아 전해줍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식장뺨람에 영철이가 맞던 폐니실린이 있답니다. 그것을 탁아소에 가져다 주랍니다.>

안해는 지금도 영철이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도 불원간 겁이 납니다. 오죽하면 저러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앞에서 그제 뭐란말입니까.

<집에 들어갈새가 없다구 하오. 난 지금 3반으로 넘어가겠소. 거기서는 어떻게들이나 하는지...>

나는 떠나기에 앞서 반장동무를 불렀습니다.

<기세를 늦추지 말구 버쩍 내미시오. 저 제대군인동무와 토론을 해서 경쟁을 붙이오. 분조는 분조간에 개인은 개인간에... 그게 은을 내오. 오늘 같은 날엔 더구나 그렇소. 어떻게든 1반이 앞서야 해...>

그다음 반장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이렇게 내비칩니다.

<경쟁에서 이긴 작업반에 돼지를 몇마리 내도록 하겠소.>

<돼지요? 하 그게 비슷한 말이지는 한데... 그

게 되겠습니까?>

반장동무는 구미가 당기는지 바짝 달라붙습니다.

<회계과장동무가 말을 안들으면 위원장동무에게 제기해서라도 풀도록 하겠으니 그점은 내게 맡겨 두라구... 정 안되면 우리 집 돼지가 있잖소. 백키로밀에 거의 같지요.>

반장은 입이 함박만해서 돌아갑니다. 그런 반장동무에게 나는 다시 한번 그루를 박습니다.

<혀를 가로물구서라도 1반이 이겨야 해. 그래야 1반이 담당하고 나온 일군의 체면도 설게 아닌가...>

<념려 마시우.> 반장은 주먹을 부르짖며 장담합니다.

## 4

3반에 대한 우려는 공연한것이였습니다. 3반에서 지금 미루덕아래로 뚝뚝이 흘러내린 경사지의 잡관목을 베여내고 저리 다락밭을 만들고있습니다. 내가 작업장어귀에 들어서니 <내려간다>하는 소리와 함께 집채만한 풀더미가 덩실덩실 굴러내려옵니다. 그 다음엔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의 만세의 환호성비슷한 함성이 들립니다. 현장입구에 모두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4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부침땅면적을 적극 늘이자는 활달한 글씨체의 글발이 걸려있고 그 곁에 삽을 들고 새땅찾기에 호소하는 그림판이 놓여있습니다. 경쟁도표도 나붙었습니다.

(저게 바로 정치사업이라는건데 나는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휴식!> 하는 석식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를 보아 비서동무가 분명합니다.

<웁지, 3반엔 비서동무가 나간다고 했었지.>

하지만 이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어느새 휴식장으로 정한 공지에 모닥불이 타오릅니다. 불옆에 비서동무가 든든히 자리를 잡고 앉아 낮을 갈고있습니다.

경쟁도표에 화살촉지를 올려붙이던 옥실이가 내 쪽을 보며 비서동무에게 무어라고 여쭙고있습니다. 얼핏 들으니 부위원장이 3반에 정찰을 오는것 같다는것이였습니다.

<렘람하러 왔소? 어서 오우. 우린 이렇소.>

비서동무가 나를 불앞으로 이끌어주며 웃어보입니다.

<에 불이 사춘보다 낫다더니... 좋구나.>

나는 불을 한아름에 안고 들이기기라도 할듯 두팔을 벌리고 다가섭니다. 그 다음엔 뒀잔등을 돌려댑니다. 아, 좋기란...

<누가 불을 피웠는지 이 비에 용케 피웠수다.>



나는 혀를 참니다.  
 <1반에선 볼도 못피운 모양이네요?>  
 옥실이가 입을 나불거립니다.  
 <불이 다 뭐가 애, <사업수첩>만 다 태워버렸  
 다.>  
 옥실이가 짹짹대고 비서동무마저 쿵쿵거리며  
 웃습니다.  
 <사슴뿔다리에 얻어맞았더니 가슴만 얼얼하  
 다.>  
 내가 성냥까지 물에다 떨어던 소리를 하자 배  
 를 끌어안고 절이라도 하듯 까불까불하던 옥실이  
 가  
 <이만한 비에 불 하나 피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룡을 놓습니다.  
 <불은 비서동지가 피웠거든요...>  
 <거 정말 비서동무 불피우는 재간이 보통이 아  
 니외다.>  
 나는 불앞으로 점점 더 다가갔으며 담배쌈지를  
 꺼냈습니다.  
 불기운을 쫓아 살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보다는 비속에  
 불피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할수 있지. 그렇지  
 않나, 옥실동무?>  
 비서동무가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웁습니다. 요간 비에 불 하나 피우지 못하면  
 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길은 어떻게 지퍼올리겠나  
 요...>  
 <하하.>  
 옥실의 말이 비슷했던지 비서동무가 웃습니다.  
 <옥실이가 선동원이 되더니 말씨가 늘었다. 애,  
 너무 까불지 말아. 총각들은 입술이 얇은 체네를  
 좋아하지 않아. 담배종이나 좀 다구...>  
 일손을 땀 사람들이 불앞으로 떠들썩 모여들었  
 습니다.  
 모두 씩씩한 얼굴들입니다.  
 <어째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요? 반장동무.>  
 스치는 말처럼 했으나 따져볼 잡도리였습니다.  
 <애기어머니들을 내놓고는 다 나왔습니다.>  
 <애기어머니? 로력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야  
 성과가 나오? 집중해야지...>  
 <너무 다곳지 마십시오. 부득부득 나오겠다는  
 걸 억지로 떼놓았습니다.>  
 반장이 좋지 않아 투덜대는 품이 분명 비서동  
 무를 등대고 하는 배짱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  
 때문에 걱정하던 안해의 일이 또 가슴에 걸려옵  
 니다.  
 <동무 왜 이렇게 흠뻑 젖었소? 또 비옷을 벗었  
 구만.>  
 비서동무가 정남이라는 한 청년을 세워놓고 엄

하게 묻습니다.  
 <비옷을 입고서야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청년의 대답에 비서동무는  
 <모르는 소리요. 잔등만이라도 가리워야 하오.  
 다른데는 다 젖어도 잔등은 젖히지 말아야 하오.  
 잔등까지 젖히는 날엔 다요. 꼼짝하기 싫어진다  
 니까> 하고 깨우쳐줍니다.  
 둘러섰던 사람들이 비서동무의 말이 옳다고 응  
 수해나섭니다.  
 <잔등을 말려가지고 비옷을 쓰시오. 거치장스  
 러우면 저렇게 해야지.> 하며 반장동무를 가리켜  
 보이는데 정말 반장동무는 팔을 놀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비옷을 쓰고있었습니다.  
 <어쩡소, 정남동무, 이런 일이 처음이지? 헐치  
 앓을거요.>  
 <장마철에 강행군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닙니  
 다.>  
 그도 제대군인입니다. 합숙생활을 합니다.  
 <여기서야 옷이 좀 젖어두 저녁에 가면 따뜻한  
 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웁소, 웁은 말이요. 힘이 들 때는 그보다 더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쉬워지  
 는 법이요. 바로 그렇기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일  
 수록 항일투사들을 생각하는것이 아니겠소...>  
 어쩌면 같은 말을 해도 저렇게 가슴에 쿵쿵 박  
 히게 한탄말입니까.  
 정남동무가 쥐고있는 낫을 유심히 보던 비서동  
 무는 손을 내밀며  
 <어디 봅시다. 쟁기가 좋지 않구만.> 하며 자  
 기가 차고있던 낫을 바꾸어줍니다.  
 큼직하고 선들선들, 날이 선 옥심나는 낫입니  
 다.  
 <내 낫과 바꾸시오. 아주 가지시오.>  
 정남동무가 기뻐 어쩔줄 모릅니다.  
 <이 낫을 제게 주면 비서동진...> 하는데  
 <나야 풀을 베면 얼마나 베겠소. 구경삼아 이  
 렇게 한번씩 나올 때라야 써보는건데...> 하고 대  
 수롭지 않아합니다.  
 모두 선망의 눈길로 정남동무를 보고있습니다.  
 <정욱이 아버지, 그 낫을 거저 주겠습니까?>  
 어느 질투군의 심술궂은 목소립니다. 만식이라  
 는녀석이지요.  
 <값을 받아냅시다.>  
 <값이라니?>  
 <국수 있잖습니까? 국수는 다 말아놓은 국수인  
 데 시침을 따구 있거든요.>  
 <그렇소?! 그게 정말이면 풀어지기전에 먹어  
 주어야지, 새애기값이 누군데?>  
 비서동무가 호기심을 가지고 만식을 봅니다.  
 <자, 정남동무의 양말 빨아준 체네가 여기 나

갑니다.>

어느 처녀가 불앞으로 떠밀리워나오며 새된 비명을 지릅니다. 옥실이였지요.

<허허, 그렇구만...> 비서동무가 옥실을 보며 클클거립니다.

<저 경쟁도표를 보오. 어쩐지 정남동무가 제일 높이 올라간다 했더니 룡간이 있는것 같소.>

비서동무는 한술 더 뜨고있습니다.

<자 정남동무의 국수는 이따 먹기루 하구 대신 뭘 좀 있지?>

우유사발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우에서 물썬물썬 김을 뿜던 그릇이 물통인가 했더니 우유였습니다. 알고보니 축산반염소관리 공을 하는 비서동무의 딸이 와있습니다.

<비서동지, 례의로 하면 정옥이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올려야겠지만 오늘은 양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식이란놈이 우유를 퍼들고 등등거리며 옥실을 찾습니다.

<애개개.> 하며 달아빠는 소리.

나도 우유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동무, 3반이 괜찮지요?>

반장이라는너석이 빠기는 꼴이란...

<아따 이 잘난걸 가지구. 1반에선 돼지를 잡는 다. 염소젖에 대간?>

나는 이것이 룡말이 아님을 암시하고싶어 비서동무의 눈길과 마주치려고 애씁니다.

그 말에 비서동무 혼자 웃고있습니다. 뜨끈한 우유를 훌훌 불며 한모금 마시니 꼬부라들었던 뺨이 쪽 퍼이는것 같은게 좋습니다.

<에 좋다. 아가, 한사발 더 다구.>

나는 정옥이에게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사발을 받아드니 1반동무들을 두고 나혼자 먹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팍 걸리드군요. 불도 없이 휴식도 못하구 일만 하고있을것입니다. 하여 나는 사발을 도로 내밀며

<애, 정옥아, 다 먹지 말구 좀 남겨라. 1반에선 쫄쫄 굶는 판이다.> 하였습니다.

<넘려말구 드세요. 지금쯤 1반에도 도착했을거예요.>

정옥의 말이었습니다.

<거 정말이가? 누가 시키던? 아버지가 시키던?>

정옥이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는데 비서동무가 핑계를 대듯 말합니다.

<가족주의를 한다고 혈뜬는 판이군. 허허... 난 아무 상관이 없소. 축산반동무들이 한턱 내는거요.>

나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야겠다. 거기선 불도 못피웠는데 찬 우유를

마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덤벼칩니다.

<누구 성냥을 좀 빌리우.> 하며 비서동무에게 손을 내밀다가 <차, 비서동문 또 성냥을 안가지고 나왔겠지.>

하며 반장에게 돌아서는데

<있소, 가지고 나왔소.> 하며 비서동무가 웃으며 성냥을 꺼내줍니다.

<비서동무가 어떻게 성냥을 다 가지고 나왔소?>

그냥 받아넣기 싫어 한마디 했습니다.

<불이야 켜 땀 켜야지. 함부로 켜서도 안되지 만...>

의미가 깊은 소리였지요...

<마른나무가 좀 없는가. 한단 지고 가야겠는데...>

하며 헤덤비려니

<아니 1반이 어딘데 여기서 나무를 지고 간단 말입니다. 가는길에 아무 집이나 들러 가져가는 게 더 빠를 텐데요...>

하고 누가 일깨워줍니다.

<이리 오시오.> 이번에도 비서동무가 나를 한편으로 이끌어갑니다. 비서동무는 어느 풀단말에서 유지로 뭉그린 걸레몽치를 내주며

<기름걸레요. 동문 나보고 비속에서 불피우는 재간이 있다고 했지만 내라고 무슨 별다른 재간이 있겠소. 아침에 나올 때 차고에 들러 폐유에 적서가지고 나왔소.> 하는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불을 좀 피워야겠는데 헛치 않을것 같거든. 그래 차고에 들려오는데 어느 새 범령감이 이걸 보고

-아니 비서란 량반이 앞장에 서서 기름을 랑비해?->

하구 시빌 걸더란말이요. 허허... -폐유라두 제 공장에 보내면 새 기름이 되는지 몰라?-> 하구 말이요. 못들은척하구 내뺐소.>

나는 걸레몽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참 모든게 이 처럼 단순한데 난 왜 그런 생각을 못했단말입니까? 집앞에다 차고를 두기도말입니다. 1반에도 좋은 직판원이 있는데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저런 구호랑 경쟁도표랑 만들어가지고 나올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솜돌이 우리 집 마당에도 있는데 말입니다.

함부로 잡아서 안되는 돼지보다 바깥까만 들고 방목나가기전에 축산에 가면 남아돌아가는것이 염소젖인데... 우유가 없은들 일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더울 때 랑국먹는 셈으루 뜨끈한 생배추 국이라도 한사발씩 안겨주었으면 비를 맞고 일하던 동무들이 오죽 맛있게 들겠습니까.

안해가 진료소에 갔다가 늦어나오겠다고 할 때

에 그렇게 욕박지르지 말고 <좋소. 그럼 손둘에 미랑 같이 열시만해서 배추국이나 한동이 끓여가지구 나오우...> 했으면 남편된 도리도 되고, 애비된 마음도 좋고 일군된 체면도 서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작가선생, 차고가 집앞이 아니라 마당복판에 있다해도 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려면 거리가 있었지요. 그 거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윤상동무는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막 터지는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터지는것 같다.> 하길래 무슨 소리가 했더니 그날은 실지루 당해보았습니다. 오한까지 덮쳐 덜덜 떨며 쿵쿵 앓음소리를 내고 있으려니 안해가 끝내 왕진을 청했는가봅디다. 밤이 깊어서 동의사령감이 왔더군요.

<관절때문에 그런것 같지는 않은데... 오한이 나는가?>

동의사령감이 내 손목을 잡아 맥을 보며 물어봅디다.

찬비를 맞아서 그러는것 같다고 하는 안해의 말에 벌컥 역증을 내며 나는 가슴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심장이 터지는것 같수다. 심장이...>

<웁네, 심장에 무리가 가면 관절이 도지는 법이지. 병은 그 근원을 다스리라 했는데... 한때 맞아 보려나?>

아프지 않더군요. 도무지 아픈줄을 몰랐습니다. 허허, 침이라면 천길만길 뛰던 윤상이가 곰상 곰상 말을 듣자 동의사령감이 흐뭇해서 중얼거리더군요.

<이사람이 병을 떼자고 잡도릴 단단히 했군...>

작가선생, 거리라고 말했지요. 거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심장과 심장간에 생긴 간격이라 할는지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하나로 합쳐져 끓어야 하련만 유독 이 윤상의 심장만은 따로 놀았다 그말입니다.

나는 그들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나에게서 지도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였지요. 그럴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들은 나와 한피줄을 나눈 형제들이다. 아니 혈육의 피줄보다 더 고귀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다같이 지닌 혁명동지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제아들이 비를 흠뻑 맞고 바들바들 떠는데 가슴아프지 않을 아버지가 어데 있으며 제 아버지

가 따끈한 물 한그릇도 없이 한지에서 찬밥을 뜨는데 마음 편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서동무는 언젠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땃살된 손주녀석이 그만 발을 헛디더 토방우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며 우는 손주녀석을 보노라니 <저게 얼마나 아프면 저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을 쥐여뜯던 할머니가 토방에서 우정 굴러떨어져보았다는 이야깁니다. 허허...이래야지요. 이쯤은 왜야 한단말입니다....>

그가 일군이라면말입니다.

혁명동지를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친다고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것을 심장속에 깊숙이 묻어둘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느낌은 이렇게 컸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또는 하는 시늉만 해놓고서 남보구 하라고 해서야 됩니까. 제가슴엔 불씨 한점 없는 새까만 재를 안고다니면서도 남의 가슴에다 불을 지피주겠다고 했으니 불이 필게 됩니까? <사업수첩>이 아니라 부위원장의 방에 있는 문서보따리를 다 가져다 태운다 해도 불은 피지 않을것입니다. 불이 번지자면 불씨가 좋아야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젖은 나무도 탄답니다. 젖은 나무도말입니다.

나는 비서동무가 준 성냥을 젖지 않게 가슴속에다 꼭 품었습니다.

<불을 지피자. 내 가슴의 불부터 지피야 한다.>》

× ×

부위원장동무는 여기서 말을 맺었다.

그것은 가슴아픈 회고담이였다.

그것은 또한 지금은 이 자리에 없으나 자기를 오늘처럼 준비된 일군으로 손잡아 이끌어준 평범하고 소박한 농촌의 한 당일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비서동무를 만나보았어야 했을걸... 오늘 밤차에 오실수도 있습니다.》

윤상동무는 서운한듯 나를 따라 일어섰다.

《아닙니다. 비서동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험치 않을것입니다.》

이런 말로 이번 방문에 만족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긴 그렇지요. 허허, 불이나 좀 주교가시우.》

(운천에서)

# 통일의 이름으로 빛나는 땅에서

신병강

여기에선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다  
여기에선  
누구나가 버릇처럼 외운다  
통일!... 통일!...

무심히 듣지 마시라  
이교장 사람들이 부르는 저 이름  
《통일거리》  
《통일상점》  
《통일부락》  
《통일다리》...

내 잠시 생각노라  
피의 거리, 광주의 용사들이  
어깨걸고 그토록 절절히 부르던  
노래의 구절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겨레를 살리는 통일  
.....

온 남녘이  
온 북녘이 목청 합쳐 부르짖는  
통일!... 통일!  
그 념원이 여기 모이고 뭉치여  
분계선도시 개성땅에 차넘치는가  
통일!... 통일!  
너의 그 이름은...

아직도 자남산기슭 어느 기와집에선  
돌아오지 못한 남편과 아들을 기다려  
할머니는 30여년 빈방을 홀로 지켜온다  
통일의 그날을 기다려  
해마다 빨강게 맺히는 림진강가 감나무는  
벌써 서른한번째 꼭지를 물렀다

갈라진 혈육의 고통을  
어디보다 절통하게 겪고있는 여기선  
아이들 자동차놀이감조차도  
통일이란 그 이름과 떨어져 부르지 않거니  
세월이 갈수록 가슴속에 타번지는

이 땅 이 사람들의 간절한 념원앞에  
하늘땅 공간이여  
너는 그래 그리도 무정한것이었던냐!

여기선 들리는듯  
피타는 겨레들의 저 목소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겨레를 살리는 통일  
그 목소리 들으며 한달음에 달려가자면  
남녘이여, 너는 여기서 천리만리로 멀다

가야 할 길 찾아야 할 형제를 앞에 두고  
내 몇번이고 되새겨보는가  
아버이수령님 로작의  
그 어느 갈피 갈피에도 빠진적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 조국통일!  
인민에게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던...

그날은 오리라  
《통일호》기관차가 경의본선 로반을 타고  
다시 기적소리 울리며 질풍같이 달릴 그날  
《평양-서울》  
평서선의 동력 고압선이 다시 이어져  
온 남녘땅에 전류처럼 기쁨이 뻗어갈 때  
개성이여, 너는 그날에  
행복의 첫시점으로 빛나리니

오, 그날을 앞당기자고  
철의 기지 용광로는 더큰 숨결을 몰아쉬고  
먼바다 어장에선 고기를 퍼내며  
만선의 풍어기를 띄운다  
광부들은 막장속에 석수를 맞으며  
더 많은 탄을 차판 그득 떠나보내고  
병사들은 눈덮인 설령우에서 내리지 않는다

아, 개성, 개성!  
통일의 이름으로 빛나는 땅이여!  
여기서 남녘형제 제일먼저 얼싸안을  
눈물겨운 상봉의 그날을 맞으리라  
여기서 갈라진 비극이 컸던 그만큼  
행복의 웃음소리 더높이 울려퍼지리라

## 보호자

김형집

### 1. 일주일

며칠만에 정든 공장을 한바퀴 돌아본 초급당비서 김정희는 자기 사무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15일이라는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그였건만 산뜻한 오리우리며 소로길 하나도 한결 더 정다와보였다.

마치 보름이 아니라 몇달을 떨어져있을듯싶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가 생각깊이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방으로 들어섰다.

오래동안 자신의 생활관습대로 몸에 배고 어딘가 모르게 안정감을 주는 방이었다. 마침 주인을 기다리거나 한듯 귀익은 전화종소리가 반갑게 울렸다.

그는 려행용가방을 든채 선자리에서 넋지시 송수화기를 들었다. 상기도 향긋한 향수냄새가 풍겼다.

《김정희입니다. 아- 아바이구만요. 그새 잘 있었습니까?》

방금 들어서는 길입니다...

예? ...김상현동무가 자기 정당원취급날자를 한주일 미뤄달라고 제기해왔대구요?》

알깨우기작업반 세포비서아바이한테서 온 전화였다.

(정당원취급을 미루어달라고?...)

앞당겨달라면 몰라도 미루어달라고 요구하다니? ...

오래동안 당일군을 해오면서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그는 무겁게 매달리는 려행용가방을 책상우에 올려놓으며 침착한 어조로 되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포비서는 좀 빠른 말씨로 그사이 상현의 알깨우기기계제조안이 종합심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것, 그래서 곧 제작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자기설계를 스스로 부정해나섰다는것, 그리하여 현재 기대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 설계를 완성하고 정당원취급을 받게 해달라고 제기하여왔다는것이였다.

《.....》

김정희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그래 내 설계를 앞당길 생각을 안하고 정당원취급날자를 미루어달라는 그 마음에 침은 났습니

다만...》

세포비서아바이는 더 말을 하지 않고 혀를 찡찡 찼다.

김정희는 생각에 잠겨 책상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다독거렸다.

그는 경험있는 당일군의 육감으로 세포비서가 한 후보당원의 정치적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두고 안타까와한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 마음을 충분히 리해할수는 있지만 입당보증인으로서 비서아바이가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까.》

김정희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방에 들어서는 길로 부닥친 그 문제의 심중성과 무게를 새겨보듯 지그시 송수화기를 누르고 선 그의 눈앞에는 후보당원증을 받아안은 그날, 충성의 맹세다지던 상현이의 모습과 눈보라치는 지난 겨울밤 첫설계를 완성한 소식을 알리자고 당위원회에 찾아왔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작잡하게 갈마드는 생각에 잠긴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물었다.

그리고는 뒤집을 지고 천천히 방안을 오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일군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당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당원들을 사랑한다는것은 곧 교양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교양과 떨어진 사랑은 있을수 없습니다.》**

한참후에 탁상월력앞에 다가선 그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그간 제기된 사업내용을 훑어보았다.

밀린 일이 많았다.

지난달 총화와 새로운 포치사업, 당생활총화, 미진된 사업...

그는 머리속으로 사업을 설계하며 려행용가방안의 물건들을 책상우에 꺼내놓았다. 작업복이며 세면도구, 책들... 책도 여러가지였다.

새로 나온 장편소설들, 기술도서들인 《오리》, 《알깨우기편람》과 같은것들이였다. 그는 부피가 두꺼운 《알깨우기편람》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가 상현에게 주려고 일부러 책방에 들러 구매한것이였다.

(책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그가 이 편람을 갖다주면 얼마나 좋아할가!)

아직 인쇄잉크냄새가 풍기는듯한 책뚜껑을 소중

히 어루쓸고있노라니 그 책을 받아들고 좋아서 경충경충 될 상현의 모습이 서물서물 눈에 밝혀왔다. 그럴수록 그에 대한 측은한 생각과 함께 그의 안타까움을 빨리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온몸이 더워올랐다.

그는 휘넓은 방안이 일시에 좁아들고 목구멍에 갑자기 재불이라도 콕 들어찬듯 가슴이 답답하여 책을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차디찬 밤바람이 덮치듯 확-쏟아들었다. 그는 선뜩한 랭기를 느끼며 고개를 쳐들었다.

별무리가 김푸른 밤하늘에 찬란히 짝-홀렸는데 그 가녀의 몇몇 별들은 색이 부영게 바래있었다.

그런 별들을 보는 순간 김정희는 무엇인가 번개처럼 머리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어 저도 모르게 창문턱을 콕 그려쥐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저 별무리...

그 해빛을 받지 못하면 별들은 자기의 광채를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해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자기의 고귀한 삶을 더 활짝 꽃피울수 있는것이다.

바로 수령님과 당의 해빛을 지니고 그 해발이 되어 저같은 충성의 별무리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당일군들이 아니겠는가!

하다면 날로 늘어나는 별무리가운데서 간혹 생길수 있는 흑점을 제때에 발견하여 없애주지 못해 그 별이 내뿜어야 할 광채를 조금이라도 잃게 된다면 당일군으로서 그 이상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는가!

그것은 당일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것은 물론 그 빛과 열, 광채를 주시는 수령님과 당에 련결되고 그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통일되어있는 우리 당원들의 정치적생명에 오점을 남기고 발병의 근원을 만들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 병을 발생시킬수 있는 곡절을 보고도 순간이나마 지체한다면 그것은 당일군의 일본새가 아니지 않는가.

(그 일주일때문에? ...그만큼 미물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주자.

그 날자가 어떤 날자라구...영원히 당원중에 기록될텐데...)

김정희는 무거운 생각에 감긴채 책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 2. 날개

대수리가 시작된 알깨우기실은 불이 꺼져 캄캄하였다.

김정희는 모두 집으로 들어갔을것이라고 생각하며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저 맨끝쪽 마지막 알깨우기기대앞으로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

고있었다.

김정희는 반가움이 앞서 그리로 들어서려다 주춤거렸다.

큰 가시장처럼 생긴 그안에서 안타까와하는 상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이였다.

《...설겔 고치자구 해두 그렇구 어차피 이 날개야 뜯어내야 할게 아닙니까. 비서아바이!》

상현이 스파나로 기대천정에 달린 바람개비 볼트를 들어내리려는걸 세포비서가 떡 막아서고있었다.

《걸린건 날개가 아니야. 내 자네 의산 막을수가 없어 초급당에 반영은 했네만 그게 뭔가? 한번 맹셀 했으면 끝장을 볼 생각은 았구...》

《예? ... 비서아바인 너무하네요. 누군 뭐 다 통과된 설겔 또 고치고싶어 그러는줄 압니까? 나두 일을 더 잘하자는겁니다.

내 문제가 좀 늦어져두 그날을 더 뜻깊고 멋있게 맞기 위해서란말입니다. 그런데...》

상현은 억이 막혀 말을 더 잇지 못하는듯 스파나로 천정을 받들고 선 기둥을 광광 때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 숨은 영웅들처럼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영광의 대렬에 들어서겠단말이지...)

진흙속의 돌을 골라내려다 옥을 발견한 심정이였다. 그는 와락 달려들어가 상현을 붙잡고 잔등을 두드려주고싶었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는 그럴수 없었다.

세포비서아바이의 마음은 더 뜨거운것이였다.

김정희는 말없이 다가가 상현이옆에 책을 놔두고 수골한다고 손을 잡아주고는 다른말없이 돌아서나왔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이해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눈이였다. 그래 그런지 류달리 정답고 소담스러워보였다.

그러나 김정희는 그런 감상적인 기분을 털어버리듯 푸근한 눈이불이 깔린 나무사이길로 나섰다.

발목까지 움푹움푹 패여드는 눈우에 발자국을 찍으며 걷던 김정희는 문득 깨우치듯 조심스럽게 울리는 기침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세포비서아바이가 어쭙게 다가서고있었다.

뒤를 따르면서도 차마 찾지 못하고있었는지 그의 머리와 어깨에도 흰눈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잘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세포비서는 외출복차림으로 나왔다가 눈사람이 되어버린 초급당비서를 마주보지 못하고 퍼그나 송구스러워하였다.

김정희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잘 키웠습니다. 그에게는 당앞에 자신을 허심히 대하는 량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충성심입니다. 때문에 그가 일주일을 미루면 우

리는 일주일을 앞당기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앞당겨낼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것이 당사업이 아니겠습니까.》

《…………》

세포비서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하였다.

김정희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혼자말하듯 조용조용히 이야기하였다.

《당일군들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눈속에 묻혀버릴듯 세포비서아바이는 한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다.

출근길에 알깨우기실을 돌아보던 세포비서는 1호실마지막 기대앞에 이르러 우뚝 서버렸다.

분명 자기가 도로 천정에 붙여놓았던 그 바람개비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고 그 주위에서 상현이가 서성거리고있는것이였다.

필시 자기 몰래 때낸것 같아 세포비서는 울컥하는 속을 누르며 대바람에 달려갔다. 한데 상현은 오히려 세포비서아바이자신에게 묻는 눈치였다.

그러자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던 호실장이 그들에게 초급당비서가 떼놓았다고 귀띔해주었다.

《…??…》

놀라는 그들에게 처녀는 초급당비서가 자기와 기대개조문제를 의논하다 새벽녘에 《4. 15기술혁신돌격대》 쪽으로 갔다고 자랑삼아 덧붙이는것이였다.

(무작정 떼놓다니?…더 동요할수 없게 만든것이 아닌가.)

막상 일을 당하고보니 세포비서아바이도 상현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상현은 우두커니 서있는 세포비서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세포비서는 창너머로 눈길을 돌렸다.

아침해살이 서리꽃 하얗게 핀 가로수사이로 부채살처럼 눈부시게 비쳐내리는 《4.15기술혁신돌격대》 앞길로 초급당비서가 기계부속을 실은 손수레를 밀고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달려오는 상현을 보자 힘에 겨운듯 가로수에 꽂 의지해섰다.

그러자 곱게 피였던 서리꽃이 좌르르 쏟아져내렸다.

그는 흥에 뜬 아이처럼 고개를 활짝 위로 젖히고 아침해빛에 눈부시게 은빛금빛으로 부서져내리는 눈서리를 얼굴한가득 받으며 기쁨에 넘쳐 웨치듯 말했다.

《상현동무. 이렇게 하면 날개각도 문제가 풀릴것 같네.》

그는 흥분을 식이지 못해 엎어질듯 다가서는 상현이를 붙어잡고 눈우에 뚫어앉았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다짜고짜 눈우에 바람개비형태를 그

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벌써 날개각도문제를 풀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쯤 깨우쳐주면 상현이 자신이 능히 비결을 찾으리라고 믿고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필요하였다. 당비서는 그 모든것을 헤아리고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함께 손수레손잡이를 밀면서 걸었다.

상현의 마음은 날아갈듯 가벼웠다. 최대한 한주일을 목표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것이 이렇게 앞당겨질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실로 꿈같았다. 행복한 꿈속길을 걸어가는것만 같았다.

《상현동무. 비서동문 동무가 정당원취급날자를 미루자고 제기한데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하고있더군. 어제저녁에 또 찾아왔댔소. 동무의 아름다운 마음을 충분히 리해할수 있다고 했소. 그러나 당원중에 기록할 그 날자에 대한 비서동무의 생각은 심각했소. 동무의 말을 듣고 그날밤을 새웠단말이요. 동무는 그것을 모르고있소. 이제 그걸 알게 될게요. 온 공장을 붙여주겠으니 이틀동안에 와딱딱 해제끼시다.》

상현은 상기된 얼굴을 들었다.

《제가 웅졸했습니다. 비서동지, 자기자신에 대해 당조직에서처럼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침 불끈 솟아오른 아침해가 그들을 밝게 비쳐주었다.

### 3. 입당년월일

하루…이틀…이날도 거의 저물어갈무렵이였다.

알깨우기기계개조가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이일을 도와 현장에서 밤을 패는 《4.15기술혁신돌격대》를 비롯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를 이겨낸 기쁨이 어려있었다.

휴식시간에 공무동력과장이 초급당비서가 당위원회에서 숨은 영웅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아 남모르게 큰 일을 하고있는 상현동무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알깨우기기계개조공사를 와딱딱 끝내여 그의 정당원취급을 더 뜻깊게 해주자고 호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상현은 복받치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현직교시판앞 정문에 크게 써붙인 구호의 붉은 글발이 안겨왔다.

(아. 얼마나 고마운 우리 당인가!)

그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속으로 벌써 깨끗한 위생복을 입고 자동종합배전반앞에 앉아 기대를 운전하는 알깨우기공들의 모습이 어려왔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였다. 이제 몇시간후면 꼭 그렇게 될 현실, 너무도 가까운 현실이였다.

현장안은 바야흐로 들끓어번지였다. 그 모든것이 오늘 한 당원의 탄생을 위하여 있는듯싶었다. 저쪽에서 초급당비서 김정희와 세포비서아바이가 서서 상현이를 바라보았다.

김정희는 다시 들어와 일손을 잡는 상현에게서 눈길을 돌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오늘이 제일 기쁜 날입니다. 기대도 만들구 사람도 키우구. …보십시오. 저 동무가 더 의젓해보이지 않습니까. 무게 있구…참 저 동무 취급날자가 언제던가요?》

김정희는 세포비서를 쳐다보았다.

세포비서아바이는 그가 몰라서 묻는것이 아님을 알고있었다. 김정희는 날마다 새 기대, 새 인간을 낳는 우리 생활을 자랑하고싶고 거기에 묻혀사는 자신이 무한히 행복스러워 지금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세포비서아바이는 그날이 바로 래일이라고 대답하였다.

《래일이라. 래일!…세포비서아바이, 정당원취급날자는 단순히 당원증에 기록하기 위한 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인간의 탄생을 적는 뜻깊은 시각입니

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생일은 잊어두 그날만은 잊지 않고있습니다. 나두 불타는 전호가에서 새겨진 입당날자를 어려울 때나 행복할 때나 늘 추억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우리 당의 한 당원의 탄생을 알리는 그 날자를 하루가 아니라 한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 날자는 영원히 그의 정치적생명과 함께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뜻이 깊게 오늘로 앞당기자는것이였다. 훌륭한 말이였다.

현장은 한층 더 줄기차게 끓어번지였다.

사람들은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한결같이 인사를 하였다.

김정희는 밝게 웃는 그들에게 행복을 더해주듯 따뜻한 미소를 보내었다.

《아바이, 우리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로 일을 더 잘해서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드립시다!》

(아,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세포비서아바이는 뜨거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몇 번이나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였다. …

사람들은 이들을 바라보고있었다.

## 한줌의 비료에도

석광희

안아보면 좋으랴

쓸어보면 좋으랴

비료여 비료여

출하장에 내리며 내려쌓이며

산처럼 솟는

그 한줌 손에 쥐고 귀기울이면

들려와라 반가운 봄비

자꾸만 자꾸만 보스락이는 밤

평상모판 아늑한 비닐박막속

비료의 단젓 빨고 잠을 자는듯

파아란 애기모의 새근거림이

떠올라라 떠올라

프락포르 흥이 나서 달리는 벌에

한줌 두줌…

이삭비료 뿌려주는 처녀를 반겨

어리광치는 푸른 벼포기

그 설레임 비껴담고 기쁨을 담고

풍년가을 그려보는 그 눈동자

알알이 영글어 한껏 설레는

황금빛 벼바다에 잠길듯말듯

붉고푸른 벼수확기 어깨나란히

가쁜히 베여가는 이삭의 향기

가슴이 부풀도록 넘쳐나도록

쥐고 선 한줌비료에서 뿜어나거니

안아보자 다시 또 다시

안아보니 그대로 하얀 옥백미

쓸어보자 다시 또 한번

쓸어보니 그대로 보드라운 쌀가루

아,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이 될

억만 낱알의 무게가 실려있는

비료여 비료여

세상 더없이 소중한것이어.



## 앞서간 자옥 외1편

로승모

밤새도록 내린 봄비에  
깨끗이 씻기운 포전길  
랭상모판으로 가는 길우에  
자옥자옥 찍혀진 발자국 하나,

수수한 로동화를 신고  
신새벽 모판으로 나간 발자옥  
오늘도 소조원동무 먼저 나갔다고  
농장원들 속삭이며 따라서누나,  
처녀들 땀시 고운 장화자옥 찍으며  
제대군인 두툼한 군화자옥 찍으며,

넓고넓은 농장벌, 곧게 뻗은 들길에  
오가는 사람도 하얗으련만  
농장원들은 그 발자옥 가려볼줄 아는가  
마음속에 기억속에 그 자옥이 남아서...

만풍년의 한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가는 사람들이  
어찌 발자옥만을 알아보랴,  
그대 안은 생각  
땅에 대한 사랑이  
포전마다 이랑마다 넘쳐남을 보는구나

양지끝에 우등불 피워놓고

언무지 헤치며 부식으로 마련할 때,  
눈석임물 흐르는 진펄가에서  
굴착기 몰아가며 새땅을 찾아갈 때  
사람들은 볼수가 있었구나  
그대 남긴 자옥이 얼마나 큰것인지...

오, 그대 남먼저 걷는 그 자옥이 있어  
농장원들의 꿈은 꽃으로 피어나고  
그대 찍어가는 자옥마다 생각 뜨거워  
이삭들은 고개숙여 무르익으리라

농장벌에 찍힌 그대 발자옥  
세월의 눈비에도 지워질수 없으리  
난알의 무게를 실어  
행복의 무게를 담아  
그리도 깊숙이 새겨있거니

언제나 젖은 흙 물은  
수수한 로동화자옥 앞서간 그 자옥은  
만풍년의 길잡이로  
새생활의 길잡이로  
영원히 이 벌에 남아있으리  
갈래 많은 들길에 찍힌 무수한 자옥들을  
수령님 바라시는 그 한길로 이끌며

## 그 어디에 있느냐 소조원 그대여!

앞내벌에 모내기 끝낸 이 저녁  
바람결 싱그러운 동쪽우에 모여앉아  
마음도 후련히 푸른 벌 바라보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보이지 않느냐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친근한 소조원동무여!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가 펼쳐놓은 푸른 벌  
은빛같은 저녁별도 우리를 반기는데  
그대는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느냐.

오, 잊을수 없어라  
써래치던 논벌에서 트랙포르 밟었을 때  
남먼저 부속안고 달려온 그대  
비바람 세차던 그 새벽에도

애기모 지켜서 밤새 우등불을 피웠다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  
언제나 빠짐없이 곁에 있었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불러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그대,

모내기 끝낸 이 저녁도  
기계가 남겨놓은 귀잡이 찾아  
빈자리에 모를 쫓는가  
어둠속에 보이지 않아도  
성실한 그대 모습  
하늘의 별들이 지켜보고있으리

남먼저 첫이랑 타고  
작업반 우리들을 이끄는 그대

강냉이영양단지 선참으로 옮긴  
경쟁총화의 그 밤엔 우릴 앞세우고  
그리도 기뻐하던 소조원동무

아, 언제나 즐거울 때마다  
결에 없는 그대를 소리없이 불러본다  
잠시 떨어져도

그 목소리 듣고싶고  
그 모습이 보고싶어...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주고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그대  
그대는 그 어디에 있어도  
우리 마음속 가장 가까운곳에 있어라

## 타오르는 불길앞에

### 서봉제

벌써 그 몇번  
내 지퍼가는 우등불  
타오르는 불길앞에  
어쩌면 생각은 이리도 뜨거운가

그리움에 불러보던  
나의 동무여  
오늘까지 그대의 소식  
내 알길 없고  
사연깊은 편지 한장 보내온적 없더니

아, 간석지의 이 밤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내 문득 펼쳐든 당보  
치솟는 언제의 높이와 함께  
위훈으로 받들린 그대의 이름을 두고  
내 온밤 잠들수 없구나

이 가슴에 당이 안겨준  
첫 파견장을 품고  
고향의 서문천기슭을 거닐며  
너와 나 길지 않은 말속에  
뜨거운 약속을 새겼더라  
보람찬 위훈 안고 다시 만나자고

환송의 꽃바다 물결치던  
역광장의 연단위에  
불같은 맹세를 쏟으며  
우리 서로 꽃뭉음을 받아안을 때도  
마음은 벌써 그날의 위훈으로 내려쳤거니

해풍설레는 바다가 천막에  
돌격대의 첫 배낭을 풀어놓고  
내 잠못들던 그 밤에도  
개꼬막이 격전을 승리로 끝내고  
얼음낀 작업복을 쥐어짤 때도

그대의 다정한 속삭임 뜨겁게 울렸더라

약속을 버림은  
우정을 잃은것  
우정을 잃으면  
시대의 격류속에 밀려나는 물거품처럼  
어제날의 아름다운 추억도  
노래없이 사라지는것이니

당이 안겨준 그 믿음  
사랑과 은덕만을 받으며  
다 자란 이 젊음,  
불붙는 우리의 심장을,  
값높이 빛내여갈  
오직 한마음

청춘언제를 쌓으며  
바다 멀리 제방을 쌓으며  
과도쳐 설레이는 금나락의 물결  
고압선이 뻗어간 첩탑의 숲을 보노라

오, 그때문에  
청춘의 우정은 뜨겁고  
타오르는 우등불처럼  
우리의 약속은  
조국땅에 만년기념비로 솟아오르나니

멀리 헤어져도  
언제나 함께 사는  
사랑하는 나의 벗들아  
청춘시절의 한생각  
어버이수령님 바라시고  
당이 바라는 그 길우에  
별이 되어 함께 빛을 뿌리는  
이보다 더 숭고한 삶을  
우리 더는 몰라라!

## 민요첩을 펼치며

김우경

지난해 가을 어느날, 나와 민요연구사 박동무는 달리는 남행열차의 어느 한 차창가에 마주앉아있었다. 나는 서해지구의 어느 제철소에 청년용해공들의 생활을 취재하러 가는길이었고 박동무는 민요를 수집하기 위해 어느 한 기계공장으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차안은 밝고 명랑하였다. 우리들의 건너편 의자에는 신혼여행을 떠난듯싶은 한쌍의 부부가 마주앉아있었다. 그들은 기차에 오르자부터 시종 이마를 마주대고 무엇인가 끝없이 속삭거렸다. 새신랑의 얼굴에선 연신 웃음이 떠날줄 몰랐고 새색시는 웃을 때마다 흰 이가 살짝 비껴 보이는 입에 원앙새가 그려진 파란 손수건을 가져다대곤했다.

무슨 이야기가 저리도 많을까?

손님들은 방해가 될가봐 그들의 옆에 빈자리를 남겨놓았다.

야영을 가는듯 등산모를 쓴 소년단원들이 차창밖에 날아에는 제비들을 잡을것처럼 포충망을 휘둘러대다가 열차원의 엄한 주의를 여러번 받았다. 그러나 그 애들은 좀처럼 가만 있지 못했다.

열차방송에서는 경쾌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행복이 빛이나  
그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  
행복은 우리  
...

한마디로 열차는 행복의 도가니, 기쁨의 덩어리였다.

직업적인 타성이랄가, 나에게는 어느 동화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행복》으로 벽을 쌓고 《기쁨》으로 지붕을 엮고 《웃음》으로 창문을 해단 그런 집이 있던단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 이 열차는 거기에다 《랑만》의 굴레바퀴까지 해단것이 아닌가!

나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며 가슴이 부풀어올라 저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불렀다.

솔직히 말해서 열차안의 행복한 분위기에 휩싸여 나의 기분은 들떠있었다.

그러나 나의 동행자-민요연구사 박동무는 오르자부터 무슨 책인지 펴들고 거기에 온 정신을 쏟고있었다.

나는 박동무가 무엇을 하는가 해서 그가 보는

책을 넘겨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박동무는 출장길에서마져 수집된 민요를 주제별로 가르느 작업을 하고있었다.

(민요연구사업도 매우 바쁜 모양이구나.)

하기야 그럴수밖에, 민족적인 우리의 음악은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발전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니 더 많은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문제는 비상히 높은 수준에 이른 오늘 우리의 음악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다.

박동무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민요는 실로 수천곡을 헤아린다고 했다.

그 가운데 모내기과 관련한 노래만도 수십가지나 된다는것이다. 그런데 그 민요들은 오늘 우리의 모내기전투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부른 모내기 노래들에는 자기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한탄과 울분이 어려있었고 고된 로동에 대한 모대김의 흔적이 있었다.

이런 민요들이 어떻게 발동소리 울리며 흥겹게 풍년모를 꽃아가는 오늘의 협동벌에서 불리울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와 더불어 민요도 행복한 생활감정을 반영한 새시대의 노래로 발전하고있다.

연하고 부드럽고 우아한 민족음악의 우수한 특성들을 살리면서 그것을 오늘의 혁명적인 주체예술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발전완성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음악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지 않는가.

차창밖엔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이따금 불야경을 이룬 대도시들의 장엄한 광경이 차창밖으로 얼썩얼썩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또 새 손님들이 올랐다. 나는 의자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아 눈을 감았다.

이때 나의 뒤쪽 어디선가 처녀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손품금소리에 맞춰 그윽한 정서를 타고 울리는 민요조의 그 노래는 나에게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창포 무성한 호수가의 아늑한 여름날의 저녁과 청춘처럼 기운차고 티없이 맑고 명랑한 겨울날,

눈우에 오종종 난 강아지 발자국, 안개가 피어나는 봄날의 아침노을... 이러한것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노래의 세계에 깊이 이끌려들어간 나는 이런 노래를 민요연구사가 어떻게 감상하는가 하는 호기심이 생겨 부지중 그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책속에 깊이 파묻혀 민요를 더듬고있던 박동무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그 노래의 선율을 따라 벌써 그리로 갔던 것이다.

(역시 전문가가 다르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뒤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혜옥동무!》

《선생님!》

돌아보니 박동무가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처녀의 손을 맞잡고 반갑게 흔들고있었다.

박동무는 처녀의 손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와 나에게 소개하였다.

그 처녀는 박동무가 찾아가는 그 기계공장의 예술소조원이라는것이였다.

몇해전에 있는 전국로동자예술축전에 심사위원으로 동원되였던적이 있는 박동무는 거기서 민요독창을 부른 이 처녀를 알게 되였다고 했다.

처녀는 매우 명랑하였다. 박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손을 가슴우에 포개었고 영채도는 눈망울을 깜박일 땐 틀림없이 천진한 소녀였다.

그의 웃음엔 자그마한 티도 구김살도 없었다.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길입니까?》

《동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길ियो.》

《예?! 우리 아버진 다음 차간에 타고계시는데요.》

생활엔 가끔 이런 우연도 있는것이다.

이윽고 처녀는 아버지를 데리고 나타났다.

박동무는 처녀의 아버지와 이미부터 알고있는 사이인듯 퍼그나 반갑게 만났다.

불길에 탄 거무스름한 얼굴, 마디 굵은 커다란 손, 이것은 오랜 단조공임을 말해주었다. 성격이 과묵한 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다. 일생에 말보다 노래를 더 많이 불렀다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서도민요를 많이 알고있었다.

그래서 박동무가 바로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길 이였다. 이번에도 그들은 도예술경연대회에 온 가족이 출연하고 돌아오는길이라는것이였다.

《전번에 테프가 모자라 채 록음하지 못한 민요를 마저 잡으려고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박동무가 말하자 이런 일을 여러번 겪어본 아버지는 벌써 기침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휴대용록음기를 의자우에 올려놓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은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흥미있는 구

경거리가 생겼다는듯 빙 둘러 진을 쳤다.

《이런 노래를 여기서 불러도 일없을가.》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빙긋이 웃다가 용기를 내듯 다시한번 기침을 하고는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였다.

아버지가 부르는 민요의 애절한 선율에는 기막힌 생활을 강요당한 선조들의 울분과 한탄이 비껴 있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울려나오던 밝고 명랑한 노래와는 너무도 대조되는 선율이였다.

아버지의 노래는 끝났으나 누구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 달리는 기차의 단조로운 진동음과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들릴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등산모를 쓴 소년단원들도 부동의 자세로 서있었고 신혼부부도 이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심각한 얼굴로 덤덤히 앉아있었다.

행복의 파도만이 가슴속에 물결치던 그들에게 아버지의 노래는 그만큼 강한 충격을 준것이였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렬차방송에서는 방송원의 격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방송에서는 남조선의 울산이 《공해의 바다》, 《죽음의 땅》으로 되였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했다.

울산!-이 말은 나의 가슴에 또다시 강하게 미쳐왔다.

나는 언젠가 취재길에서 만난 울산에 고향을 둔 한 의용군출신의 아버지한테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절감했던적이 있었다.

《우리 고향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지요. 뒤산엔 밤나무가 우거지고 앞바다엔 물이 맑아 갖가지 고기떼들이 모여든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고온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사무치게 그리워 집니다.》

그 아버지가 한 말이다.

동해나 울산은 밤나무그늘

경치도 좋지만 인심도 좋구요

.....

아득히 먼 옛날, 룽지가 꺼져내려앉은곳에 바다물이 들어와 이루어진 울산만,

우리 선조들은 울산이 살기 좋은곳이라 하여 장생포라고 부르기도 했고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지 않았던가?

그러던 울산이 오늘은 《공해의 바다》, 《죽음의 땅》으로 되다니?

남조선피뢰도당은 일본에서 쫓겨난 오몰단지인 6가크롭산 생산공장을 끌어들였다는것이다.

크롭광산도 없는 남조선땅에 살인무기를 만들려고 일본인민들에게서까지 쫓겨난 6가크롭산공장을 끌어들여 공해병을 퍼뜨린 피뢰도당들의 죄행은 천추에 씻지 못할 범죄행위이다.

어디 가도 파란 물결이 보인다면 동해나 울산

의 그 맑은 물은 오늘 어디로 갔는가? 유명한 울산의 밤나무그늘은 어디로 가고 인심이 좋아 마음이 열두꼭치마라는 울산의 큰애기는 또 어디로 갔는가?

고향에서 쫓겨나 노예선의 갑판우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그 피타는 웨침속에 울산의 큰애기들의 목소리도 함께 울리지 않는가?

나의 눈앞엔 그 아바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아바이의 가슴은 또 얼마나 저릴것인가?

남북 삼천리, 이 강산의 복녘하늘엔 행복의 노래 끝없이 울려퍼지는데 남녘땅엔 민요도 사라진 황폐화된 죽음의 땅, 노래도 없는 인간생활의 동토대로 변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한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이었다.

따라서 생활도, 풍습도, 감정도, 비위도 같은 하나였다.

이것은 한민족의 감정에 맞는 하나의 선물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나라도, 민족도, 풍습도, 생활도 둘로 갈라졌으니 선물마저 또한 둘로 갈라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절대로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엄하고도 절절한 말씀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된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의 표명이며 분렬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철석같은 의지와 결의의 표명이다.

이 숭엄한 말씀은 통일이나 분렬이나, 애국이나 매국이나를 결정하는 책임적인 이 역사적시각에 삼천리강토에 생을 받고 태어난 모든 량심있는 사람들을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광장으로 뜨겁게 불러일으키는 절절한 역사적호소이다.

사람들의 가슴마다엔 통일의 열망이 굵아쳐흐를렀다.

나는 박동무의 민요수집책을 펼쳐들었다.

실로 수백수천곡의 민요가 꽉 들어차있었다.

《삼천리의 민요가 다 있구만.》

《아니요. 남반부민요는 아직 많은것이 수집정리되지 못했소.》

이렇게 말하는 박동무의 목소린 흥분으로 하여 저이기 떨렸다.

하나의 선물에도, 우리 생활의 그 어느 구석에

도 민족분렬, 조국분단의 쓰라림이 어려있다.

노래조차 둘로 갈라졌다. 행복의 노래와 원한의 노래로.

한평생 소작에 등뼈만 휘구요

삼사십 총각에 설음만 나누나

.....

한 남조선혁명가를 통해 수집했다는 이 민요는 얼마나 가슴을 어이는듯한 애절한 노래인가.

이런 구슬픈 노래들이 아직도 남조선의 하늘땅 위에 울려가고있으니 얼마나 가슴치며 통탄할 일인가.

행복의 노래만을 부르고 그 노래에 귀가 젖어온 우리들이기에 그만큼 귀설은 저 노래는 가슴을 더 허비는것이다.

우리 나라는 산천이 수려하고 아름다와 《양산도》와 《도라지》같은 아름다운 민요도 가지고 있고 동해나 울산의 우수한 민요들도 많이 가지고있다.

그러나 울산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였고 광주와 목포는 겨레의 피로 바다가 되어버렸다.

오늘은 또 신문이 남조선 강원도 명주군의 목호향이 《울음바다》로 변했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했다.

기근지대로 변한 남조선땅에서 아름다운 민요는 다 사라지고 보리고개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원한의 새 민요가 나왔다고 한다.

노래는 생활의 반영이다. 전대미문의 민생고에 허덕이고있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이런 노래밖에 더 나울것이 있는가!

그러나 미구하여 이 원한의 노래, 저주의 노래는 미제와 괴뢰도당들을 쓸어버리는 투쟁의 노래, 혁명의 노래로 온 남녘땅을 진감하며 기운차게 울려갈것이다.

바다를 끼고 달리던 기차는 어느덧 역에 와 몇고 아바이일행은 모두 내렸다.

박동무도 그들과 함께 내렸다.

그러나 차안엔 여전히 숭엄한 정숙이 깃들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깊은 사색에 잠겼다.

민요 3천리! 그렇다. 박동무의 민요수집책에 《민요 3천리》란 이름을 당당히 달수 있을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남북의 온 겨레가 하나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살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렬차는 남으로 기운차게 달렸다.

사람들의 마음도 통일에 대한 열망을 안고 남으로, 남으로 달렸다.

## 나의 선생님

신용선

그것은 참으로 뜻밖이었다.  
나의 심장은 견잡을수 없는 흥분으로 하여 높  
뛰었다.

이젠 다섯번도 더 읽어보아 마지막 토한자까지  
머리속에 뒹한 편지를 나는 또다시 펼쳤다.

그 어떤 수식사도 없는 간단한 내용의 편지였  
다.

레사로운 안부와 스승으로서의 점잖은 훈시 그  
리고 마지막엔 기회를 얻어 한번 찾아가겠다는것  
과 함께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  
고있는 공장자재인수원이라는것을 덧붙였다.

나는 선생님의 은근한 《암시》에 가볍게 웃으  
면서 장의자 한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주먹코  
자재인수원을 쳐다보았다.

검질기기로써 소문난 자재인수원이었다.

계약된 자재를 2달씩이나 앞당겨 달라고 어찌  
나 성화를 먹였던지 공장판매과장은 어느날 울상  
이 되어 나를 찾아왔었다.

계약된 자재이긴 하여도 기일을 앞당겨주는것  
은 질서를 위반하는 일이며 또 그것은 판매과와  
자재과 일군들에게 내가 제일 강하게 요구하는  
문제였던것이다.

하지만 공장 생산량에 비하면 그가 요구하는  
인발판 2톤은 너무나도 적은 량이였고 더우기 하  
도 성화를 먹인다가에 래달초에 보장해주라고 판  
매과장한테 지시를 주었던것이다.

그것이 일주일전이다.

그런데 그것조차 미덥지 못해 이번엔 이런 편  
지까지 들고 또 나타났던것이다.

이악하고 수완있는 사람이였다. 또한 고마운  
사람이였다.

그가 가지고온 편지가 나를 이토록 기쁘게 하  
여 주었던것이다.

나는 공장판매과를 찾아 수화기를 들며 아까  
물었던 말을 또다시 곱씹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젠 몹시 늙으셨겠구먼...》  
벌써 세번째 묻는 말이었다.

《늙다니요? 아직도 운동장에서 뿔을 다 차는데  
요 허...》

자재인수원의 주먹코가 더욱 짙은 주홍빛을 띠  
었다.

《허-사람두... 이젠 년세가 어떻게 되기에... 예  
순도 넘겠는데...<아, 판매과장동무요- 공장창고  
에 인발판이 얼마나 있소... 3톤이라... 음 그중에

서 2톤을 락원악기공장에 주시오...식료공장엔 래  
달에 줍시다... 고집을 부리지 말고 먼저 주시오.  
내가 곧 그 공장 자재인수원동무를 그리로 보내겠  
소...>》

나는 수화기를 놓았다.

자재인수원은 얼굴에 어쭙은 미소를 지으면서  
몹시 송구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지배인동지, 우리 공장엔 약속대로 래달에 주  
십시오. 실상은 그것때문에 온것이 아니라 지구  
자재상사에 다른일 때문에 왔다가...》

《허- 인수원동무가 한수 더 뜬다... 빨리 가보  
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수원의 말을 밀막아버  
리며 손을 들어 출입문쪽을 가리켰다.

자재인수원은 너무 기뻐 어쩔줄을 모르면서 방  
에서 나갔다.

겨끔내기로 울부짖던 전화종소리도 뜸해졌다.

해종일 봄비던 방안에 고요가 깃들었다.

나는 뒤집을 지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공장구내에 어둠이 자리를 펴기 시작하였다.

전기로의 불빛은 별들이 여물어가고있는 밤하  
늘을 붉게 물들이고 드넓은 공장구내 그 어데라  
없이 불빛바다가 펼쳐지고있었다.

거창한 철의 기지의 숨결과 음향이 열어젖힌  
창문으로 흘러든다.

나는 담배연기를 폐장깊이 마시면서 마음속으  
로 편지를 또다시 읽었다.

곱씹어 읽어갈수록 나의 눈앞엔 잊을수 없는  
한 초상이 짙은 명암으로 우렁이 떠오른다.

그것은 인민학교시절의 교장선생님의 얼굴모습  
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30년가까이 흘렀건만 선생  
님은 너무나도 생동한 모습으로 나의 기억속에  
살아있다.

유쾌하게 웃을 때면 처너처럼 파르르 떨리던  
속눈섭조차 그대로 안겨오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  
님...

나의 첫 담임선생님...

.....

나의 고향은 마천령산맥의 막바지, 50호 남짓  
한 화전촌이였다.

나는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

해방과 함께 처음으로 지은 인민학교에 입학하  
였을 때 나의 첫 담임선생님은 학교 교장이였다.

학생이 모두 합하여 20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학교에 교원이라곤 단 두명, 얼굴에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상냥한 녀선생과 교장선생뿐이었다.

첫 수업이랄까? 아니면 유희랄까? 유희라고 하기엔 지금까지 너무나도 강한 인상을 준다.

하여튼간 내가 할머니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교장선생님은 신입생 우리들을 키순위로 나란히 세워놓더니 《학생들 나를 따라 붙잡으시오.》 하고는 운동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뛰어가는것이였다.

그때의 선생님은 30안팎의 젊은 나이였다.

우리들은 처음엔 영문을 몰라 저저마다 어리둥절해있다가 누군가의 선창으로 와-합성을 지르면서 선생님의 뒤를 종주먹쥐고 달렸다.

산골에서 나서자란 우리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달리기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교장선생님은 우리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떼구어놓고는 여전히 앞장서 달렸다.

운동장에서 학부형들의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우리들은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면서도 달리고 달렸다.

그러나 짧은 다리는 교장선생님을 도저히 따라잡을수 없었다.

선생님의 긴 다리가 부러웠다.

나는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붙잡을수 없다는것을 간파하고 군사놀이 할 때처럼 아이들을 두패로 나누어서 선생님을 앞뒤로 《포위》해 들어가게 하였다.

나의 《기발한》 꾀는 대단히 효과적이였다.

어느덧 교장선생님은 우리들의 《포위》 속에 들게 되었던것이다.

내가 맨 먼저 교장선생님의 옷소매를 붙잡으려 하는 순간 선생님은 몸을 숙구며 철봉대우에 훌쩍 뛰어오르는것이였다.

그것은 상급생형님들을 위하여 세워놓은 키높은 철봉대였다.

우리들은 작은 키를 발돋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먼거리에서 뛰어와 높이 도약하면서 철봉대우에 오른 선생님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는 그때처럼 작은 키를 원망해본적은 없었다.

아마 그것이 빨리 자라야겠다는 나의 첫 충동이였을지도 모른다.

어느덧 선생님은 우리들을 두팔에 안아 차례로 철봉대우에 올려 세워주었다.

나는 그토록 높이 쳐다만 보이던 철봉대우에서 멀리 고향집과 얼굴엔 웃음을 지으면서도 연신 저고리고름끝으로 눈굽을 찍어내는 할머니를 내

려다보면서 손을 흔들었다.

그다음날 첫 수업은 음악시간이였다.

나는 상급반형님들을 통해 교장선생님이 풍금을 대단히 잘 탄다는것을 오래전부터 알고있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열손가락이 희고 검은 건반우로 미끄러져나갈 때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나오는것을 나는 황홀하게 지켜보았다.

선생님의 열손가락끝에서 울려나오는 풍금소리는 어린 우리들의 가슴속에 밝고 신선한 대기 그리고 샘줄기와 같이 쟁쟁하고 정가로운것을 가득 채워주었다.

휴식시간에 나는 선생님처럼 발디디개를 조심스럽게 밟으면서 건반을 짚어봤건만 왕청같은 소리만 튀어나와 어찌나 당황하였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나는 아침마다 깎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 정겹게 웃으시면서 더벅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선생님의 그 부드럽고 살뜰한 손가락들을 신비하게 쳐다보곤하였다.

하지만 그 웃음과 손길은 언제나 정답고 살뜰한것만이 아니였다.

2학년때였다.

나는 장난이 세차기로 소문난 장호와 한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였다.

그 애는 강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산열매를 따는데서는 학급적으로 첫손가락에 꼽혔지만 공부에서는 맨 꼴찌였다.

선생님은 최우등생이며 분단위원장인 나를 그래서 그 애와 한책상에 앉혔는 모양이였다.

어느날 아침이였다.

나보다 학교에 먼저 온 장호는 울상이 되어 자기의 짧은 글짓기 숙제를 하여달라고 간청하는것이였다.

잘 익은 밤알들을 나의 호주머니속에 자꾸만 밀어넣으면서...

그렇만도 하였다.

전번 국어시간에도 숙제를 해오지 않아 선생님한테서 된구중을 들은 장호였던것이다.

나는 처음엔 거절하다가 며칠전에 독감으로 앓아누운 나를 위해 산천어를 세마리나 잡아온 장호를 고맙게 생각하며 숙제를 대신하여주었다.

하면서도 밤알만은 끝내 거절하였다.

하루공부가 끝난 저녁때에 선생님은 나를 교원실로 불렀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선생님은 컴컴한 얼굴빛으로 덤덤히 앉아있었다.

그리고는 무표정한 눈길로 나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락제점수를 매긴 나의 숙제장과 아무런 평가도 없는 장호의 숙제장을 책상우에 밀어놓는것

이었다.

그 손길은 부들부들 떨렸으며 얼굴표정은 모진 고통을 씹어삼키는듯 험하게 이지러졌다.

나는 이때까지 선생님의 저런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가슴이 섬찝하였다.

게다가 붉은 색연필로 진하게 새긴 락제점수가 강한 빛처럼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머리를 깊이 떨구었다.

어렵듯하게나마 저질러놓은 잘못을 느끼면서...

그날부터 선생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10리나 되는 장호네 집엘 저녁마다 찾아가곤하였다.

그리하여 장호의 숙제공부를 도와주고는 깊은 밤에야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밤길을 걷는 선생님의 모습은 나의 가슴을 몹시도 쓰리고 아프게 허비였다.

눈보라길과 비바람 진창길을 장호가 아니라 바로 나때문에 선생님이 걷는다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밤길을 내가 걸겠다고 사죄하였지만 선생님은 끝내 승낙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학교촌 동무들과 함께 밤이면 초롱불을 켜들고 고개마루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곤하였다.

...전쟁이 일어나자 선생님의 손가락들은 건반우를 더 빠르고 힘있게 달렸다.

학교에선 언제나 비행기 폭음보다도 풍금소리가 더 높이 울렸다.

우리들의 더벅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선생님의 손길은 더욱 따뜻하고 정겨웠으며 또 엄하였다.

원썹놈들의 비행기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우리들은 선생님의 그 손길에 이끌려 반토굴교사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런 나날에 첫학기시험을 마치고 다음학기 공부를 시작한지 며칠되지 않는 어느날이었다.

아침일찍 학교에 등교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끔찍한 현실앞에서 그저 가슴만 들먹이였다.

간밤에 있는 원썹놈들의 폭격에 우리 학교가 무너지고 불타버렸던것이다.

오직 성한채로 남아있었던 것은 운동장변두리에 서있는 철봉대들뿐이었다.

재더미로 변한 학교를 바라보며 울고있는 우리들에게 교장선생님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들... 눈물을 거두시오...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반토굴교실에서 공부를 계속하시오.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는것으로써 학교를 불태운 원썹을 갚아야 합니다.》

선생님의 두눈에서 퍼런 불줄기가 뿜겨져나왔

다.

하지만 례의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만은 눈물자욱이 질펀한 우리들의 불을 살뜰하게 쓰다듬어주었다.

나는 선생님의 손길에 두볼을 꼭 기대며 눈물을 거두었다.

우리모두가 그렇게 눈물을 거두자 웬 영문인지 이번엔 선생님의 눈에 맑은것이 가득 고이는것이였다.

그것때문인지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교문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발목까지 빠지는 재더미를 꼭-꼭 밟으며 걸어가던 선생님은 꺼멥게 불그을음이 오른 철봉대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말없이 지켜보다 다시 힘있게 걸음을 옮겼다.

그 다음날... 우리들이 몹시 기다리는 음악시간에 갓 부임하여온 녀선생이 수업하러 들어왔다.

.....

우리들은 교장선생님을 기다렸다.

기다린것만큼 원썹놈들을 미워하였다.

그리고 방과후면 전선을 원호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힘껏 도왔다.

전쟁이 승리하자 우리들은 교장선생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기다렸다. 가슴팍에 훈장을 가득채웠을 교장선생님을...

불타버린 학교는 더 크고 번듯하게 일떠세웠고 풍금도 해맑은 창가에 다시 옮겨다놓았다.

나는 풍금을 타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창가에 새벽빛이 어릴 때까지 풍금앞에 앉아있었다.

그럴 때마다 교장선생님은 항상 내옆에 앉아계셨다.

그토록 기다리던 선생님이 학교에 다시 나타난것은 함박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었다.

우리들을 몹시 놀라게 한것은 소문도 없이 뜻밖에 찾아온 선생님의 출현이 아니라 한쪽팔 없는 그의 빈팔소매자락이였다.

선생님은 책걸상을 마구 자빠트리면서 와 달려가 품에 안기는 우리들을 한쪽 팔로 꼭 껴안아주며 두볼을 막 비벼댔다.

야들야들한 불을 꼭-꼭 찌르던 선생님의 그 구레나룻수염바늘이 아직도 나의 불에 그대로 꽂혀있는듯싶다.

선생님은 포화속에서도 구김살없이 곳곳하게 자란 우리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들은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면서 선생님의 품속에 얼굴을 깊이 파묻었다.

하면서도 팔없는 선생님의 빈소매자락을 건드



릴가봐 얼마나 조심하였는지 모른다.

선생님의 첫 수업은 역시 음악시간이었다.

선생님은 감회깊은 눈길로 풍금을 오래동안 지켜보다 그앞에 조용히 마주 앉는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으로 하여 붉게 상기되었다.

선생님은 예전처럼 천천히 발디디개를 밟으며 상반신전체를 건반우에 굽히다 문득 굳어지는것이었다.

순간 선생님은 입술을 깨물며 깊은 한숨을 툭었다.

선생님은 빈팔소매를 성한 손으로 움켜쥐고 오래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이윽고 한손으로 건반을 짚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선생님의 다섯손가락들은 몹시도 분주하게 건반우로 달렸건만 풍금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는 단조로왔고 그전처럼 풍부한 화음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생님의 얼굴은 컴컴한 빛갈로 변해갔다.

변듯한 이마우며 깨끗이 면도를 한 푸릿한 구레나룻 불편으론 땀발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은 숨소리조차 삼가하며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쩐지 나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였다.

예전과 같은, 그렇게 훌륭한 노래를 되살려보려고 건반우에서 모태기는 선생님과 함께 나도 몹부림치고싶었다.

어느덧 선생님은 풍금뚜껑을 닫고 우리모두를 서글픈 눈길로 오래동안 지켜보았다.

우리들은 그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이였다.

교실안은 침묵이었다. 숨소리 하나 들을수 없었다.

《가사를 암송하시오.》

선생님의 나직한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가사를 선창하는 아이는 없었다.

《어서...》

부드러운 어조의 재촉이었다.

가슴속 밑바닥에서 북받쳐오르는 흐느낌을 씩여삼키며 내가 먼저 가사를 외우기 시작하였다.

불타던 강산에 새봄이 왔다

동무들이 봄맞이 나무를 심자

.....

선생님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한쪽팔로 뒤킴을 짚고 굳어져있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함박눈이 내리고있었다.

평—평— 끝없이 쏟아지는 함박눈— 함박눈...

학교운동장도 멀리 산골이로 에돌아간 달구지

길도, 철봉대밀등도 모두 눈속에 파묻혔다.

선생님은 창밖에 내려쌓이는 눈을 하염없이 지켜보고있었다.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창밖의 눈풍경도 종소리도 교실안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우리들은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가사를 중얼거렸고 선생님은 창가에 그대로 서계셨다.

휴식시간도 거의 끝날무렵에야 선생님은 생각에서 깨어나며 교탁앞으로 다가왔다.

교실안은 물뿌린듯 조용하였다.

선생님은 한쪽팔로 교탁을 짚고 우리들을 오래동안 바라보다 말했다.

《학생들—오늘수업은 이만하겠습니다. 배우지 못한 노래는 후날에로 미룹시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침통하였다.

그리고는 머리를 깊이 숙여 우리들의 인사에 답례하고는 교실문을 나셨다.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선생님은 교실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숙제공부도 끝내고 해종일 내리던 눈도 멎은 저녁에 나는 선생님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과 서글픔에 젖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학교 풍금실로 옮겼다.

달빛이 비낀 학교운동장이며 멀리 장호네 집으로 가는 고개길우에도 눈은 내렸건만 그 뉘의 발자취도 찾아볼수 없었다.

눈덮인 정다운 학교길과 더 큰 운동장 그리고 우리들의 맑은 노래소리를 위해 한팔을 잃은 선생님.

어서 빨리 커서 선생님의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싶은 간절한 심정과 굳은 마음으로 하여 깊은 상념에 잠겨 걸던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깊은 밤-불밝은 방안에서 풍금소리가 흘러나왔던것이다.

나는 창턱에 다가가 작은 키를 발돋움하며 방안을 가만히 넘겨다보았다.

순간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환성을 지를번하였다.

풍금앞에는 너선생이 앉아있었고 그옆에 교장선생님이 서계셨던것이다.

교장선생님은 자주 손수건으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을 씻었다.

불타던 강산에 새봄이 왔다

.....

풍금소리에 맞추어 부르는 너선생의 노래소리는 음정이 고르롭지 못하였다.

《다시-》

교장선생님의 얼굴에 불안과 안타까운 빛이 비끼더니 성한 팔로 획 공간을 내려그었다.

어찌보면 신경질적이었다.

《……》

잠시후- 너선생의 회고도 고운 열손가락들이 음정을 고르려고 건반우를 더듬자 교장선생님은 얼굴에 따뜻한 빛을 그리며 나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희선생-우리는 이 노래를 승리한 조국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을 심고 가꾸는 그런 심정으로 불려야 하며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선생은 가볍게 화장을 한 고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앞가슴에 깊은 숨을 담으며 이윽고 먼곳을 바라보다 풍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너선생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바람기 한점 없는 류다르게 푸근한 겨울밤이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나 하얗게 내려쌓인 눈우에 달빛이 흘러내렸다.

누리에 가득찬 달빛은 눈내린 밤의 미묘한 정적과 신비로운 광채를 더욱 짙게 하여주었다.

잔잔하고 푸릿한 그 공간속으로 풍금소리는 은은하게 울려갔다.

그날저녁부터 나는 밤이면 어김없이 풍금실앞에서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과 벗하며 커다란 환희에 잠겨 오래동안 서있곤하였다.

불타던 강산에 새봄이 왔다  
동무들이 봄맞이 나무를 심자

너선생의 연하고 맑은 목소리에 교장선생님의 응글은 목청이 합쳐질 때가 많았다.

그때면 나도 입속으로 노래를 따라불렀다.

사과나무 잣나무 심고 가꾸어  
새로 세운 우리 학교 푸르게 하자

노래를 부르느라하면 어째서인지 어린 가슴에도 이름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가득차오르며 눈곱이 축축하게 젖어오르는것이였다.

그런 나날을 거쳐 며칠이 흘렀다.

그날은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이였다.

나는 토끼털모자를 눈두덩까지 꼭 눌러쓰고 학교를 향해 줄달음쳤다.

눈보라는 세차지만 마음속엔 마냥 기쁨이 차오

르고 입속에선 노래가 흘러나왔다.

내가 눈뚫히는 소리에 발끝으로 창문밑까지 갔을 때에도 풍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가슴을 조이며 방안을 들여다보니 교장선생님의 모습은 찾을길 없고 너선생이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입속으로 나직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던것이다.

어제밤까지만 하여도 교장선생님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난로불에 빨갛게 익은 너선생의 깨끗한 얼굴에 두줄기의 눈물자욱이 어려있었다.

나는 몸부림치고싶었다.

눈보라는 옥-옥- 소리치며 더욱 기승을 부렸다. 울타리 없는 운동장에 나서니 숨이 킁-킁 막혔다.

모든것이 눈보라속에 삼켜버린듯싶었다.

너선생이 눈물지으며 그런듯이 서있는 풍금실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조차 마음속에 한가닥의 온기를 주지 못하였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눈보라를 헤치던 나는 철봉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학년별로 나란히 세워놓은 철봉대들은 성칼진 눈보라속에서도 끄떡없이 그리고 묵묵히 밝아올 새아침을 기다리고있었다.

나는 북반쳐오르는 오열을 씹어삼키며 철봉대를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몸을 솟구었다.

선생님 품에 안겨 오를 때에는 것처럼 높이 쳐다보이던 철봉대에 이젠 나도 팔을 뻗치고 발돋움만 하여도 뛰어오를수 있었다.

손바닥을 통해 언쇠불이의 찬기운이 뼈속까지 스며들었건만 나의 눈앞에는 철봉대에 뛰어오르던 선생님의 굳건한 두팔과 웃음진 얼굴이 삼삼히 밟혀와 가슴속에선 호느낌이 더욱 세졌다.

그 다음날 음악시간에 너선생이 수업하러 들어왔다.

선생은 흑판에 가사를 정중하게 써놓고는 훌륭한 풍금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선창하는것이였다.

깊은 밤에 교장선생님과 함께 부르던 노래를...

우리들은 또다시 선생님을 기다렸다.

이듬해 봄에 새로 세운 학교둘레에 나무를 심을때에도...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고개너머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중학교를 마치고 제각기 희망에 따라 헤어질 때에도 우리들은 선생님을 기다리며 그리워하였다.

티끌만한 부족점도 없는, 오직 완성된것만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자의 본분과 량심을 지키기 위하여 교단에서 떠난 선생님을 그리면서 마음속엔 언제나 제자의 무거운 짐과 채찍을 얹고 살았다.

대학의 강의실에서나...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된  
오늘에나— 언제나— 그 언제나—

×

지배인이라는 직무가 그렇게도 바쁘고 어렵다  
는것을 요즘처럼 통절히 느껴본적은 없었다.

교장선생님한테 당장 찾아가 뵙지 못할망정 회  
답편지라도 먼저 보내려고 결심한지 보름이 지났  
으나 도무지 짬시간을 얻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원래 편지쓰기를 무척 《피롭고 힘들어》하는  
종지 못한 《악습》도 있었겠지만 끊임없는 전화,  
회의, 찾아오는 사람, 결재문건 등은 나에게 어린  
시절의 깊은 추억속에 조용히 몸과 마음을 잠귀  
불 한토막의 여유도 주지 않았던것이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오늘은 단단히 결심하고 책  
상우에 편지지를 펼쳐놓았다.

몇줄 쓰지 않았는데 벌써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나는 이마를 찡기며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응  
대하였다.

그러자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머리흰 로인  
한분이 방안에 들어섰다.

사택마을에서는 본적이 없는 로인이었다.

《?!》

누굴가?! 몹시 낯익은...?!

순간 나는 북받쳐오르는 강한 충격으로 하여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선생님!》

30년만에 처음보는 모습이였다.

검은 빛이라곤 전혀 없는 백발의 머리, 굵은  
등... 오른쪽 빈 팔소매만 아니였다라면 나는 첫  
눈에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할번하였다.

나는 선생님의 손을 부여잡으며 그의 품에 얼  
굴을 묻었다. 무척 큰키를 허리굽혀 숙이면서...

그러면서도 어린시절에 그토록 조심했던 빈팔  
소매에 나의 얼굴을 비볐다.

《경혼이 전혀 몰라보겠구먼...응.》

반가움에 젖은 선생님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  
도 부드러웠다.

《선생님, 이젠 늙으셨구먼요!》

어찌된 영문인지 나의 목소리는 갈렸다.

《허-자네들을 볼 때마다 너무 젊어있는것이 오  
히려 쑥스럽게 생각되는데두...》

《선생님 별말씀을...》

나는 선생님을 쏘파에 안내하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 시간을 내여 제가 먼저 찾아뵈울려고  
하였는데...》

나는 말꼬리를 흐렸다.

《자네네 공장에 견학을 왔네. 많이 배워주게  
...》

《네-견학을 말입니까?》 나는 어줍은 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붉혔다.

나는 평양에서 진행되고있는 지배인강습일정에  
우리 공장 견학사업도 포함되어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준비사업을 며칠전부터 다그쳐왔  
던것이다.

선생님은 담배를 천천히 빨며 오래도록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긴 량수책상이며 그우에 나란히 놓인 3대의 전  
화기며... 폭신한 쏘파 등을...

《선생님 며칠전에 보내준 편지를 받아보았습니  
다. 편지를 읽으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자책이라니...?》

선생님의 주름깊은 얼굴에 의혹의 빛이 가득  
실렸다.

《내가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구... 그리고 애로  
되는 점도 제때에 물어드려야 하는건데...》

《허-그래, 여기 있는 장호는 잘 있나?》

허구프게 웃으면서 하는 선생님의 어조는 어딘  
가 모르게 침통하였다.

《얼마전에 새로 건설된 제철소 기사장으로 소  
환되어 갔습니다.》

《아참-이 정신 보지 소식을 듣구두... 늙으면  
이렇게 통 기억력이 없다니까! 허허.》

주름깊은 선생님의 얼굴에 웃음이 확 피어났다.

《선생님, 자재인수원동무의 말을 들으니 공장  
을 확장한다는데 제기되는것이 있으면 장호동무  
한테랑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 제자들이 힘을  
합치면 자그마한 공장 하나를 도와드리지 못하겠  
습니까!》

《.....》

선생님은 말없이 담배만 줄창 빨고있었다.

담배연기가 면사포처럼 씌우는 선생님의 얼굴  
이 큰 무안을 당한 사람처럼 시뻘겋게 되면서 어  
색하게 웃는것 같더니 점차 해쓱하니 질렸다.

질은 담배연기... 어두운 그늘이 비낀 선생님의  
얼굴모습은 점차 열기를 띠던 나의 말을 동강냈  
다.

선생님은 이마전에 번들거리는것을 꺾꺾 찍어  
내고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엄엄하게 굳어  
진 얼굴을 들어 구슬픈 눈길로 멀리 창밖을 내다  
보며 물었다.

《집에 아이들이 몇이나 되나?》

《셋입니다. 사내 둘, 처녀애 한명입니다.》

선생님의 굳어진 표정에 나는 주눅이 들어 대  
답하였다.

《그것참 안성맞춤이네. 다 자랐겠구먼...?》

《막내딸은 인민학교에 다니고 둘째는 중학교2

학년생입니다, 그리고 만이는 금년에 종합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병글썩 웃었다.

무척도 기쁜듯 어설피게 쪼프린 눈지방에도 즐거움이 한껏 내배여 흐물거렸다.

《앞으로 막내까지도 대학엘 보내야지… 자넨 앞으로 자식들의 <덕>을 많이 보겠네…》

선생님의 룡 섞인 마지막 말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뽕뽕한것을 감촉하였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것들의 <덕>을 보다니요. 허…》

나는 달아오르는 뒤통수기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계면쩍게 웃었다.

《<덕>을 보지 않는다? 그럼 무엇때문에 그렇게 애쓰며 키우고 공부를 시키나?》

《그거야 그 애들이 커서 나라의 쓸모있는 참다운 사람이 되라구…》

《자네 그 말이 진실이겠지…?!》

선생님의 투박한 목소리가 나의 말을 뭉청 동강냈다.

《…?!》

나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선생님의 얼굴엔 노기가 한껏 어려있었다. 짙은 눈썹이 곧두서고 우선우선한 얼굴이 금방 하얗지며 불편이 실룩거렸다.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음이 무엇보다 나를 안타깝고 갑절로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눈을 다시 조용히 내려깔고 한동안 담배만 피우던 선생님은 무척도 낮은 어조로 말꼭지를 뗐다.

《그렇다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과 학생들을 키우는 교원들의 마음이 다르다고 자넨 생각하나?… 그러지 않아도 나도 견학이나 끝나면 자네를 찾아보려고 하였네만 러관방에 도무지 앉아있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네… 자네 우리 공장 인수원한테 강재를 앞당겨주었다면서…》

《…?!》

《사람들이 러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나. 자네가 나의 제자이기때문에 XX공장 인수원은 앉은 자리에서 2달이나 앞당겨, 그것도 식료공장 강재를 2톤씩이나 골격 삼켰다는거야… 그것이 제자들의 도리라면 나는 자네들의 이름과 얼굴모습들을 가슴속에서 다 지워버려야 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일세…》

나의 얼굴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핫핫 달아올랐다.

심장은 금시 밖으로 튕겨나올듯 세차게 박동하였다.

선생님은 내친김에 조용하면서도 폐부를 쿡쿡 찌르는 말을 계속했다.

《모든 일꾼들이 다 자네처럼 생각하면서 자재보장질서를 위반한다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겠나? 자넨 키도 무척 크고 책상우에 전화기도 3대씩이나 놓고 앉아있어도 아직 마음속은 여물지 못했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장호의 숙제를 대신하여주고 선생님앞에서 용서를 빌던 그때처럼…

선생님은 눈길을 들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창밖에선 이른봄날의 다양한 해빛이 무르녹고있었다.

갓 피어난 구내숲의 푸른 잎사귀들은 그 해빛에 반짝이며 설레고있었다.

선생님은 지금 그것들을 구슬프고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날카로운 강철끝으로 가슴을 아프게 긁히우는것 같은감을 느끼며 랑미간을 찌프리었다.

자기에 대한 환멸과 자신에 대한 반발에서였다.

선생님은 엄엄한 자세로 굳어져있었다.

손기척도 없이 벌컥 열리는 출입문이 아니었다면 며칠동안이라도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을상싶었다.

버릇없이 방안에 우르르 뛰여든것은 둘째아들 영철이와 그또래 조무래기들이였다. 나는 아연하였다. 그리고는 눈살을 찌프렸다.

둘째녀석은 잠시 자라목이 되었다가 용기를 내며 말했다.

《아버지 인발관을 좀 주세요?》

《허-참.》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빈웃음을 터뜨리며 선생님에게 아이를 소개하였다.

《선생님, 내 둘째녀석입니다…》

선생님은 둘째녀석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옆에 앉히면서 다정하게 물었다.

《허- 그녀석- 꼭 제 애비를 닮았군-그래 인발관은 어디 쓰기에…》

《철봉대를 세우려고 그래요.》

둘째녀석은 간절한 눈길로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대답하였다.

할아버지의 후더운 인정이 감수되는 모양이었다.

《철봉대를 세우려고…?!》

《네, 새로 지은 학교에 철봉대가 없어서…》

이번엔 옆에 선 조무래기가 대답하였다.

《영철아- 어서 가거라.- 여기가 어디 창고인줄 아니…?》

나는 얼굴을 찡기며 눈총을 쏘았다.  
 둘째녀석은 금방 울상이었다.  
 선생님은 영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지배인-좀 주라구- 아이들을 빈손으로야 보낼 수 있지 않나? 큰공장 지배인의 체면도 생각해가지?》  
 나직한 그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절절하였다.  
 나는 켠눈으로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흰머리를 짧게 쳐올려서인지 얼핏 보기엔 아직 건강하게 보였지만 눈두덩 살갗은 풀어지고 쪼프린 눈길엔 주름살이 깊이 패웠다.  
 어쩐지 나는 그 얼굴을 외면하였다.  
 눈썹리가 화끈해오면서 가슴속에서 숨넘하고 깨끗한 울림이 터져나오는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리하여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창고장누나를 찾아가봐라.》  
 사무실 한쪽구석에 웅크리고 서있던 조무래기들이 가슴을 짝 펴며 다시 활기를 띠었다.  
 선생님은 소리없이 웃었다.  
 《할아버지, 창고장누나가 주지 않으면 또 올래요?》  
 아이들은 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한테 다짐을 놓았다. 그가 꼭 이 공장 지배인이기라도 한듯이...  
 선생님은 하얗게 센 머리를 힘있게 끄덕여 보였다.  
 조무래기들은 좋아서 꺽충꺽충 뛰며 방안에서 달려나갔다.  
 선생님은 유리창을 통해 공장구내로 뛰어가는 그 애들을 넋없이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다 자리에서 움쭉 일어섰다.  
 《선생님, 왜 벌써 일어나십니까?》  
 나는 황급히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다시 결상에 앉았다.  
 《이젠 러관에 가보아야겠네...》  
 《러관이라니요? 안됩니다. 오늘 우리 집엘 가셔야 합니다.》  
 나는 선생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바쁜 자네를 이렇게 온종일 붙잡고있을수 있지않나? 견학이나 끝나면 한번 집엘 찾아가겠네...》  
 선생님은 끝내 문을 열었다.  
 나는 출입문계단에서 바삐 주위를 살폈다. 눈치가 빠른 운전사가 벌써 승용차에 발동을 걸고 있었다.  
 얼마전에 새로 받은 신형 고급승용차였다.  
 나는 차문을 열며 선생님을 안내하였다.

선생님은 굳이 만류하였다.  
 《이사람, 제발 이러질 말게. 나는 이렇게 걷는게 더 좋아. 자네의 땀과 노력이 스며있는 공장구내를 천천히 걷고싶네...》  
 .....  
 선생님은 공장구내를 천천히 걸어갔다.  
 굽은 허리를 애써 곧게 펴며 걸었다.  
 구내숲에 날아든 고운 새들의 노래소리와 함께 깊은 명상에 잠긴듯... 아니면 우람차고 둔중한 각가지 철의 음향에 발을 맞추기라도 하는듯 천천히 걸어갔다.  
 예나 지금이나 걸음은 곧았다.  
 정확한 우측통행, 꺾임길에서는 흰선을 표시한 가늠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이 걸음을 옮겨갔다.  
 선생님은 지금 견학을 온 공장이 아니라 꼭 자기 공장구내를 걷는 심정이라...  
 그렇게 한평생을 걷고 걸었으리라.  
 구내상공에 노을빛이 불타고있었다.  
 전기로의 불빛이 그 노을빛을 더욱 짙게 물들여가고있었다.  
 선생님의 모습은 노을빛속으로 점차 멀어져갔다.  
 그러나 마음속엔 더욱 크게 더욱 깊이 새겨지는 그런 모습이였다.  
 나는 말뚝처럼 굳어져 선생님을 바라였다.  
 하면서도 마음은 아이적 그때처럼 《선생님!》하고 소리치며 달려가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무척 큰 키와 우람찬 몸을 가진 오늘에도 나는 머리 회고 허리굽은 선생님을 도무지 따라잡을것 같지 못하였다.  
 선생님뒤론 인발관을 한토막씩 둘러맨 둘째녀석또래들이 쫓령거리면서 걸어가고있었다.  
 그 애들이 걸어가는 넓고 곧은 구내길우에도 노을빛은 비껴있었다.  
 즐거움과 기쁨에 넘쳐 걸어가는 그 애들의 모습은 뜨거운것이 북받쳐오르는 나의 가슴에 어린 시절의 노래를 가득채워주었다.

사과나무 잣나무 심고 가꾸어  
 새로 세운 우리 학교 푸르게 하자

파랗게 봄물 오른 구내 가로수 우듬지들에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들어 깃들고있었다.  
 작년봄에 어린 나무들을 심은 공장앞산에도 봄빛은 짙어가고있었다.  
 나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선생님은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전 호에서 계속)

### 15. 또 한떨기의 꽃을 피우고저

버들개지 방글방글 움터나는 초봄이다. 실실이 늘어진 수양버들과 키높은 황철나무에도 물이 올라 어데나 싹이 물들어 봄빛이 완연하였다.

들끓는 현실속에서 생활하고있는 작가들을 찾아 떠난 우리들의 마음도 새봄으로 하여 한껏 부풀어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강령적인 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금 작가들은 과연 어떤 작품을 창작하고 있을가.

우리는 작가 변희근을 만나기 위해 방금 열차에서 내렸다. 사리원역을 나선 우리의 마음은 어쩔지 들떠지는것 같았다. 역에서 곧은 길로 나와 우리는 운하가 지나간 유보도에 이르렀다. 시내 북관을 곧게 질러 풍치를 돌구며 흐르는 운하의 물은 기슭에 출렁이며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멀고먼 어지돈저수지에서부터 하많은 이야기를 담아 싣고 흘러온 생명수다.

그 옛날 한방울의 먹을 물이 없어 녀인들이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수십리 먼길에 물동이를 이여야 했고 말라터진 논판에 교창모를 내고 기우제를 지내던 봉산, 재령나무리벌로 흘러가는 사랑의 생명수다.

물에 대한 농민들의 땃힌 소원은 기우제를 바친 하느님도 나라의 력대임금들도 풀수 없었다.

오로지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숙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어려운 사정에 있지만 황금으로 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의 물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시며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오늘의 이 생명수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후손만대 길이 전할 불멸의 서사시이다.

우리가 회고에 잠겨 운하를 따라 변희근을 찾아간것은 낮시간이 펴 기울었을무렵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방은 비어있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예, 작가 변희근동무를 만나려고...》

우리는 그 옆에방에서 나오는 빨간 머리수건의

처녀의 친절 한 물음에 기대를 가지고 대답했다.

《그 문은 밤에만 열린답니다. 방금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저를 따라오세요.》

처녀는 방긋 웃어보이며 앞서 걸었다. 우리는 처녀와 나란히 걸으며 작가에 대하여 이것저것 물었다.

《작가동지는 주로 밤에 글을 쓰고 낮에는 로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낸답니다. 로동자들과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모두들 <작가아바이>라고 부른답니다. 호호...》

처녀는 락천적이였다. 처음 몇마디 시켰는데 그는 묻지도 않는 말을 그칠줄 모르고 이어나갔다.

그러고보니 언제든지 창작실에서 작가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것을 우리는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작가의 생활일과는 주로 밤에 창작을 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생활체험을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선참으로 학습한 작가는 생활일과를 빈틈없이 짜놓았다.

한 시대를 담아야 할뿐만아니라 각이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인간들을 형상해야 할 장편소설은 작가로 하여금 현실체험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했다. 때문에 그의 생활체험기지는 고정되어있지 않았다. 당일군을 형상한 장편소설 《개척자들》을 쓰고있는 작가는 저열탄보이라앞에서 고열을 얻기 위해 열관리공들과 함께 논쟁을 벌렸는가 하면 모자를 쓰고 처녀선반공과 함께 새 부속품을 완성하기 위해 땀을 흘리기도 했다. 언젠가는 정방차에 올라앉아 방적사를 뽑기에 여념이 없는 작가를 발견한 정방공처녀들이 배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굴러들가며 웃었다지 않는가.

처녀를 따라 공장안팎을 다 돌아보았지만 우리는 작가를 만날수 없었다.

《그래 동무는 작가의 생활을 어떻게 그리 잘 알고있습니까?》

우리가 묻자 처녀는 손등으로 하얀 이를 가리며 명랑하게 말했다.

《저는 통계원이예요. 우리 <작가아바이>가 옆방에서 창작하는것을 늘 본답니다. 또 <작가아바이>는 얼마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지 몰라요. 글썄 저를 보고 지금 쓰고있는 장편소설에 나오는 박정호기사의 누이동생이라질 않아요. 호호...》

《그러니 동무도 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원형이

구만요.》

《그저 통삼아 하는 말이지요 뭐, 그렇게야...》

우리는 다심하고 쾌활한 처녀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처녀는 작가를 만나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이기라도 한듯이 난처해하면서 마지막으로 직포직장에 가보자고 하였다.

우리는 처녀를 따라 직포직장에 들어섰다.

직기들 사이로 제비처럼 날쌔게 순회하는 방직 공들을 바라보며 헤맸으나 여기에서도 작가를 만날 수 없었다.

우리가 다시 공장의 한 방에다 정한 창작실로 찾아간 것은 밤이 꽤 깊어서였다.

사무실의 한쪽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들문에 잇달린 턱나는 창문가의 불빛을 향해 다가서던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쯤은 열심히 붓을 달리고있을 줄 알았던 작가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전채 굳어진 듯 앉아있다.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방문을 두드려 인기척을 냈으나 작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보니 작가는 그 무슨 상념에 휩싸여있는 것이 분명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짐짓 노여운 목소리로 침묵을 깨자 작가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아 언제 왔습니까? 통계원 처녀한테서 말은 들었습니다만...》

작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손을 내밀며 무척 반가워했다.

그런데 그의 두눈에는 이름할 수 없는 피로움이 흐르고있지 않는가. 그는 검은 얼굴에 미소를 그리며 자리를 권했다.

《한낮 동안을 찾아다녔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기술준비실에 있었는데...》

《그런걸 우리는 현장에만...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굴색이...》

우리는 방금 작가가 짓고있는 표정에서 느낀 바를 물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박정호기사가 출당까지 당한데다가 이젠 모해까지 받고있습니다.》

《박정호기사라니요?》

《착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협한 일꾼들은 그의 운명을 희롱하질 않습니다.》

작가는 자기의 작품권안에 우리를 끌어넣고있는 것이 분명했다.

《소설이야기같은데...》

《웁습니다. 이제 말한것은 나의 소설의 한장면입니다...》

한 인간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아닌 장편소설 《개척자들》에 나오는 주인공 당비서였다. 작가는 지

금 당비서의 담대하고 호방한 성격에 흠뻑 취해 있었다.

작가는 방금까지 생활경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출당당한 박정호기사가 기사장과 대립되는 설계를 가지고 용광로를 재건하다가 실패한후의 장면을 쓰고있었다.

소설에서 당비서는 박정호기사를 대담하게 포섭하고 그에게 용광로재건을 위한 설계를 맡긴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로 되고말았다. 기사장은 당비서앞에서 박정호기사에 대하여 공격을 들이댄 것이다...

우리는 작가의 소설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다. 당일군은 어머니가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듯이 돌봐주듯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나가도록 따듯이 이끌어주어야 한다. 과오를 범한 사람일수록 당일군은 그에게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소설에 등장한 주인공 당일군의 마음은 이러했다.

지금 작가는 주인공 당비서와 함께 격분도 하고 피로와도 하며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배우는 무대에서 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한다는 당의 방침대로 장편소설의 주인공을 손끝에서 연기를 시킨 것이 아니라 생활을 시켰단말이군요.》

작가 변희근은 우리들의 말을 긍정하듯 천여매가 넘는 정서된 원고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책상우에는 정서된 초고와 추고중인 원고를 갈라서 무독히 쌓아놓고있었다.

그 맞은편벽에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계획을 세운 일과표가 붙어있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자세히 바라보자 작가는 웃음을 담고 말했다.

《작가도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받들고 자기 계획을 넘쳐해야지요.》

《그래 이 소설을 언제면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상반년안으로 끝낼 결심입니다. 전체 인민이 펼쳐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인 이해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는데 작가라고 가만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의 소설의 앞부분을 들쳐보았다. 소설은 새로 부임된 당비서가 강습에 갔다 돌아오자 그만이야 용광로가 폭파된 장면을 그리고있었다.

우람하고 거창한 용광로의 폭파-소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고를 야기시켜놓고 그를 둘러싼 인민들의 내면세계와 얽힘을 풀어나갔다.

그가 쓴 한장한장의 원고지에는 참다운 당일군

의 뜨거운 숨결이 열풍속에서 맥박치고있었다.  
우리의 감동은 컸다. 그의 비상한 로력의 흔적이  
원고지의 갈피마다에 스배여 숨쉬는것 같았다.  
우리는 밤에 주로 창작을 하는 작가의 시간을 더  
축내주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 장식된 장편  
소설 《생명수》와 같이 장편소설 《개척자들》  
도 또 한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  
심으로 바라마지않으면서 작가의 방을 나섰다.

공장구내의 밤은 류달리 좋았다. 방직기들의

고르로운 동음은 은은히 울리는 관현악같이 울렸  
다. 밤하늘에 무수히 뿌려진 별들은 그날의 축하  
의 꽃보라처럼 느껴졌다.

작가의 방에서 고요히 흘러나오는 불빛은 우리  
가 안고가는 흥분의 여운과 함께 멀리까지 비쳐  
왔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김원복

## 좋은날

리종덕

함박눈 펄펄 내리는데

흰김 무럭무럭 피어나는

부식퇴비 거름더미우에

함박같은 웃음 쏟아지네

풍년눈이 온다고, 복눈이 내린다고

채찍같은 큰비가 퍼붓던 날도

포전휴계실 창문들을 열어제끼고

한줄기 잘 온다고

오히려 마음 후련해하더니

불별이 뜨거워도

시원한 물노래속에

장일을 쪽쪽 피워올리며

날씨가 잘한다고 기뻐하더니

눈이 와도 좋은 눈

비가 와도 좋은 비

봄이 와도 좋은 봄

새싹처럼 내 마음 푸르고

여름 와도 좋은 여름

일처럼 마음 싱싱하고

가을이면 더 좋은 계절

이삭처럼 마음도 풍요하여라

한점 구름이 언뜻 비끼여도

마음이 흐려지고

열흘 가물만 와도

가슴까지 타들던

쓰디쓴 이야기는

할아버지 추억에나 있을뿐

백날가뭇이 든다 하여도

넘쳐흐르는 생명수 마를 날 있으랴

무더기비가 내린다 한들

만년제방이 끄떡하랴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대자연개조의 슬기로 다스리고

주체농법의 지혜로 꽃피우는 땅

자연의 횡포도 두렵지 않는 마음이어서

언제나 좋은 날 좋은 계절

아, 봄이 와도 좋은 날

여름이 와도 좋은 날

눈이 내려도 큰비가 쏟아져도

은혜로운 주체의 해빛으로

내 마음속엔

한점 그늘을 몰라라



## 해동이

윤원삼

늦가을 찬바람이 커다란 자물쇠를 채운 감방문을 해종일 흔들어댔다. 삐걱삐걱 애처로운 신음 소리를 낼 때마다 벌려진 문틈으로 차디찬 랭기 가스며들었다.

적들이 마을에 밀려들자 인민학교 교구비품창고는 감방으로 되고말았다. 쇠살창 피창문으로 비쳐드는 해빛이 희미하게 게발린 바람벽에 파리 떼들이 오구구 붙어서 움쩍을 못하고있다. 곰팡내도 아닌 그 무슨 이상한 악취가 풍기는 어둡시그레한 벽구석들에서는 귀뚜라미가 처량하게 울어대고있었다.

박덕삼은 온종일 쥐똥이 널려있는 차거운 땅바닥에 묵묵히 앉아있었다. 마을에서 마지막 현물세를 실은 달구지를 몰고 소개지로 가다가 그만 적들에게 붙잡혀 감방안에 갇히고말았다.

벌겋게 단 쇠꼬챙이를 장난감처럼 뒤적거리며 놈들은 현물세를 감춘 비밀장소를 대라고 덕삼을 위협했다. 살겠는가? 죽겠는가? 이 둘중에서 마음에 드는것을 선택하라고 하루동안의 여유를 주었다.

박덕삼은 운명의 갈림길앞에 서서 모대기였다.

죽겠는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그는 자기가 죽을수 있다고 생각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살겠는가? 살고싶었다. 처자와 함께 기름진 땅에 씨뿌리며 오래오래 살고싶었다. 덕삼의 가슴은 끝없이 무거워지는데 감방밖에서는 돌돌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삼이네 집 뒤울안 곁을 지나 흘러내리는 개울물이었다. 껍도 정답게 들려오는 개울물소리에 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갔다. 그는 아침저녁으로 아들녀석의 손을 이끌고 저 개울가에 나가곤했었다. 온통 먼지와 검댕이로 매닥질한 얼굴을 씻어줄적마다 녀석은 아프다그 계정을 부렸다. 덕삼은 눈을 뚫-부릅뜨고 올려대면서도 밥살이 올라 오동보동한 아들의 얼굴을 조심조심 닦아주었다. 녀석은 그래도 아버지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머리질을 하지 않았던가.

덕삼의 눈앞에는 귀여운 아들의 모습이 감돌기도 하고 맑은 시내물에 종종 빨래를 행구던 안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정갈한 개울가에

담담히 올려퍼지던 안해의 물방망이 소리가 마치도 아름다운 노래가락처럼 가슴속에 은은히 흘러들었다. 박덕삼은 그 어떤 충격에 못이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침한 감방안을 두벅두벅 걸어 덕삼은 저녁해살이 비쳐드는 쇠살창 피창문가로 다가갔다. 낮으무레한 뒤산밑에 오בות게 자리잡은 마을이 맞바라보인다. 그 모든것을 들이키듯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저절로 자기 집에 가뻐졌다. 추너높은 저 기와집에서 아들이 자기를 기다릴것이었다. 덕삼은 이 감방을 뛰쳐나가 집으로 달려가고싶었다. 그는 강렬한 삶의 충동에 사로잡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쇠살창을 으스스리게 틀어잡았다.

이때였다. 삐져덕거리며 살점을 물어뜯는것 같은 문소리가 났다. 미제침략군장교놈에게 술한턱 잘내고 얻어입은 가족잡바를 번들거리며 《치안대》대장놈이 감방안에 뛰어들었다. 그놈은 박덕삼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고개짓을 했다. 덕삼은 한숨을 폭-내쉬고 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놈들이 사형장으로 끌고가리란것을 알아차렸다.

밖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어디선가 시원한 들바람이 불어오며 봄에 절은 구수무레한 땅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덕삼은 어깨를 쭉 펴며 숨을 한껏 들이쉬었다.

오래간만에 맛보는듯한 땅냄새에 취하여 그는 가슴이 찌릿해왔다.

갑자기 술에 절은 《치안대》대장놈의 썩하는 목소리가 울려왔다.

《결판 낼 때가 됐다. 어느쪽을 택했나?...》

치안대장놈의 초점없는 사팔뜨기눈에 조소가 어렸다.

《...》

덕삼은 대답대신 고개를 돌렸다.

《천당으로 가겠나. ... 하긴 실컷 잠을 자겠으니 편안이야 하겠지.》

《치안대》대장놈은 총구로 덕삼의 잔등을 꺾꺾 찌르며 씨벌거렸다.

덕삼은 머리를 수긏하고 걸기만 하였다.

《치안대》대장놈은 또다시 씨벌여댔다.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땅속을 실컷 들여다보라구. 맛이 어떻겠는가-》

《...》

덕삼은 달구지바퀴에 움푹 패이고 소밭자국이 무수히 덧찍혀진 동독길에 들어섰다.

(우리 얼룩이 발자국도 있을테지!)

해방이 되어서야 제 소를 부릴수 있었던 박덕삼은 지난날의 가지가지 일들이 끝없이 물려왔다.

5년을 하루와 같이 이 길로 소를 몰아가며 농사짓던 일이며 이 길우에 그렇듯 수많은 발자국들을 남기며 애국미도 올렸던 일들을... 가슴이 저으기 설레여진 박덕삼은 머리를 쳐들었다. 몽게몽게 구름이 떠도는 저 드넓은 하늘가에는 황혼이 깃들었다. 산과 들만이 저렇듯 붉게 물들며 날이 저물어 갈적이면 들에서 일하던 황소들이 머리를 내저으며 긴 영각을 뽐냈었다. 밤도와 현물세를 실어가자고 다긋는듯한 그 소리에 덕삼은 해떨어지기전에 일손을 털었다. 소먹이 풀단을 듬뿍 지고 그는 왈랑질랑 방울소리 울리며 얼룩소를 앞세우고 집으로 들어왔다.

알알이 영든 벼가마니를 달구지에 산더미같이 쌓고 덕삼이 나설 때이면 코흘리개 외아들녀석이 따라나섰다. 금년에 다섯살난 해동이는 달구지에 태워달라고 졸라대었다. 웅석반이 아들녀석의 생때질에 못이겨 박덕삼은 동구밖에까지라도 태워주자고 해동이를 들어 달구지우에 년떡 올려놓았다.

소달구지가 조심조심 구울러갔다. 해동이 녀석은 벼가마니우에 배를 난딱 붙이고 었다녀서는 좋아라 캐득거렸다. 그러다가 현물세가마니우에 꽂아놓은 공화국기발을 잡으며 종알거렸다.

《아부지, 이건 왜 꽂았나?》

덕삼은 아들녀석의 물음에 이내 대꾸하지 못하다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응- 그걸 꽂으면 땅도 생기고 집도 생긴단다. 농사가 잘되구 또 우리모두 잘살게 되거든!》

《아버지두?》

《암, 나두 잘살구. 그리고 어-공화국기를 꽂으면 무서운게 없거든.》

《히야- ! 아부진 그럼 장수가 되겠구나!》

덕삼은 정말 그렇게 된다는듯이 머리까지 끄덕이며 공화국기발을 가지고 다니기만 하면 해동이라도 제일 큰 장수가 된다고 했다. 해동이는 공화국기발을 부럽게 쳐다보다가 다시 재깔거렸다.

《아부지, 그런데 집에 올적에는 왜 안꽂나?》

《그건 달구지에 현물세가 없어서 그러는거다.》

《체, 현물세가 없을 때엔 소대가리에 꽂으려마. 》

《허허허, 참 너석두!》

박덕삼은 그날저녁 달빛이 흘러내리는 산골길로 온밤 달구지를 몰아가면서도 그저 흥겹기만했었다...

갑자기 《치안대》대장놈의 썩-소리가 박덕삼의 덜미를 후려했다.

《어디로 가는거냐? 서라.》

문득 《치안대》대장놈은 덕삼의 앞을 막아섰다.

《머리를 들어, 어딘가 좀 보지.》

마을앞이었다.

박덕삼은 일생의 꿈이 피어나던 집을 그리움으로 실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집생각이 나겠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입만 열면 살수 있어, 어때?》

《치안대》대장놈은 살기편 웃음을 지었다.

《...》

덕삼은 대답대신 자기 집 지붕우를 덮은 대추나무를 바라보았다. 해마다 가을이면 저 대추나무가 아이들을 불러들이곤했다. 동네 조무레기들이 모여들어 대추를 따달라고 졸라대었다. 그럴적이면 식구가 적어 적적하던 집안이 무슨 대사라도 치르는 때와 같이 왁작 끓어번졌다. 그때 누구보다도 신바람이 나서 돌아친것은 해동이였다. 그는 제법 주인행세하며 수많은 조무레기들더러 이러자 저러자면서 대장노릇을 하지 않았던가. 해동이는 그러는것이 즐거웠던지 저녁이면 동구앞 느티나무밑에까지 나와 덕삼을 기다리곤했었다.

덕삼은 그러는 아들이 생각날적이면 논에서 가을걷이하다가도 일찌기 들어왔다. 왈랑질랑 소방울소리 울리며 마을앞에 다달으면 아들녀석은 벌써 북슬강아지를 달고 마주 달려왔다.

흰 적삼에 까만 비단조끼를 받쳐입은 해동이는 좋아라 달구지에 올랐다. 길다란 회초리로 소잔등을 찰싹찰싹 갈겨대며 그는 가뜩이나 빠른 걸음을 옮겨놓는 얼룩소를 성급하게 다몰아대었다.

덕삼은 외양간에 소를 매여놓고나서는 해동이한테 팔소매를 잡힌채 뒤울안 대추나무밑으로 갔다. 그는 아들녀석때문에 우정 마련해놓은 길다란 장대로 대추나무를 털었다. 빨갭게 익은 대추

알들이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면 아들녀석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뒤울안 배추밭을 짓밟개놓았다. 이제 얼마 있으면 통이 앓을 배추들이 짓밟히고 터져서 지저분하게 널려졌다. 저녁찬거리감 배추를 슈아가려고 바구니를 들고 나온 안해가 배추밭에 들어서다말고 아들을 쫓아왔다. 해동이는 주먹을 부르짖 어머니를 피해 아버지의 등뒤에 숨었다. 덕삼은 철없는 아들을 꾸짖으려고 뛰어오는 안해앞에 두손을 째 벌리고 버티어서서는 허허 웃기만 하였다. 안해는 그러는 남편한테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굳혀준다면서 나무람했다.

《참 당신두, 그래놓으니 아이가 말을 들을게 뭐유? 저번때 그렇게 일렸는데두 또 집안에 온통 연필질했수다.》

안해는 해동이가 연필로 바람벽이며 문이며, 지어는 가마뚜껑에까지 무슨 그림을 그려놓아서 어지럽히는 버릇을 탓했다. 덕삼이 그것을 모르지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집안에 어쩌면 그런 귀염둥이 생겼을가싶어했다. 방안이 불성사납게 되어도 아들녀석이 더 많은곳에 연필질 하며 재간을 익혔으면싶은 덕삼이었다. 그는 안해에게 히물히물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도 어린것을 구박해서는 안되지. 옛날 우리가 지주놈의 등쌀에 기를 펴지 못하며 자랄적 하군 다르거던.》

그만 말문이 막힌 안해는 제 아버지의 거드랑 밑에서 해죽거리는 아들에에게 눈을 곱게 흘기었다.

해동이는 방글방글거리다가 갑자기 어머니앞에 나서며 으시대었다.

《엄마가 정말 성낼래? 씨-》

해동이는 마치 그 무슨 굉장한것이 있기라도 하는것처럼 우쭐하며 까만 비단조끼주머니에서 종이한장을 꺼냈다. 그는 어머니앞에 다가가서 차곡차곡 접은 종이를 펼쳐보였다. 성인학교에 들고 다니는 아버지의 학습장에서 한장 뺏어낸 그종이에는 해동이의 그림이 그려져있었다.

연필로 오리발을 그려놓은듯한 그의 그림은 현물세를 신고가는 소달구지였다. 산더미같이 쌓은 현물세 달구지를 끌고가는 황소의 눈알은 커다란 고무뿔처럼 동그래서 금방 밖으로 툭렁 떨어질것 같았다. 황소의 머리우에는 공화국기가 꽂혀있었고 두개의 우람찬 뿔들은 그것을 호위하고있는것처럼 서로 안쪽을 향해 활등같이 휘어져있었다.

《호호호... 애두 참!》

아들을 정말 혼내울것처럼 쏘아보던 안해마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덕삼이도 대견해서 허허 웃어댔다.

해동이는 그바람에 범잡은 포수처럼 더 우쭐해져서 자기를 장수라고 말했다. 그는 성난 어머니도 이기게 하는 자기의 그림을 동네사람들에게까지 내보이며 빠기였다. 제때래 조무래기들은 부러워했고 어른들은 누구라없이 칭찬했다. 언제인가 이웃집 할머니는 그림을 보고 해동이한테 종자고구마를 꺼내주었고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쓰던 지우개가 달린 옹근 연필까지 쥐여주면서 해동이가 제일 큰 장수라고 취주었다.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가진 그날저녁에 해동이는 수수대껍질로 커다랗게 안경을 만들어쓰고 제법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흉내까지 내었다. 아들녀석은 한쪽손에 아버지의 학습장을 펼쳐들고 거기에 위원장이 준 연필을 척 거머쥐고 우정 지어낸 우습강스러운 목소리로 《박덕삼동무, 이담에 비료를 몇개 달라요?》 하였다. 덕삼은 아들녀석이 제 아버지의 이름까지 불러대는바람에 그만 꺾꺾거리고말았다. 아들녀석은 자기를 위원장 대하듯하지 않는데 불이 부어 래년에는 비료를 한가마니도 안주겠다고 수수대껍질 안경너머로 눈이 울롱해서 박덕삼을 훑어보는것이였다...

구름이 낀듯 흐려있던 박덕삼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때 출입문이며 퇴창문에 판자들로 막아버린 배나무집이 박덕삼의 눈에 띄었다. 방울이 달려서 언제나 즐겁게 달랑거리던 대문도 땅바닥에 자빠져있었다.

박덕삼의 얼굴은 또다시 흐려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배나무집 대문에서 울리던 방울소리가 귀에 쟁쟁히 울려왔다. 해방직후 토지개혁할적에 리농촌위원회였던 배나무집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즐겁게 울리던 방울소리... 한때 선거장이였던 배나무집에서 첫 민주선거를 할 때에도 방울소리는 즐겁게 울렸다. 달랑달랑...선거장꽃대문에서 해종일 울려퍼지던 그 방울소리는 박덕삼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지워질것 같지 않았다.

치안대장놈은 또다시 이죽거렸다.

《이제 너도 저 대문처럼 자빠질게다. 너희네 세상도...》

《...》

박덕삼은 대답대신 배나무집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자빠진 대문을 조심스럽게 세워놓

았다.

《딸랑딸랑...》

방울소리는 예나 다름없이 맑게 울려 퍼졌다. 금시 《치안대》대장놈의 사팔뜨기 상관이 파랗게 질렸다.

박덕삼은 제먼저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서리맞은 나무잎처럼 휘줄근해서 《치안대》대장놈은 마치 박덕삼에게 끌려가는것 같았다.

낮으무레한 마을 뒤산 새초밭에서 박덕삼은 걸음을 멈추었다.

눈알이 노란 미제침략군장교놈과 총대를 거머쥔 《철갑모》들이 덕삼을 기다리고있었다. 마치 여우굴이라도 온듯 역한 노린내가 풍겼다.

미제침략군장교놈이 히죽거리며 덕삼이 앞으로 다가왔다. 그놈은 뺨 버티고 서더니 허발은 조선말로 이렇게 물었다.

《헌물세 비밀장소 어디 있습니까?》

《...》

덕삼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미제침략군장교놈은 《철갑모》들쪽으로 손을 뻗 내저었다.

그때 《아버지!》하는 애릿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덕삼은 몸을 흠칫하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철갑모》들속에서 해동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아버지!》

해동이는 아버지를 보자 너무 좋아 팔을 휘저으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덕삼은 귀여운 아들을 얼싸안을듯이 팔을 벌리며 비칭거렸다.

길다란 총대가 덕삼이의 가슴노리를 막았다.

미제침략군장교놈은 싸늘한 웃음을 띠우면서 덕삼에게 또 물었다.

《헌물세니까? 아들입니까?》

《...》

《어느것을 내놓겠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려고 놈들은 해동이를 끌고온것이다. 박덕삼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가장 연하디 연한 가슴 한구석에 칼이 박힌듯했다. 소름이 끼쳤다.

《이거 놓라. ... 나... 아버지한테 갈래-》

해동이는 팔소매를 움켜쥔 우악스런 《철갑

모》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그러던 해동이는 갑자기 생각키운듯 비단조끼 주머니를 뒤졌다.

《너 이걸 볼래.》

해동이는 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은 종이를 꺼냈다.

덕삼은 가슴이 섬찟-했다.

해동이의 종이를 제일먼저 펼쳐든 철갑모의 얼굴은 갑자기 새파랗게 질렸다. 옆에서 기웃이 들여다보던 《철갑모》의 눈도 희뜩 뒤번져졌다. 미제침략군장교놈도 해동이의 그림을 보자 상판데기가 금시 새까맣게 죽었다.

그 종이우에는 누런 황소가 끌고가는 달구지에 애국미가 높이 쌓여있고 그우에는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있었다.

《우리 누렁이가 실은 장수가 무섭지.》

해동이는 정말 우쭐해서 말했다.

《땅-》

앙칼진 총성이 울렸다....

박덕삼은 감았던 두눈을 번쩍 떴다.

네활개를 벌려 온 조국땅을 조그마한 한가슴에 끌어안고 해동이가 쓰러져있다.

덕삼은 아들을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정말 해동이가 장수처럼 느껴졌다.

박덕삼은 머리를 더 높이 추켜들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했다.

《이놈들아! 우리 해동인 죽이지 못해... 죽지않는단말이다!》

박덕삼은 주먹을 움켜쥐고 부르짖었다. 그의 목소리는 멀리멀리 메아리쳤다.

×

놈들은 거의나 반죽음이 된 박덕삼을 다시 감방으로 끌고갔다. 어떻게 하든 헌물세를 감춘곳을 찾아내야 했다.

그날밤 인민유격대가 마을에 기여든 적들을 습격하였다. 박덕삼은 구원되었다.

사형장에서 입었던 총상이 완패되자 박덕삼은 인민유격대원이 되었다. 그는 두번째의 습격전투 때 마을 뒤산에서 구겨지고 찢진 해동이의 그림을 찾아냈다.

정갈하게 때고붙인 그 그림은 병실통나무벽에 오래동안 걸려있었다.

## 병사의 영광 외1편

김기호

불타는 노을은  
군복깃에 어리고  
계곡의 물소리  
정겹게 가슴적시는  
초소의 아침

들꽃 핀  
오솔길을 더듬노라면  
오셨던 그날처럼  
아버이수령님  
다시 오실것만같아  
설레이는 이 마음

다심한 손길어린  
이 가슴에  
초소는 동무들에게 맡긴다시던  
그 믿음의 총창을 안고  
푸른 하늘  
꽃피는 땅을 지켜가는 영광이어!

생각하면  
끝없는 이 영광은  
봄빛푸른 백두산기슭에서  
아버이수령님  
혁명의 첫무장을 안겨주신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던가

눈보라 만리  
불바다 만리  
전사들을 안아키워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나날을 거쳐  
오늘에도 굽이쳐온것이던가

해쫓고 별이 떠도  
그 사랑 어려오고  
날이 가고 해가 가도  
그 믿음 못잊어  
우러러 다함없는 아버지수령님

그 영상 태양이라면  
전사는  
그 태양 우러러 도는 별  
그 사랑 해빛이라면

전사는  
그 해빛 안고 핀 꽃송이

한번 안기면  
그 별처럼  
한생을 빛내어주시고  
한생을 바치면  
그 꽃처럼  
영생을 꽃피워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품

고요가 깃든  
초소의 밤 새울 때에도  
이 몸을 따사로이 안아주는 그 품은  
내 어릴적  
만시름 놓고 안기던  
자애론 아버이의 그 품이런가

험한 산  
깊은 강을 헤쳐넘어  
훈련길 달릴 때에도  
다심히 보살펴주는 그 마음은  
자식이 다 자란후에도  
만시름 놓지 못하는  
아버이의 그 심정이런가

그 품이 있어  
평범하던 전사는  
영웅으로 자라나고  
그 사랑의 해빛이 있어  
머리위의 오각별은  
이리도 빛나는것 아니냐

아,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배푸시는 사랑속에  
반세기전  
생명으로 받아안은 그 총검  
세월을 넘어  
세대를 이어  
이 가슴에 빛내가는 긍지여!

아들로 믿어주시고  
동지로 내세워주시는  
그 품이 아니라면

작은 이 가슴이 어찌  
온 조국을 수호하는 성벽이 될것이라

오직 한분  
수령님을 우러러따르는  
그 하나의 신념이 비껴  
들어진 총창도  
만리하늘가에  
존엄의 빛을 뿌리는것

행복이여라  
영광이여라  
자애로운 아버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그이의 아들로

당의 전사로  
청춘을 빛내여간다는것은

불비가 내린데도  
폭풍이 몰아친데도  
두렵지 않을 이 마음  
변함없을 전사의 의리  
한목숨도 웃으며 바치리

아, 언제나 충성하기에  
끝없이 승리하는 이 영광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우리 당중앙을 받들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빛내여가리라.

## 나의 중대 충성의 대오여!

봄빛 따사로운 들을 지나  
파일꽃 만발한 언덕을 넘어  
중대는 오늘도  
훈련길을 간다

산이면 산을 넘고  
강이면 강을 건너  
노래높이  
걸음높이  
중대는 간다

대오앞에 나뭇기는  
전위중대 붉은 기발은  
백두에 휘날리던  
붉은기의 그 한폭이런가

보무당당한 우리의 걸음은  
고난의 그 준엄한 령을 넘어  
진달래 붉은 압록강을 건느던  
투사들의 그 용맹을 닮은것 아니냐

사랑하는 나의 중대  
아버이수령님의 사랑  
언제나 넘쳐흘러서  
한가정 동지애로 뜨겁고

일당백의 투지를 안겨준  
찬란한 당의 해발  
가슴마다 신념으로 나래쳐  
하나로 굽이치는 나의 중대

열다섯 발자국으로  
부대의 돌격로를 열고  
영생의 길을 간 영웅도  
충성의 그 걸음  
여기서 익혔고

백두의 눈보라  
락동강의 포화를 헤쳐온  
머리흰 지휘관들도  
위훈의 첫자욱  
여기서 떼였거니

아, 초소를 찾아오신  
아버이수령님  
중대가 낳은 영웅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던  
그날의 그 영광이  
하늘땅에 차넘치는 대오

수령님을 받들어온  
충성의 그 력사  
걸음마다 이어가고  
우리 당을 옹위해온  
영광의 그 력사  
자욱마다 빛내이는  
강철의 흐름, 충성의 흐름아!

강철의 령장  
**김일성**원수님 계시여

우리 당중앙의 손길이 있어  
어제도 승리하고  
래일도 승리할  
그 궁지 그 사랑을 안고  
중대가 간다

그 발구름소리 비껴가기에  
조국의 하늘은  
저리도 푸르고  
수호하는 강토는  
갈수록 풍요해지는것 아니나

불길이면 뚫고  
폭풍이면 헤쳐  
우리 가는 이 길은

투사들이 앞서가고  
영웅들이 뒤따른 길

중대와 중대들이 따르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혁명의 마지막 기슭  
그 한끝에 잇닿은 길

그 길이 천리로 멀고  
만리로 험해도  
위대한 수령님 우리러  
영광스러운 당중앙따라  
가자, 중대여 앞으로!  
가자, 충성의 한길로!

## 길가의 샘터에서

량덕모

물이 없어 찾아오는 샘물이 아니란다  
길가의 이 샘터를  
무엇하러 가꾸는가  
철없이 묻는 내 딸애야

너야 어떻게 다 알라  
푸른 하늘 비껴안고 솟는 이 샘물  
군대와 한몸되어  
나라를 지켜싸운  
이 나라 너인들의 불타는 마음인줄

전화의 날  
밤이나 낮이나 들리는  
전사들의 군용물통에  
단김 뽀는 수송차에  
시원히 채워준 이 샘물  
전선길을 이어준 힘이였단다, 노래였단다

군의소로 가는 부상병에겐  
도라지, 고사리... 이 샘물로 정히 씻어  
보약처럼 찬으로 췌겨주고  
밥맛떨군 전사들을 생각하며  
생선단지도 물어두던 샘가

진함없는 사랑담아 한바가지  
원호의 정성담아 또 한바가지...  
물초롱 가득히 채워이고  
불타는 고지에도 하루에도 그 몇번

막아서는 전사들에겐 꾸짖었단다  
-내 아들도 셋이나 전선에 있다우!

아, 장군님 찾아주신 이 땅을 지켜  
한목숨 바칠 마음  
샘처럼 힘이 솟던 너의 할머니  
원썹놈의 폭격에 숨지는 순간  
한뼉 정든 집이 불탈 때에도  
남긴 말은 한마디였단다  
-애야, ...샘물은 일없느냐?...

딸애야 싸움의 그 나날  
굽이굽이 전선길 그 어디서나  
기다려 맞아주며  
전사들과 생사를 같이 한 너인들  
어찌 너의 할머니뿐이라

산천은 변하고  
행복의 수도물 넘쳐흘러도  
순간인들 잊을수 없구나 이 샘터를  
오늘도 원썹들이 이 땅을 넘보기에

딸애야, 초소와 잇닿은 길가엔  
언제나 맑은 물이 솟아야 한단다!  
그 어떤 포화에도 드물지 않고  
지심천척 솟아오르는 샘물이  
이 나라 너인들의 마음속 샘물이...

## 작품의 감화력과 감정조직

변희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오중훈련대장의 최후장면은 인간생활의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의 하나이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성과 혁명전사에 대한 그이의 숭고한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싸운 오중훈련대장의 열화같은 충성심에 대하여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금할수 없게 된다.

이 장면이 것처럼 감동을 주는것은 실재한 그 사건자체가 우선 감동적인데 있다. 문학작품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자면 다루는 사건이나 이야기거리부터 감동적이고 의의있는것으로 되어야 할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이 장면이 감동을 주는 장면으로 될수 있는 비결을 다 밝힐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거리는 매우 감동적인것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크게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줄거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던 사건이나 이야기거리가 막상 소설에 옮겨지면 그리 큰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것이다. 이런 불일치가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주체적문제이론은 정서가 안받침되지 못한 메마른 사건은 논리적개념은 줄수 있으나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흥분시킬수는 없다고 가르치고있다.

문학형상에서 정서가 안받침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감동적이고 의의있는 사건이나 이야기거리를 다룬다고 하여도 결코 독자들의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그 사건이나 이야기거리 자체의 감동성과 의의마저도 무색해지고 마는것이다. 이렇게 되는것은 작가가 창작과정에 사건조직에만 매여달리면서 독자들의 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감정조직을 소홀히 하기때문이다.

창작에서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오중훈련대장의 희생장면이 그토록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될수 있는 비결도 바로 이 장면의 형상창조에서 이러한 요구를 움

게 구현한데 있다.

이 장면은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총체적인 감정조직에서 볼 때 사령관동지와 오중훈련대장과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타고 축적되고 고조된 감정이 폭발하는 하나의 중요한 중간매듭을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의 정서적감흥은 그 이전의 사건 진행과정에 축적된 감정상태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이 장면은 또한 그자체의 고유한 감정조직을 가지고있는것이다.

작가는 룡과송전투에서 오중훈련대장이 뜻밖의 치명상을 입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는데만 매여달리지 않고 그 사건을 다루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오중훈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사상감정상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그러한 사상감정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섬세하게 펼쳐나가면서 감정축적과정을 잘 조직하고 그것을 긴박한 정황에 맞게 간명하고 진실하게 그리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선 작가는 감정조직에서 생활감정이 생겨날수 있는 정황과 조건을 잘 지어주고있다. 작가는 그런 정황을 다음과 같은 다섯개의 단락으로 주고있다.

첫째, 기본전투가 승리로 끝난후 로동자들과 담화를 하시던 사령관동지께서 오중훈이 중상을 당했다는 뜻밖의 보고를 받으시는 단락.

둘째, 중상을 당하고도 정신을 가다듬어 전투지휘를 계속하는 오중훈, 리철범이 최인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오중훈이를 살려야 한다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오중훈을 숲속으로 후송하고나서 지하포대를 소멸하는 단락.

셋째, 오중훈의 운명.

넷째, 사령관동지께서 운명한 오중훈에게 오신 단락.

다섯째, 추도식.

그러면 이 매 단락에서 주어진 정황들이 인물들에게 어떤 감정을 야기시키며 그것이 어떻게 축적되고 폭발하며 또한 그 과정들이 독자들에게는 어떤 정서적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를 보기로 하자.

첫째단락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관섭분대장으로부터 오중훈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놀라신다. 사령관동지께서 있어서 그것은 믿을수 없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시였다.



이 순간 방금전에 것처럼 날과람있게 전투지휘를 하던 오중훈련대장을 본 독자들도 가슴이 찡해진다.

최관섭으로부터 오중훈이 중상을 입은 전말을 들으신 사령관동지께서

《그래 오중훈이가, 중훈이가 상했다말이요?》 하시며 그의 어깨를 짊 잡아당기신다.

이 짙막한 말쑈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과 깊은 뜻이 담겨져있는것인가. 그것을 감득한 독자들은 가슴이 찡해지면서 그이의 감정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독자들도 오중훈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안게 된다.

이것은 벌써 오중훈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사령관동지께서 느끼신 감정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의 정서적흥분을 불러일으켰음을 말하는것이다. 우리는 첫단락의 정황제시에서 아주 심중한 고려가 돌려졌음을 찾아볼수 있다.

작가는 인물들의 감정을 발생시키는 첫 정황제시를 오중훈련대장이 중상을 당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령관동지께서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장면의 첫째가는 형상과제인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성과 오중훈련대장에 대한 숭고한어버이사랑을 형상하기 위한 감정축적의 기초를 마련하고 독자들을 그 감정세계속에 끌어들이는데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만약 이와 달리 오중훈이 중상당하는 장면을 먼저 독자들에게 보여준 다음 지금 장면을 주었다면 그러한 독자들의 정서적흥분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을것이다. 또한 작품은 이 단락에서 사건을 더 끌고가지 않고 인차 두번째 단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더 조성하면서 감정의 폭발을 더 크게 터뜨릴수 있도록 감정축적을 보다 충분히 준비하고 고조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만약 여기에서 곧장 사령관동지께서 오중훈이 운명하는 기본사건에 림하시는데로 사건을 끌고 갔더라면 작중인물들도 그렇지만 독자들도 아직은 감정이 폭발할수 있을만큼 그 축적이 충만되지 못하고 고조되지 못함으로 해서 이 장면의 형상적효과를 약화시켰을것이다.

두번째 단락에서 독자들은 작중인물들과 함께 오중훈련대장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하신 사령관동지의 절절한 심정을 자기들의 심정으로 받아안고 치명상을 입은 련대장의 생사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엇갈리는 초조하고 복잡한 감정세계를 체험하고 축적하면서 다음의 단락으로 넘어가게 된다.

세번째와 네번째 단락에서 작품은 자기가 내세

운 형상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섯번째 단락인 추도식장면에 가서 터뜨릴 감정폭발을 위하여 감정축적을 더욱 충만시키고 고조시키는데로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림종을 앞둔 절박한 시각에도 애오라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충성의 화신, 오중훈의 티없이 맑고 깨끗하고 열화와 같이 뜨거운 신념화된 충성심을 절절하게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자신께서 몸소 키워내신 혁명전사, 가장 사랑하고 믿고 아끼고 의지하시던 전사의 희생앞에서 채 감지 못한 눈을 손수 감겨주시며 그를 먼저 보내는것이 너무도 애절하고 비통하시여 안광에 뜨거운 이슬을 담으시고 오열을 삼키시는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인간성과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의 화폭을 감동적으로 빛나게 창조함으로써 작가는 자기 형상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감정축적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만시키고 고조시키면서 그것을 폭발에로 추동하고있다. 세번째 단락에서 오중훈련대장은 벌써 자기의 최후가 경각에 달했다는것을 예감한다. 사령관동지께서 온 오신다는 말을 듣자 그의 얼굴에는 한가닥 빛이 어린다. 그러나 그 빛은 이내 스러지고 그의 눈에는 시뿌연 이슬이 그렇하게 어린다.

《살고싶습니다, 선생님...》

련대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간절한 소원으로 하여 독자들의 가슴속에는 격정의 파도가 설레인다.

오중훈은 무엇을 위해서 더 살고싶은것이겠는가? 이제 겨우 작전이 시작되었는데 뜻밖에도 그의 결을 떠나게 되는 자기의 최후를 예감하는 오중훈은 눈곱에 피었던 이슬이 가는 줄기가 되어 피가 가신 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작중인물들과 같이 가슴에서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는 걱정을 참을길 없어 마음속으로 련대장을 부르며 뜨거운것을 삼키게 된다.

울지 말고 자기를 대신하여 장군님을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오중훈의 모습앞에서 독자들도 영남이와 같이 오열속에 마음속으로 마지막숨결을 몰아쉬는 련대장을 애타게 부르며 몸부림친다.

작품은 이처럼 림종을 경각에 둔 그 순간에도 어버이수령님께 다함없는 충성의 한마음 다바치는 오중훈련대장의 감동적인 형상을 통하여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네번째 단락에로 끌고간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훈련대장에게로 걸음을 다그치신다. 얼굴에 불안과 초조한 빛이 어리신 그이께서는 발걸음을 헛디디시여 비칠거리기도 하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도 오중훈이 살아날것을 믿으신다. 그것은 그이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이의 소원이 이루어질수 없음을 알고있다. 오중훈은 벌써 세상을 떠난것

이다. 그래서 사령관동지께서 문철이에게  
《기적은 왜 기적이라고 그러오?...》하시는 말씀이 더더욱 독자들의 가슴속에 절절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것이다.

전나무밑에 놓인 담가를 둘러싸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눈물자리가 번들거리는 얼굴로 사령관동지를 쳐다보며 오열을 삼킨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계실것만 같이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산이라도 들어 옮기시는듯 한발한발 옮기시며 담가앞에 이르시여 자는듯이 누워있는 오중훈의 얼굴을 들여다보신다.

영남이 사령관동지께서 오셨다고 애처롭게 부르짖으며 런대장을 잡아흔드나 오중훈은 대답이 없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드시며 한 무릎을 꿇으시고 오중훈의 머리맡에 앉으신다. 《중훈동무...》

목메인 음성이다.

그이께서는 손을 드시여 오중훈의 얼굴에 가져가시더니 잠시 주저하시듯 망설이시다가 오중훈의 눈시울을 쓸어내리신다. 그제야 그이의 곁을 떠나기가 그리도 아쉬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감을수 없었던 오중훈의 눈이 감겨진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가슴속에 차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으시여 영남이의 들먹이는 어깨를 끌어안으신다.

아니, 끌어안으신것이 아니라 연약한 영남에게라도 의지하지 않으시고는 비감에 무너지는 마음을 지탱할수 없으셨던것이다.

《런대장은... 중훈이는... 우리를 두고... 갔구나...》 마디마디 끊어지는 그이의 목메이신 음성.

《중훈동무... 중훈이...》

그이께서는 격한 목소리로 이제는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수 없는 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신다.

이 단락에서 독자들은 사령관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그이의 위대한 인간성과 오중훈에 대한 한없는 아버지사랑에 대한 격동적인 감정으로 충만되며 그것은 다시 다섯번째 단락인 추도식장면에서 사령관동지께서 희생된 오중훈의 몸에 자신의 체온이 스민 외투를 덮어주시며 그러

지상토론

시고도 차마 사랑하는 전사의 몸에 찬흠을 덮지 못해하시는 감동적인 세부를 거쳐 더욱 숭엄하고 비장한 감정으로 심화되고 승화되고 고조된다.

그리하여 최고조에 달한 그 감정은 분화구를 찾는 용암처럼 작중인물들과 독자들의 가슴속에서 뒤설레이다가 사령관동지께서 사랑하는 전사를 묻은 슬픔을 못이기시여 얼음덩어리같이 차디찬 무덤흠을 어루만지시며

《동무를... 이렇게 묻을줄은... 조국땅도 아니고... 두만강기슭도 아닌... 머나먼 이 북만의 얼음땅밑에 널 한장 깔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묻을줄을... 누가... 누가 알았겠소...》

《무심하오. 중훈이, 너무 무심하단말이요. 우리가 함께 총을 잡고 걸어온 길은 십만리도 넘고 이십만리도 더 될텐데 그 험한 길을 이날이때까지 함께 걸어오다가 어찌 이렇게 불쑥... 우리를 남겨 두고 동무혼자 가는 법이 있단말이요!...》하고 절통하게 호곡하시는 장면에서 마침내 활화산처럼 폭발한다.

그러나 격동적인 감정의 흐름은 폭발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 감정의 흐름은 폭발한후에도 계속 불을 뿜어올리는 활화산처럼 지워지지 않는 여운을 끝면서 사랑하는 전사를 잃으신 끝없는 슬픔에 침식을 잊으시고 오중훈이 남기고 간 훈련제강을 마저 완성해주시며 군정훈련을 오중훈런대장의 복수전으로 선언하시는 사령관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통줄임통을 놓고 오중훈을 잃은 절통함에 수척해지신 사령관동지의 신색에 대하여 영남이와 함께 그처럼 걱정하시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작중인물들과 독자들의 가슴속에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성에 대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설이 끝난후에도 거세차게 굵이쳐 흐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중훈의 희생장면이 주는 깊은 감동은 작품이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키고 감정을 점차적으로 축적했다가 폭발을 가장 적절한 계기에서 준 거기에 있다.

우리는 혁명소설들이 거둔 이와 같은 사상미학적성과들을 널리 일반화함으로써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할것이다.

##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의 자연묘사의 특성

장희숙

자연묘사는 작품의 시대적배경을 제시하거나 등장인물의 활동조건을 특징짓고 심리정신세계를 개방하며 또는 지방풍토적특성과 민족정적취를

질게 하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혁명소설에서 자연묘사는 생활을 높은 사상에올적정지에서 진실하게 반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의 자연묘사는 이 작품의 이어의 모든 사상미학적성과들과 함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자연묘사의 특성은 우선 그 모든 자연묘사들이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사건의 본질을 돈구고 혁명투쟁의 기본흐름을 강하게 하여주고있는데 있다.

작품에서 볼수 있는 자연묘사들로서는 작품의 제2장 1절 씨하의 진펄을 횡단한후 봄소식을 안고오는 옥수천부근에서의 물소리에 대한 묘사, 농가의 추녀끝에서 떨어져 부서지는 고드름에 대한 묘사, 제10장 1절에서의 마안산의 역사적인 눈석이에 대한 묘사, 첫 봄비에 대한 묘사, 제12장 1절에서의 동강의 봄우뢰에 대한 묘사들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1936년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이후 동강밀영으로의 사령부의 행군과정을 묘사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일대 양양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예술적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매 역사적사건들의 본질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성과 위대한 인간적품모와 결부시켜 밝히면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광복의 그날은 밝아오며 그이께서만이 오직 2천만 우리 겨레를 구원하실 민족의 유일한 태양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사상을 종파사대주의자들과 편협한 민족배타주의자들에 의하여 빚어진 혁명의 엄중한 난국들이 장군님에 의하여 하나하나 타개되어 혁명의 활기가 되살아나며 궁극에는 전체 조선민족을 광범한 반일성전에 묶어세운 역사적인 조국광복회의 창립으로 결속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상주제적내용에 맞게 자연묘사의 중심을 봄과 관련된 눈석이, 봄비, 봄우뢰 등에 두면서 작품발전의 서두, 절정, 해결장면들과 밀접히 련관시키고있는것이다. 이는 작품의 종자와 사상주제적내용에 상응하게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의의를 더욱 돈구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작품의 첫 시작인 제2장 1절 옥수천부근에서의 자연묘사를 분석하여보자.

씨하의 대진펄을 횡단하던 때에도 겨울이였으나 옥수천부근에 당도하자 쪼르륵거리는 가느다란 물소리도 들려온다. 그것은 눈밑에서 솟아어나온 물이 실처럼 가는 줄기를 이루어가지고 조롱박만큼이나 된 물웅덩이에 떨어지는 소리로서 분명 해묵은 풀잎을 타고 봄이 오는 소리였던것이다. 눈석이가 시작되는것이다. 눈이 녹기 시작

한 옥수천부근의 이 자연묘사는 이미 3월이라는 계절에 따르는 변화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바야흐로 봄을 알리는 눈석이의 시작에 대한 자연묘사를 다만 계절적인 법칙으로써가 아니라 백두산기슭으로의 먼 행군길에 나서신 장군님의 역사적인 진출과 관련시키고 있는것이다. 즉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이후 그 방침관철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장군님께서 백두산기슭으로의 행군길에 나서신것이 바로 우리 조선혁명을 전국적관도에서 일대 양양으로 이끄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변으로서 우리 혁명의 새봄의 활기를 가져다주는것이라는 사상이 자연묘사의 바탕에 진하게 깔려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장군님께서 가시는 행군길에 대한 자연묘사에서 벌써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느다란 물소리를 통하여 바야흐로 시작되려는 봄의 서곡-눈석이에 대하여 알려주고있는것이다.

제2장 2절에는 동기와처마밑에서 처절씩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고드름소리에 뒤이어 졸랑졸랑 떨어지는 락수물소리에 대한 묘사가 있다. 깊디깊은 사색으로 밤을 밝히시던 장군님께서는 그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며 조선혁명이 활짝 꽃피여날수 있는 1936년 봄에 대한 원대한 구성을 무르익히신다.

강세호에게 남호두회의방침과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같이 자리에 누우시려 할 때 다시 철썩하고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작품에서는 부서져 떨어지는 고드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조선혁명이 봄을 맞듯 활기를 띠고 일어서게 된다는것을 힘주어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작품의 2장 서두에서 제시하였던 눈석이정조에 대한 묘사를 고드름이 녹아떨어지는, 완연한 봄을 알리는 자연묘사로 끝을 맺은것은 1936년 백두산기슭으로의 진출이 가지는 정치적의의를 강조하려는 제2장의 기본목적과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이 작품에서 자연묘사를 혁명투쟁의 기본흐름과 그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밀착시킨 이러한 특성은 제10장 1절의 마안산의 역사적눈석이에 대한 묘사와 제12장 1권의 동강의 봄우뢰에 대한 묘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작품의 사건발전체계를 놓고볼 때 마안산밀영의 사건은 작품의 절정부분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반《민생단》투쟁을 극작적으로 끌고온 혁명의 배신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심각한 모순과 사상적대립이 첨예하게 엉켜있었으며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생명이 경각에 이르고있었다. 장군님께서 이러한 마안산밀영에 오시여 일생일대의 대용단을 내리시여 《민생단》문서보따리를 불질러 버리시고 혁명전사들의 정치적생명을 구원하시였으며 민족배타주의독소에 시들어가고있던 아동단

원들에게 밝은 웃음을 다시 안겨준다. 작품은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기본문제가 해결된 마안산 사건의 역사적본질을 더욱 부각하기 위하여 제10장 1편에서 눈석이에 대한 감동적인 자연묘사를 펼쳐보여주고있는것이다. 《겨우내 두터운 눈이 하얗게 덮여있던 밀밭속의 땅거죽은 온통 시꺼멓게 변해버렸다. 유구한 세월을 두고 덧쌓이며 썩어온 락엽층 밑으로는 흐린 눈석임물이 숨새여내렸다.

넘쳐나는 봄시위물이 마안산계곡들을 팔팔 울리며 쏟아져내렸다. 풍만하게 넘치면서 흘러내리는 눈석임물은 얼음장들을 뚫고 떠이고 바다로 흘렀다.》(10장 1절)

작품은 이와 같은 묘사에서 뚫고 떠내려가는 얼음장들과 넘쳐나는 봄시위물을 통하여 종파분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이 혁명대오에 끼쳤던 배신과 불신의 분위기를 가시고 장군님의 품을 찾아 곳곳에서 모여오는 혁명전사들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마안산의 역사적사건이 가지는 커다란 정치적의의와 본질을 뚜렷이 부각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10장 1 절 서두에서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력에 의하여 다시 활기를 띠고 소생한 조선혁명의 흐름을 장엄한 눈석이와 넘쳐나는 봄시위물에 대한 자연묘사로 강조하였다면 자기 궤도에 들어선 인민혁명군부대가 첫 전투에 나가는 마감장면은 1936년의 첫 봄비에 대한 자연묘사로 끝내고있는것이다.

봄비가 내린다는것은 완전히 봄이 왔다는 뚜렷한 표시이다. 봄을 맞으면서 모든 만물이 봄비와 더불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작품은 장군님에 의하여 친솔부대가 다시 새로 조직되고 기세충천하여 적들을 치러 첫 전투에 돌입하는 혁명대오의 행군을 1936년의 첫 봄비에 대한 묘사로서 강조하고있는것이다.

자연묘사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작품의 마지막 장에서의 묘사에서도 여실히 찾아볼수 있다. 12 장은 작품의 사건발전에서 해결부분에 속한다. 작품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여온 모든 사건들이 조국광복회창립이라는 거대한 사변과 함께 총결속되는것이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이는 조선혁명과 조선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조선민족은 뚜렷한 강령을 가지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전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이렇듯 조국광복회의 창건장면에 앞서 요란한 천둥소리를 내며 동강마을에 울려 퍼진 봄우뢰에 대한 자연묘사를 준것은 조국광복회 창건의 역사적의의와 일체가 멸망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이 꼭 성취되고야만한다는 사상을 천지개벽의 징조라고 하는 자연의 변화로 상징적으로 대비하여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이렇듯 자연묘사가 자연풍토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 그친것이 아니라 작품에 반영된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일치하면서 그 의의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는데 이 작품의 자연묘사가 가지는 특성이 있으며 그 위력이 있는것이다.

작품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자연묘사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것은 형상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대비적묘사의 수법이다. 자연묘사는 작품발전체계의 론리와 따르는 발단, 절정, 해결장면의 서두와 마지막에 주어지면서 그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의의를 봄의 징조라고 할수 있는 물소리, 락수물소리, 눈석이, 봄비, 봄우뢰 등 봄과 관련된 자연적현상과 대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평면적으로 대비되어 묘사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양양되어가고있는 역사적사건들의 발전과 날로 무르익어가는 봄의 자연적변화와 일치시키고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의 자연묘사는 형상하려는 부분의 서두와 마지막에 놓이면서 그 장에 반영한 역사적사건의 발단과 해결을 그와 대비되는 자연묘사로 꼭 일치시켜 묘사하고있으며 완결하고있는것이다. 이는 작품의 사상주제를 더욱 강조하고 예술적효과를 높이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자연묘사의 특성은 다음으로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개방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세계는 직접적인 묘사로 형상될수도 있고 작가가 대신하여 분석할수도 있으며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묘사할수도 있다.

자연묘사는 자연에 대한 생동한 화폭적묘사로서도 의의가 있지만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묘사될수록 그 의의가 더욱 강조된다. 왜냐 하면 형상이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화폭의 생동한 반영을 의미하므로 인간들의 심리세계와 동떨어진 순수한 자연묘사는 작품의 사상에술적가치를 떨어뜨릴수 있기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장군님의 심리세계와 관련된 자연묘사는 옥수천부근밀림의 밤하늘에 솟아난 음력보름달에 대한 묘사, 푸르허기슭전후후 장군님께서 우등불가에 앉으시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는 때에 밀림의 밤하늘에 돌아난 별들에 대한 묘사, 마안산밀영에서 최선금을 만나시고 나서시였을 때 어두운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진눈까비에 대한 묘사 등이 있다. 이 자연묘사들에서 음력보름달이나 밤하늘의 별들에 대한 묘사는 장군님의 사색의 세계를 더욱 깊은곳으로 이끌어가는 계기로 복무하면서 무한히 펼쳐지는 사색의 세계를 통하여 그이의 위대한 풍모를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마안산에서 최선금을 만나시고 밖으로 나오셨

을때의 자연묘사는 다음과 같다.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였던 하늘에서는 어느덧 진논까비가 쏟아져 내리고있었다.

군모를 쓰실것도 잊으신듯 뒤집지신 손에 드신 채 이빨나무숲속 저편의 먼 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는 장군님의 안광에 이슬이 고이고 그 이슬을 통하여 서리발같은 푸른빛이 내뿜쳤다.

겹진겹진하고 축축한 눈송이와 함께 굽다란 비방울들이 엷어져 후둑후둑 떨어져 장군님의 머리칼과 군복과 모자를 적시였다.

진논까비는 삽시간에 온 천지를 물탕으로 만들어버릴듯 먼 산들과 숲을 아물거리는 류다른 장막으로 가리워버리면서 점점 더 맹렬하게 퍼부어 내렸다.》(8장 1절)

최선금은 혁명적량심이 깨끗하고 지조가 높은 참다운 혁명전사였다. 그러한 그가 《민생단》으로 몰린채 병원침대에 누워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는것을 보셨을 때 장군님의 심장은 그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는 본격으로 마구 뚫어번지신다. 작품에서는 장군님의 이 격하신 심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하늘에서 마구 쏟아져내리는 진논까비에 대한 자연묘사를 주고있는것이다. 진논까비 훑날리는 어두운 밤에 대한 묘사는 격분된 심정을 이기지 못하시여 안광에 이슬까지 고이시는 그이의 참된 인간적면모를 두드러지게 부각하면서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것이다.

인간심리와 관련된 자연묘사에서의 특이한 점은 혁명의 역사적흐름을 강조하여주고있는 자연묘사와는 달리 매우 간결하게 묘사되어있다는 점이다. 작품에서 표현되고있는바와 같이 역사적사건의 본질과 의의를 돋구기 위한 자연묘사는 항

독자연단

상 때 부분의 서두에 놓이면서 자연적변화와 그 현상자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있으나 인간심리와 관련된 묘사는 한두문장으로써 매우 간결하게 주어지고있다. 이것은 자연묘사수법을 활용하는 목적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장군님의 심리세계와 관련된 자연묘사는 대체로 그이의 사색의 세계를 형상하기 위한 계기로 되었기때문에 그이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돋구기 위한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자연현상자체에 대한 장황한 묘사는 불필요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는 매우 간명하게 자연묘사를 주고 그로부터 환기된 장군님의 심리세계를 폭넓게 묘사하는데 보다 중요한 초점을 돌리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의 자연묘사는 장군님의 심리를 개방하는데서뿐만아니라 기타 인물들의 심리세계를 형상하는데서도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놓고있다.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 환희에 찬 권학식의 심리를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른 밀림의 자연과 결부시켜 묘사한것, 한남실과 장기령의 상봉장면에서 조국으로 진군할 그날을 그려보며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는 그들의 심정에 맞게 봄향취와 고국의 정취를 한껏 돋구어주는 버들강아지에 대하여 묘사한것 등은 그 좋은 실례로 되는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자연묘사는 혁명의 기본흐름과 역사적사건의 본질을 돋구어주는 기능과 인간들의 심리세계를 개방하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면서 그 성격의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것이다. 이는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높이는데서 매우 긍정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창작실천에서 총서 《불멸의 역사》가 이러한 이러한 좋은 경험들을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이다.

## 영원한 봄

봄.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멀리 밀어내고 따사로운 태양의 해발을 받아 이 땅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70돐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길이 빛날 위훈과 충성의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한 일흔번째 봄.

총서 《불멸의 역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자연의 봄과 인민의 가슴속에 움트는 봄을 대조시키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항일의 불길속을 헤치시고 창설하신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여 유격구인민들이 혁명정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인간의 참된 존엄을 지닐수 있도록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시는 현명한 령도, 위대한 사랑, 장군님 두리에 굳게뭉친 유격구인민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소설의

전반에 제기하고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명깊게 잘 보여주고있다.

그 사랑, 그 령도, 그 신념이 있음으로 하여 보람찬 새생활을 누릴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가질수 있었으며 그 불패의 위력이 있어 우리 조국의 영원한 봄이 꽃피었다는 문제를 높은 사상에예술적형상으로 론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초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좌경적인 <쏘베트> 정부로선을 분쇄하고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조국광복회강령 제1조에 인민정부수립의 과업을 제기하고 그를 위하여 장기간 싸워왔습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김창억이가 마촌마을에서

활동하던중 조흔했다는 이유로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유격대입대가 거부되자 그의 안해 윤보금이 가 친정집으로 달아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아신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사랑으로 그를 타일러 데려오며 창억의 아버지 김진세로인과 같이 새끼를 꼬시면서 담화도 하시고 그를 토지개혁위원회 위원으로까지 내세워주신다.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봄을 안겨주는 뜨거운 사랑인가.

장군님의 그 한없이 은혜로운 품속에서 주인공 창억이는 사령부를 보위하는 경위대원으로 지휘성원인 소대장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장군님께서 중대정치지도원인 최진동이 부녀회장인 림성실이와 애인관계라는것을 아시고 본인들도 모르게 지하공작임무를 위하여 약혼사신을 찍어오게 하시는 심장의 충격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뜨거운 장면을 통하여 장군님의 고매하신 인간애를 잘 보여주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유격대원 마동호의 아버지 마종삼이 이미 가지고있는 토지를 합작하는 방법으로 토지개혁을 한다는 종파분자들의 쏘베트바람에 자기의 화전이 아까와 토지개혁을 반대하고 도망간다.

아버지를 찾아 떠났던 마동호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체포된다.

이때 유격근거지에 위대한 장군님이 오시게 되자 종파분자들은 자기들의 죄파가 무서워-마동호에게 돈까지 주면서 도망가라고 강요했지만 그는 끝내 달아나지 않고 장군님품에 안겨 구원되며 그 이후 마종삼로인도 갖은 고생끝에 장군님품을 찾아 돌아온다.

그러나 현당서기 권일균은 그를 때리면서 심문도 하고 토지개혁당시에는 죄파가 많다고 하여 그에게 3등전의 토지를 주려고 했으나 장군님께서서는 고생도 많이 했고 아들을 유격대에 보낸 아버지인데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며 제일 좋은 토지1등전을 분여해주신다.

이 장면을 통하여 유격구인민들에게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세상을 펼쳐주시려 준엄한 불길속도, 험난한 혁명의 길도 위대한 사랑의 빛발로 헤쳐나가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그 령도의 따사로운 빛발이 그대로 각이한 계층 사람들의 가슴속에 흘러들어 장군님만을 높이 받들어모실 충성의 꽃을 붉게 피우는 영원한 봄을 가꾸어주었다.

그 빛발이 있어 광복의 새봄도 락원의 새봄도 행복속에 꽃피난것이 아닌가.

소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격근거지창설을 위한 투쟁, 근거지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 인민혁명정부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

쟁, 유격근거지 주변의 광활한 지역에 반유격구를 꾸리기 위한 투쟁... 이 모든 투쟁을 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반일력량을 위대한 사랑의 령도로 굳게 결속시켜나가는 모습을 보렴도 꾸밈도 없이 형상하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높은 인민적수령의 품모를 우리들의 심장속깊이 심어주고있는것이다.

이 문제는 작품의 기본문제로서 소설전반내용에 관통되어있지만 더우기 국제당파전원 류현민이가 유격근거지에서 한달동안 생활하면서 장군님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국제당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글에서 잘 표현되고있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

청년장군!

청춘처럼, 봄처럼 아름답고, 순결하고, 생동하고 강의한 령도자!

그의 모습과 이 봄은 하나의 조화로 어울려져나로 하여금 심각한 시정에 자꾸 잠겨들게 한다. 나에게는 근거지의 이 봄이 자연의 봄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새 기운을 활짝 꽃피운 혁명의 화창한 봄으로 느껴진다.

지금 흐려진 나의 눈앞에는 웬일인지 첫상봉대에 본 발같이하던 그의 모습, 그때의 모든 전경이 심각한 의미를 띤 상징적인 화폭으로 안겨온다. 그가 팔쪽에 힘을 주어 땅에 깊이 박은 보습... 그변찍이는 보습날우로 물결치며 뒤번져지던 흙발... 아, **김일성**동지는 전인미답의 혁명의 황무지를 새 사상의 보습으로 갈아엎어나가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의 유격근거지에서 꽃피워주신 봄은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에 새 기운을 꽃피운 영원한 혁명의 봄이다.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 인간적의리문제를 주인공 창억이를 비롯한 각이한 등장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과 잘대조시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높이 모셔야 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호위해나가는 우리 친위병들은 물론이고 태양의 해발을 받으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에서 말없는 스승으로, 길동무로,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조선인민군 소좌 김석**

##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

총서 《불멸의 력사》 중의 장편소설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는 최근에 나온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를 아주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작품은 1930년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극좌적인 망동으로 인한 5.30폭동과 8.1폭동의 후과로 파괴된 혁명조직들과 광란하는 백색테로의 칼부림아래 피에 젖은 우리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구원하시어 혁명의 대지를 푸르게 일떠세워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기록하신 혁명력사를 높은 사상성과 세련된 예술적형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숭엄한 화폭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몸가짜이에서 조선혁명군지휘원으로 사업하던 차광수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을 모시는 전사의 립장과 자세를 가슴뜨겁게 느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지난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었습니다.》**

1930년대초는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와 좌경모험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초혁명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울터가기 시작하던 우리 혁명의 새싹들이 무참하게 짓밟히우던 준엄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차광수는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우리 인민과 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불별 쏟아지는 지평선에, 눈덮인 무인지경광야에 신음하는 조국땅의 인민들을 찾아 걷고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혁명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한목숨 다바쳐 그이를 옹위해나가

는것입니다.

작품에서 차광수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기 위해서는 물속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충성의 화신으로 형상되고있습니다.

혁명의 옳바른 령도자를 목마르게 찾아 헤매이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야 혁명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낀 그였기에 그는 류혈적인 5.30폭동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걸음걸음 일체의 총검과 밀정들이 옥실거리는 할빈과 교하 지구로 떠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을 진심으로 막아나서는것입니다.

《…한별동무, 교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조선사람들을 다 죽인다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모험을 하면 안되오. 그 누가 무슨짓을 해도 시정할길이 있지만 한별동무만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 혁명이 있고 미래가 빛나고있다는것을 절감하고있기에 그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신념화된 충성심을 품고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며 그이의 혁명사상을 내외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는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노래 《조선의 별》을 조직적으로 보급하는 차광수의 모습을 통해서도 감명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겸허하시게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의 보급을 막으시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동무에게 규률문제를 보아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다른 말씀은 다들어도 그 말씀만은 들을수 없다고 하면서 규률문제를 불라면 거기에 차광수자신도 포함

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과 이제는 한벌동무도 이 노래를 막지 못한다고 그렇게도 절절하게 말씀올립니다.

차광수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혁명가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첫째가는 과업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서는 한목숨 아끼지 않았고 언제나 자신보다 위대한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가의 전형으로서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군의 첫 별동대로 국내에 파견하였던 김형권소조가 국내공작 중 체포되었다는 비보를 받았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겪을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형권소조를 국내로 파견하실 때 그 소조의 한 성원인 최효성의 누이동생 걱정을 하시던 말씀이 상기되자 차광수는 그의 누이동생 옥선이마저 원쑤의 수중에 떨어지고만다면 어찌 조선혁명가들에게 의리가 있다고 말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수하에 전사들이 있다고 보겠는가고 생각하면서 단연 200리길을 달려가 천신만고하여 구원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다소나마 덜어드립니다.

이뿐아니라 차광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고수해나가는 것이 곧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한 길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날카롭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는 박경학이 오가자를 《혁명촌》으로 꾸리는 데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지 않고 사대와 교조에 물젖어 망탕 자기주장을 세우려 하자 격노하여 우리가 조선의 진

정한 혁명가들이라고 뿔뿔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고 혁명하기 때문이며 그이의 가장 독창적인 지도리론을 받아안고 혁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례로 오가자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이 문제를 정확히 풀자면 우리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라고 수령님의 연설내용을 인용해가면서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명백히 깨우쳐주었습니다.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의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우리 혁명에는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을 받아들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깨닫게 하여줍니다.

실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것은 우리 혁명의 운명, 조국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의 튼튼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므로 소설은 우리들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 참다운 교과서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것처럼 충직했던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그 립장과 자세로 수령님과 당중앙을 받들어모시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본심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평양두단오리공장 방역대 리종호**